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방안 연구

— 취업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방안 연구

- 취업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방안 연구 : 취업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 전북발전연구원 [편]. -- 전주 : 전
북발전연구원, 2012
p. : cm. -- (Jthink ; 2012-PR-01)

ISBN 978-89-6612-063-5 93330 : 비매품

여성 취업[女性就業]
이민자[移民者]

321.542-KDC5
331.4-DDC21

CIP2012003019

연구진

연구책임 박신규 •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진 조아영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원

자문위원 정경자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센터장

이승경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취업지원팀 팀장

김혜진 •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간사

장정남 • 익산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직업교육팀장

김문강 • 김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이효순 • 전주고용센터 직업상담원

연구관리 코드 : 12JU03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I. 연구개요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의 의미를 이주자의 사회 통합 논의에서 경제적 통합 차원으로 바라보면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현황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특성, 고용 및 취업 교육 실태를 사례 중심으로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 방안을 체계적이면서 지역밀착형으로 제안하는데 있음.
- 2009년에 실시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일반적인 인구학적 특성, 취업현황과 취업의 질 등을 양적 자료로 분석하고 여성결혼이민자 중에서 취업교육프로그램을 받거나 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취업한 취업자, 고용기관, 그리고 취업교육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 취업 유형별 특성과 취업교육 및 고용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 연구 필요성

- 결혼이민자 가족의 단계적 변화에서 언어문제(22.5%)를 제외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21.1%)으로 나타남(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2010).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들의 적응에 있어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설동훈 외, 2005; 정기선, 2007; 김승권, 2009).

- 2006년부터 여성결혼이민자를 비롯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면서 현재 지원정책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이주 역사에서 초기 적응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사회적·경제적 통합을 필요로 하는 단계에 있으며 이러한 단계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됨.
-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취·창업연구에서 취업실태 및 취업욕구, 유망직종, 직업훈련프로그램, 취업지원 서비스 효율화 방안 등(김이선외, 2008; 김영혜외, 2009; 양인숙외, 2010, 김정란외, 2011)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대안들이 제시됨.
-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전반적인 취업 현황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이 현재 지원 받고 있는 취업교육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을 통해 취업하고 있는 일자리의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지역사회 및 한국사회의 통합을 위한 취업지원정책과제를 발굴할 시기임.
-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의 의미를 스스로의 역량개발을 통한 능동적인 시민성 확보와 사회적·경제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제로 보는 한편 가족과 지역사회 통합을 정책적으로 견인하는 동력으로서 의미를 두고자 함. 더불어 여성결혼이민자와 이주여성 노동자와의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며, 이는 이주민들이 이주한국가에서 본국에서 획득한 인적자본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음.
- 여성결혼이민자의 현실적인 취업가능 직종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주민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일상은 한국인보다 더 지역밀착적 일상을 가지고 있기에 지역형 취업지원이 필요하다고 봄.

2. 연구방법

○ 기초통계 수집 및 문헌연구

-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기초통계 수집 및 분석
- 여성결혼이민자 취업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연구보고서 수집 및 검토
-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 1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라북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행정자료 수집 및 분석

○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원자료 재분석

- 전북 지역 자료는 조사완료 가구가 4,043 가구이지만 지역, 성별, 국적별 가중치를 부여해서 실태조사 분석에 사용한 가구는 5,436가구였음.
- 분석내용은 인구학적 특성, 취업직종, 근로시간, 임금, 취업형태 등을 분석함

○ 사례조사

-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실태 및 지원을 분석하기 위하여 심층면접을 통한 사례 조사를 실시함.
- 심층면접은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부여하는 의미들을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방법임.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취업교육프로그램 혹은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후 취업한 대상으로 한정하여 취업지원과 현재의 취업 연결성, 그리고 지원의 문제점을 분석함. 취업과 연관된 취업교육기관, 그리고 고용기관들의 실무자들도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취업지원 현황도 정리함. 이와 같은 연구방법의 의미에 따라 심층면접은 대상별로 개별면담이나 집단면담형태로 이루어짐.
- 심층면접 대상자는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 22사례, 취업교육기관 및 고용기관 15사례로 총 37사례가 선정되었고 각 대상자별로 진행된 면접내용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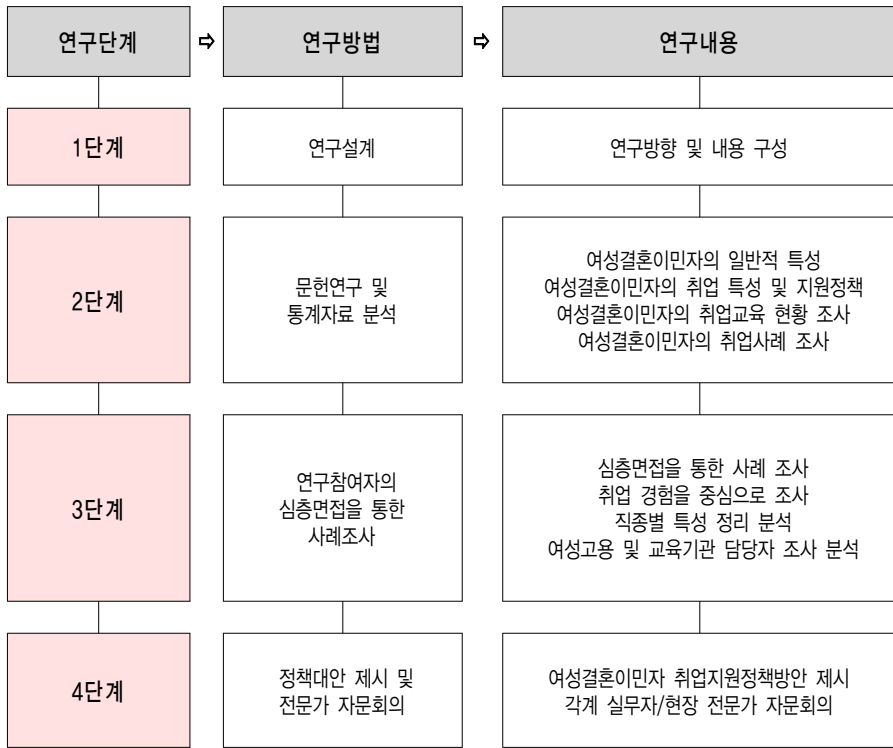
〈표〉 각 대상별 심층면접 내용

대상	항목	주요내용
취업한 여성결혼 이민자	취업근무조건	취업처(회사이름, 직종),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근무시간, 임금, 4대보험 적용 여부, 현재 근무지에 대한 만족, 주변사람들에게 권유
	취업경험	취업교육 경험, 취업정보 습득, 출신국 취업경험과의 연관성, 취업에서의 어려움,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필요한 취업프로그램의 내용
	향후 취업희망 일자리 특성	희망 직종 및 업종/선택의 이유, 희망 근무시간, 희망 급여 수준
	희망 훈련프로그램 욕구	희망 훈련프로그램 종류 및 내용, 희망 훈련시간 및 기간, 희망 훈련 기관
	취업지원 현황	현재 취업에 대한 가족의 지원, 지방정부의 지원책에 대한 욕구
고용기관	기관 정보	기관유형, 직원 현황
	고용 관련 정보	고용배경, 모집 및 선발기준/근로조건, 여성결혼이민자의 업무조건, 만족도, 훈련기회 제공 여부
	고용상 문제점	고용상의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필요한 직무교육
	지원 방	노동수요전망, 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방안
취업교육기관	기관정보	기관유형, 직원 현황
	취업서비스 현황	취업지원(교육프로그램, 취업연계 등), 타 기관과의 협력여부, 취업교육 프로그램의 방향
	취업지원정책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 전문가 자문회의

-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과 관련된 현장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함. 자문회의에서는 취업지원의 방향과 내용을 자문 의뢰하고 이외에 연구의 전반적인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착수 및 최종 연심회의를 실시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함.

○ 연구절차



II. 연구결과

1.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현황과 취업의 질(Quality)분석

- 2009년에 실시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한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률은 33.3%이고 취업한 직종을 보면 서비스 종사자가 24.6%, 기타 단순 노무자 20.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17.7%의 비율로 나타난다.
- 종사상의 지위를 보면 임시근로자가 38.9%, 상용근로자가 23.5%, 일용근로자가 13.3%의 순이고 무급가족 종사자가 4.3%로 전국 단위의 2.4%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다. 전북의 특성상 농업종사자와 연관하여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됨. 월평균 근로소득은 50~100만원 미만이 51.3%를 차지함(전국은 49.7%).
- 직종별 주당 근로시간을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종사자가 41~70시간에 33.1%, 71시간 이상에 30%, 기타 단순 노무자의 경우에 41~70시간에 49.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24시간 미만에 58.3%의 비율을 보인다.
-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 특성별 취업 상태를 보면 먼저 학력에 있어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률이 45.5%로 가장 높고, 한국어 능력에 있어서도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취업하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본국에서의 취업경험이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왔으며, 한국에서의 직업 훈련 경험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더 높은 취업 상태를 보인다.
- 출신국에 있어서는 취업 상태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북미, 유럽 출신과 필리핀 출신 여성결혼이민자가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았고, 거주기간에서 있어서는 일본과 중국 출신들이 높은 것과 연관됨. 학력과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이들의 취업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 현재 전라북도에 있어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 비율은 20~29세가 40.5%에 이르고 이들의 거주 기간이 짧고 중학교 이하 학력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특징은 이들에 대한 인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줌.

2. 사례 분석을 통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직종별 특성

-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 사례를 조사하여 취업지원 사업에 참가한 경험이 있으면서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살펴보았을 때, 취업 직종별 유형은 언어자원을 활용한 직종, 정부의 각종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직종, 일반 노동시장에 편입된 직종, 농촌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영농인력들로 구분될 수 있었음.
- 언어자원을 활용한 직종은 정부지원의 형태로 공공일자리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통·번역사, 시간제 시급의 다문화강사, 그리고 언어지도사 과정을 거쳐 공공과 민간부문의 중간 지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언어 강사들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강점을 지님. 그러나 지역에서 실제로 수요될 수 있는 수요처 확보와 언어자원에 대한 재교육의 과정이 요구되는 직종의 한계가 보임.
-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자리의 성격상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렵지 않고 4대 보험의 혜택을 가진 괜찮은 노동조건을 가지고 있는 일자리로 평가 받을 수 있음. 예비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 사업단이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과 비영리사업을 분리 운영하지 못할 경우 사업의 지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취업훈련 교육도 3~6개월 단기성 교육에 머무르며 단순 취업 역량을 키우는 단점을 지님.
- 일반 노동시장에 편입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사례조사에서 판매직, 공장 근무직에 머무르면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근무조건에서 일하고 있음. 이는 전북 여성결혼이민자의 다수가 취업하고 있는 직종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서비스 종사자, 기타 단순 노무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나타난 결과와 같음.

- 영농인력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평균 경지면적이 0.47ha로 상대적으로 영세한 영농규모를 보유하고 있기에 농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움. 이들은 농촌이민여성센터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상대로 봉제, 도배기술들을 가르쳐 주는 것에 매우 만족하는 의사를 표시함.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이후 향후 직업훈련 분야에 대해서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분야 보다는 자격증을 보유할 수 있는 직업 훈련을 요구함. 농촌에 거주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농촌형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취업 사례를 통해 현재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 상황을 살펴본 결과 취업 직종 유형별로 공통적으로 안정된 상용직의 조건보다는 단기 계약과 임시직에 머무르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었고 임금은 평균 70~100만원 사이의 임금을 받고 있었음.
- 본국에서의 취업 경험을 가지고 있고 취업교육 훈련을 통해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상대적으로 언어자원을 활용한 직종과 일자리 지원 사업에 연계된 직종에 취업한 경우가 많았음. 그러나 이들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취업교육훈련 보다는 개인적 능력이나 단기 교육을 통해 일자리에 투입된 경우가 많았고, 취업을 한 상태이지만 취업교육훈련에 대한 재교육과 한국어 능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원하고 있었음.
- 본 연구의 사례조사를 통해 재봉 일을 해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여성결혼이민자 대다수가 본국에서의 직종과 연관성이 없는 일들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이는 본국에서의 인적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것과 함께 이주민들이 이주한 국가에서 본국에서 획득한 인적자본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함.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학력과 한국어 소통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취업가능 직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3. 취업교육기관의 역할과 고용기관 요구 분석

-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전라북도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관별 취업교육프로그램의 운영 현황과 취업기관에 대한 면접을 통해 정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기관별 취업교육프로그램의 전문화와 연계성의 문제, 고용기관의 여성결혼이민자 수요 예측과 만족도의 차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직업소양 교육의 강조로 요약되어짐.
- 취업 훈련프로그램과 연동한 취업연계가 미진한데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례처럼 이들은 출신국가나 한국어 수준, 개인의 학력 등의 차이를 고려해서 세부 집단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고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여성결혼이민자라는 동질성을 상정한 채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것임.
-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연계에 있어서 각 기관별 네트워킹의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각 기관들이 교육대상자로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수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 연계를 단계적으로 수행하면서 단계별로 각 기관들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결혼이민자에 대한 경험 및 상담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 교육과 초기 직업 교육에 집중하고 여성의 직업의식 및 직업훈련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새일센터는 실무적인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구인업체 정보를 가지고 취업을 연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여야함. 또한 고용지원센터는 다양한 취업교육프로그램과 취업지원금제도, 그리고 다양한 직업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결혼이민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함.
- 여성결혼이민자를 채용한 고용기관은 대체로 인력난과 정책적 의도, 사업추진, 개인적 구인난 등으로 여성결혼이민자를 채용, 현재 채용한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 공장근무인 경우 조퇴와 결근, 그리고 잦은 이직률이 작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이것은 현재 취업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 교육에 있어서 직업소양교육의 부족으로 간주되며 향후 직업훈련프

로그랩에서 더 강조되어야 할 분야로 여겨짐. 전반적으로 취업한 분야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측면이 나타났고 가장 기본적인 한국어와 직장문화교육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됨.

Ⅲ.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1. 취업지원정책의 기본방향

-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정책은 결혼이민자의 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 일자리 알선, 일자리 제공 등과 같이 직접적인 일자리 제공과 함께 일자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취업정책이면서 적극적 노동시장에 편입시키는 정책으로 바라볼 수 있음.
- 우선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라는 취업의 의미를 스스로의 역량개발을 통한 능동적인 시민성 확보와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경제적 위치에 있는 자신과 가족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제로 보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필요함.
- 두 번째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가족의 생산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직업훈련이나 취업 수요가 높지만 시장 내에서 취업에 따른 낮은 소득 획득 가능성, 취업 수요처의 부족, 자녀돌봄의 제약 등으로 풀타임 근로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이 고려되어야 함. 현재 이들의 취업지원을 담당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프로그램 등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특화된 계층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갖추어져야 함.
- 세 번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인적역량 특성, 거주하는 지역이 고려되고 다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2. 정책추진과제

1) 취업지원의 전달체계 개선

① 여성결혼이민자 취업관련 기관간의 업무 분담과 취업연계

기관	업무 역할	연계방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업기초소양프로그램 운영	여성결혼이민자 특성 고려 연계방안 제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훈련교육 (기업/지역특화)	직업훈련교육의 특화/기업 수요연결, 창업
고용지원센터	구인/구직의 직접적 연결	다양한 구인업체 정보에서 여성결혼이민자 특성 고려 연결 취업지원금제도 정보 제공

- 결혼이민자에 대한 경험 및 상담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 교육과 초기 직업 교육에 집중하고, 여성의 직업의식 및 직업훈련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새일센터는 실무적인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구인업체 정보를 가지고 취업을 연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함. 고용지원센터는 다양한 취업 교육프로그램과 취업지원금제도, 그리고 다양한 직업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결혼이민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역할을 담당함.

② 전라북도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대 상: 도와 시군 담당자, 고용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 도내 여성 결혼이민자가 취업해 있는 기업 등
- 추진주체: 전라북도
- 사업목적: 전라북도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정책 공유 및 사업기획

-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을 위해서 관련 기관의 연계 필요성은 과제로 제시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취업지원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함.

- 협의체 구성 기관으로는 도와 시군 담당부서, 고용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도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취업해 있는 기업, 기타 사업체 수행 기관 등으로 취업 관련 사안을 정기 및 부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운영함.
- 지역공동 사업 기획,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정책 및 사업 정보 공유, 취업박람회 공동 실시, 지역 내 취업교육프로그램의 중복 방지 및 조율하는 역할 수행.

③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 상담사의 배치와 교육

- 대 상: 고용지원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취업상담사
- 추진체계: 전라북도(취업상담사의 재교육 실시 및 취업상담사 배치)
- 사업목적: 여성결혼이민자 대상의 전문 취업 상담사의 배치와 교육

-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특성 및 가족 특성 등 이들에게 적합한 취업 상담과 취업 지원 업무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필요함.
- 기존 취업 기관의 취업상담사에 대한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하여 교육시키는 방안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상담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에게 취업상담 관련 교육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함.

2)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다양화된 설계 및 운영

- ①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의 적극적 활용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10년에 개발한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프로그램(Women Immigrants' New Directions)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취업하고자 할 때 알아야 할 기초적인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 및 안내하고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초소양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 지역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직업기초소양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도록 함. 취업기관의 유기적 관계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취업교육프로그램도 단계적 지원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해 봄.

② 지역의 인력수요 및 이주여성의 특성을 살린 취업교육프로그램 운영

- 대 상: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결혼이민자
- 추진체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도 자체 예산 취업교육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업수요에 기반한 직업훈련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연계
- 사업목적: 지역의 인력수요 및 이주여성의 특성을 살린 취업교육프로그램 운영

- 지역의 기업체에 대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인력수요 현황을 파악하여 전일제 노동일을 원하고 경제적 지원이 시급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단기 직업소양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을 연계해 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와 기업체에 대한 관리를 진행함.
- 지역 거주 이주여성의 특색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함. 임실과 같이 베트남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의류제작 기능인 양성과정을 통해 직업훈련을 시키고 다문화부티크 같은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 예가 될 수 있음.

3) 여성결혼이민자 취업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① 한국어교육 강화

- 대 상 :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 추진체계: 전라북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고용기관
- 사업목적: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소양을 기르기 위한 한국어 교육의 강화

-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은 2012년에 교육시간이 확대되어 연간 총 400시간이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1-2단계 200시간을 필수 운영하되 선택사업을 두어 총 400시간을 운영하는 과정인데 지역별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반을 개설하는 방안을 고려함.
- 직업훈련프로그램 안에 기초소양프로그램으로 취업과 관련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현재 방문 지도사를 이용하여 기업체의 이해 하에 작업

장 내에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 방안은 앞서 제기한 결혼이민자 취업지원협의체와 같은 기구를 통해 가능할 것임.

② 여성결혼이민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 상용시간제 일자리에서 높은 분포를 보이는 직종의 경우 시간제 근로에 대한 노동수요가 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이므로 이들 직종을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정착 및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상용제 시간제 일자리 직종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시간제 직종으로 고려해 볼만 한 것은 ‘이미용 예식 및 의료서비스’의 경우 미용사, 피부미용 및 체형관리사, 간호조무사 등이 포함되며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의 간병인, 매장 판매직 등으로 ‘직종별 인력 수요 전망’에서 향후 2018년까지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직업들임.
- 운영방식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취업교육프로그램과 직업훈련기관에 이와 같은 시간제 일자리로 갈 수 있는 취업교육훈련프로그램과 자격증의 구비 훈련 과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③ 도시와 농촌형 특성을 고려한 여성결혼이민자 대상의 공공일자리 창출

- 전라북도의 경우 도농의 혼합도로서 도시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지원의 방식은 차별화되어야 함.
- 도시형은 현재 이들이 지닌 언어문화자원을 활용한 다문화강사, 통·번역사, 외국인 지도사 등을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만들어 공공일자리로 창출하는 방안이 있을 것임.
- 농촌형의 공공일자리는 농촌여성일자리 지원 사업, 마을기업사업 등으로 운영하여 공동체적 작업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현재 전라북도 내에서 운영되고 있음. 이와 같은 지역별 특화사업의 형태로 접근하는 방안 등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농촌에서 가사일과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군을 개발하여 여성결혼 이민자들이 보다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하도록 기회 제공이 필요함. '특례형 공동아이 돌보미 사업'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이 없는 먼단위 지역 중 영유아가 10명 내외인 곳은 지역농협, 마을단위 공동경영체 등 법인이 보육시설 사업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준 완화하고 학력 제한 없이 지정기관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25~60세 여성이 보육 교사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것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의미가 있을 것임. 또한 노인돌봄 도우미, 농촌관광 및 문화행사 도우미, 공부방 보조 교사 등도 농촌에 거주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다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농촌형 일자리 창출로 여겨짐.

④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 강화 : 전북도립여중고 활용방안 모색

-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출신국 학력과 한국어 능력이 취업에 영향을 끼치고 학력이 높을수록 안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었음. 이와 같은 경향과 맞물려 현재 전라북도에 있어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 비율이 20-29세에 40.5%에 이르고 있으며 거주 기간은 짧고 학력은 중학교 이하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인적 자본을 강화시키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대두됨.
- 현재 전라북도에는 자체 운영하는 중·고교 정규과정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도립여중고가 존립하고 있음. 이곳을 통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임.

⑤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 개최

- 전라북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해 봄. 취업박람회는 직업훈련시설 및 여성일자리 지원 기관을 알리고 여성취업 가이드북도 제공해주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취업에 대한 정보와 취업교육기관의 홍보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음.

- 전라북도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며 운영 주체는 결혼이민자 취업지원협의체가 주축이 되어 시행해 봄. 박람회 시기는 전라북도 내의 어울림 축제 기간을 이용하여 ‘작은 다문화 박람회 및 취업박람회’를 기획해 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⑥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적 DB 구축 및 정책 지원에 대한 주기적 평가

-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은 향후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함께 중요한 정책적 지원이 될 것임. 다문화가족 부부의 연령 차이로 인한 남편의 노동시장 은퇴, 자녀들의 노동시장 진입,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시장 참여의 불가피성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지원정책과 인프라는 지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함.
-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과 관련해서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프로파일(고혜원, 2010)을 작성하는 작업을 각 취업교육기관에서 실행하도록 함. 프로파일 내용은 개인의 인적 사항에 따라 유형화 하는데 그 요소로는 한국어 능력, 직업능력,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함.
-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가 2009년에 이어 2012년에 재 시행되는 시점에서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기본 통계를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함.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적 변화와 함께 시행되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책 지원에 대하여 주기적 평가도 시행되어야 할 것임.

목 차

제 1 장 서 론	3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제 2 절 연구내용 및 방법	6
1. 연구내용	6
2. 연구방법 및 연구절차	7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10
1. 기존연구 검토	10
2. 본 연구의 차별성과 제한점	12
제 2 장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특성 및 지원 사업	17
제 1 절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17
1. 전국 여성결혼이민자 증가 현황	17
2.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 증가 현황	23
제 2 절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 취업특성	27
1.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학적 특성	27
2.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특성	29
3.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현황 및 특성	31
4.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특성별 취업 상태 분석	36
제 3 절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사업	41
1. 전국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	41
2.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	51
제 4 절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사업 사례	56
1. 사회적 기업	56
2. 사회적 일자리 형태의 지원사업 사례	61
3. 소결	63

제 3 장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사례 조사	67
제 1 절 사례 조사의 개요	67
1. 조사 대상자	67
2. 연구방법 및 내용	71
제 2 절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직종 유형별 특성	73
1. 언어자원을 활용한 직종	73
2. 일자리 지원 사업 관련 직종	77
3. 일반 노동시장 편입 직종	81
4. 농업에 종사하는 영농인력	86
5. 소결 및 시사점	89
제 3 절 취업교육기관 및 고용기관 사례 분석	91
1. 취업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	91
2. 취업연계의 성과 및 한계	95
3. 고용기관의 여성결혼이민자 채용결과	100
4. 소결 및 시사점	105
제 4 장 결론 및 정책과제	111
제 1 절 연구결과 논의	111
1.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현황과 취업의 질(Quality)분석	111
2. 사례 분석을 통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직종별 특성	112
3. 취업교육기관의 역할과 고용기관 요구 분석	115
제 2 절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119
1. 취업지원정책의 기본방향	119
2. 정책과제	120
참고문헌	135

표 목 차

〈표 1-1〉 각 대상별 심층면접 주요 항목	8
〈표 2-1〉 전국 외국인주민 현황(2011)	19
〈표 2-2〉 전국 결혼이민자 증감 추이(2007~2011)	22
〈표 2-3〉 전라북도 지역별 결혼이민자 증감추이(2007~2011)	24
〈표 2-4〉 전라북도 지역별 결혼이민자의 성별분포(2011)	25
〈표 2-5〉 전라북도 지역별 여성결혼이민자 출신국별 현황(2011)	26
〈표 2-6〉 전북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학적 특성	28
〈표 2-7〉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특성	30
〈표 2-8〉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현황	31
〈표 2-9〉 직종별 월평균 소득	33
〈표 2-10〉 직종별 주당 근로시간	34
〈표 2-11〉 직종별 종사자 지위	35
〈표 2-12〉 연령별 취업상태	36
〈표 2-13〉 인적특성별 취업상태	37
〈표 2-14〉 현재 직종, 본국 직종과의 교차분석	38
〈표 2-15〉 출신국별 취업상태 및 입국전 취업경험률	39
〈표 2-16〉 출신국별 학력 및 거주기간	40
〈표 2-17〉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종합대책(2010~2012)	42
〈표 2-18〉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역할	43
〈표 2-19〉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ONE-STOP 서비스 내용	44
〈표 2-20〉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결혼이민자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2010) ...	45
〈표 2-21〉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결혼이민자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2011) ...	46
〈표 2-2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47
〈표 2-2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48
〈표 2-24〉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내용	49

〈표 2-25〉 전라북도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2011)	52
〈표 2-26〉 전라북도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 계획(2012)	53
〈표 2-27〉 전라북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현황	54
〈표 2-28〉 전북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2011)	54
〈표 2-29〉 전북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계획(2012) ·	55
〈표 2-30〉 여성결혼이민자 참여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	57
〈표 3-1〉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유형별 직종	67
〈표 3-2〉 분야별 결혼이민자 적합 직종	68
〈표 3-3〉 여성결혼이민자 심층면접 대상자의 특성	68
〈표 3-4〉 고용기관 및 취업교육기관 심층면접 대상자	70
〈표 3-5〉 각 대상자별 심층면접 주요 내용	72
〈표 4-1〉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프로그램 (Women Immigrants' New Directions)	124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9
〈그림 2-1〉 전국 외국인주민 현황(2011)	18
〈그림 2-2〉 전국 국제결혼 증가 추이(2001~2011)	20
〈그림 2-3〉 전북 국제결혼 증가 추이(2001~2011)	21
〈그림 2-4〉 전북 결혼이민자 거주 지역(2011)	23
〈그림 2-5〉 부산여성사회교육원 ‘Talk, Play, Learn 사업단’	59
〈그림 2-6〉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떴다! 무지개 사업단’	61

제1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제 2 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이 형성된 배경에는 세계화와 빈곤이라는 사회적 현상이 연결된다. 국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동하는 정보와 자본 그리고 사람들의 흐름에 따라 각 지역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는 과정인 세계화(기든스, 1998)는 이주민의 증가,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 국제결혼 등과 같은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들을 증가시킨다.

세계화의 현상과 맞물려 빈곤한 국가의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좀 더 부유한 국가의 남성들과 결혼함으로써 빈곤 탈출의 기회로 삼는 ‘이주의 여성화’라는 측면이 작동되며 이것은 국제결혼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사회에서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의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 결과에 따른 인구학적 변화는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나타났으며 전국의 국제결혼이민자 가족수는 2007년 171,213명에서 2011년 362,612명으로 111%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국 단위의 전체 이민자 가족 증가는 자녀, 혼인귀화자, 국제결혼이민자 순으로 높게 증가하였다.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자녀가 244%로 증가하였고, 혼인귀화자가 79%, 결혼이민자는 61%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전국적 수치의 변화에서 자녀 증가에 비해 국제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국제결혼이민자가족이 이제 적응 단계에서 자녀 성장 변화라는 정착 단계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이민자 가족의 단계적 변화와 맞물려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생활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 이들이 당면한 문제는 언어문제, 문화적 차이, 자녀 양육,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언어문제(22.5%)를 제외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경제적 어려움(21.1%)으로 나타났다(전국 다문화가족실태 조사 연구, 2010).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들의 적응에 있어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설동훈 외, 2005; 정기선, 2007; 김승권, 2009).

한국 정부는 2006년부터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현재 지원정책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이주 역사에서 초기 적응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사회적·경제적 통합을 필요로 하는 단계에 있으며 이러한 단계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지원을 주제로 한 연구와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취·창업연구에서 취업실태 및 취업육구, 유망직종, 직업훈련프로그램, 취업지원 서비스 효율화 방안 등(김이선의, 2008; 김영혜외, 2009; 양인숙외, 2010; 김정란외, 2011)의 연구결과들이 있고, 이 연구결과를 근거로 정책적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현황과 정책에 대한 연구들과 맞물려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전반적인 취업 현황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이 현재 지원 받고 있는 취업교육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을 통해 취업하고 있는 일자리의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지역사회 및 한국사회의 통합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한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라는 취업의 의미를 스스로의 역량개발을 통한 능동적인 시민성 확보와 사회적·경제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제로 보는 한편 가족과 지역사회통합을 정책적으로 견인하는 동력으로서 의미를 두고자 한다.

또한 국제결혼을 통해 해외로 이주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에서 보다 나은 국가로의 취업이주와 양상을 같이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혼이주와 노동이주를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도 제기하고자 한다.

여성결혼이민자와 이주여성 노동자와의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주민들이 이주한 국가에서 본국에서 획득해 온 인적자본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취업가능 직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주민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일상은 한국인보다 더 지역밀착적 일상을 가지고 있기에 지역형 취업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의 의미를 이주자의 사회통합 논의에서 경제적 통합 차원으로 바라보면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현황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특성, 고용 및 취

업교육 실태를 사례 중심으로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 방안을 체계적이면서 지역밀착형으로 제안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에 실시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일반적인 인구학적 특성, 취업현황과 취업의 질 등을 양적 자료로 분석하고 여성결혼이민자 중에서 취업교육프로그램을 받거나 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취업한 취업자, 고용기관, 그리고 취업교육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취업 유형별 특성과 취업 교육 및 고용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의 의미를 이주자의 사회 통합 논의에서 경제적 통합 차원으로 바라보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현황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현재 지원 받고 있는 취업교육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을 통해 취업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및 한국사회의 통합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과제를 체계적이면서 지역밀착형으로 제안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보면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제시하고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방법 및 연구절차, 그리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일반적인 현황과 취업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과 지자체 단위에서 진행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정책과 사업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사업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례에서 지역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전국적 사례와 전라북도의 사례를 정리해 보았다.

제3장에서는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 중에서 취업지원과 교육프로그램을 경험한 대상자들 중심으로 취업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고용되어 있는 기관의 관계자와 취업교육을 진행한 교육기관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고용 현황, 취업교육 실태에 대해 심층면담을 하여 사례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2, 3장의 현황과 취업지원정책, 그리고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특성과 교육 및 고용 현황을 토대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및 연구절차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현황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특성, 취업교육 및 고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주요 연구방법으로 기초통계 자료 수집 및 분석, 관련 문헌 연구,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와 고용기관 실무자, 취업교육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한 사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1) 기초통계 수집 및 문헌연구

-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기초통계 수집 및 분석
- 여성결혼이민자 취업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연구보고서 수집 및 검토
-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 1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라북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행정자료 수집 및 분석

2)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원자료 재분석

-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중 전라북도 자료를 추출하여 재분석
-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결혼이민자 전수인 154,333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실시, 최종 7만5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함. 이 자료들은 모집단 분석을 통해 지역별, 성별, 국적별 가중치가 부여된 자료임.
- 전북 지역 자료는 조사완료 가구가 4,043가구이지만 지역, 성별, 국적별 가중치를 부여해서 실태조사 분석에 사용한 가구는 5,436가구였음.
- 분석내용은 인구학적 특성, 취업직종, 근로시간, 임금, 취업형태 등을 분석함.

3) 사례조사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실태 및 지원을 분석하기 위하여 심층면접을 통한 사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의 기법은 참여자들의 관점과 생활세계, 의식, 주관성,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연구자는 심층면접을 통해서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들을 둘러싼 세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 통찰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지원 사업 혹은 취업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에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취업지원과 현재의 취업 연결성, 그리고 지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이들의 취업과 연관된 취업교육기관, 그리고 고용기관들의 실무자들에 대해서도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취업지원 현황을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의 의미에 따라 심층면접은 대상별로 개별면담이나 집단면담형태로 이루어졌다.

심층면접 대상자는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 22사례, 취업교육기관 및 고용기관 15사례로 총 37사례가 선정되었고, 각 대상자별로 진행된 면접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1) 각 대상별 심층면접 주요 항목

대상	항목	주요내용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	취업근무조건	취업처(회사 이름, 직종)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근무시간, 임금, 4대보험 적용 여부, 현재 근무지에 대한 만족, 주변사람들에게 권유
	취업경험	취업교육 경험, 취업정보 습득, 출신국 취업경험과의 연관성, 취업에서의 어려움,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필요한 취업프로그램의 내용
	향후 취업희망 일자리 특성	희망 직종 및 업종/선택의 이유, 희망 근로시간, 희망 급여 수준
	희망 훈련프로그램 욕구	희망 훈련프로그램 종류 및 내용, 희망 훈련시간 및 기간, 희망 훈련기관
	취업지원 현황	현재 취업에 대한 가족의 지원, 지방정부의 지원책에 대한 욕구
고용기관	기관 정보	기관유형, 직원 현황
	고용 관련 정보	고용배경, 모집 및 선발기준/근로조건, 여성결혼이민자의 업무조건, 만족도, 훈련기회 제공 여부
	고용상의 문제점	고용상의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필요한 직무교육
	지원 방안	노동수요전망, 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방안
취업교육기관	기관정보	기관유형, 직원 현황
	취업서비스 현황	취업지원(교육프로그램, 취업연계 등), 타 기관과의 협력여부, 취업교육프로그램의 방향
	취업지원정책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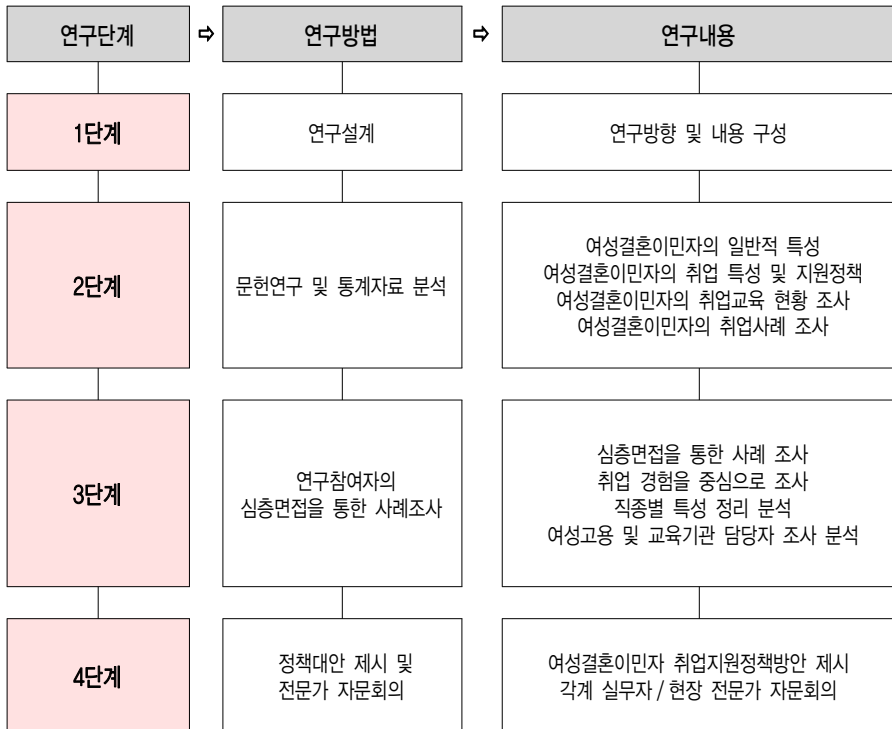
4)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의 진행을 위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과 관련된 현장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자문회의에서는 취업지원의 방향과 내용을 자문 의뢰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외에 연구의 전반적인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착수 및 최종 연심회의를 실시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5) 연구절차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에 따라 연구절차를 도식하면 아래 <그림 1-1>과 같다. 전체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연구의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1. 기존연구 검토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에 대한 연구는 2005년 전후로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권을 다룬 연구는 양적인 측면에서 증가되고 있으며 질적인 측면에서 차별화되고 다양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기존에 이루어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결혼이민자들의 취업 현황 및 취업욕구와 동기, 노동경험, 진로기대, 취업 난제요인 등을 규명한 실태와 이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연구,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의 구체적인 경제활동,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들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한국사회에 취업하기에 적합한 직종발굴과 취업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연구들로 구분되고 있다.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 가운데 취업실태와 취업지원을 중심으로 연구한 중앙기관의 연구보고서는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김승권외, 2010)로 이는 한국 결혼이민자의 전수조사, 거주 지역 및 기간별, 연령별, 출신국적별, 배우자의 사회인구 특성별 응답분포를 제시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현황 파악과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도가 높다. 한편 <사회, 경제적 통합 진전을 위한 브릿지 프로그램 추진방안>(김이선외, 2008)은 결혼이민여성의 적응이 이루어지면 사회활동과 경제활동 요구가 증가하면서 준비과정을 거쳐 통합이 본격화된다는 단계별 사회통합에 주목하고 준비과정의 정책적 지원으로 '브릿지 프로그램'이 요구됨을 강조한다.

지방자치체 단위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실태를 연구한 보고서는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방안 연구>(김영혜, 2009)로 경기도 여성결혼이민자의 교육현황과 인적자본, 취업실태, 취창업 욕구를 파악, 이를 기반으로 이들을 위한 취업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외국인 주민 일자리 제공방안 연구 : 결혼이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성을 중심으로>(김혜순, 2010)는 결혼이민여성 대상 일자리 정책 현황 파악과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일자리 정책의 방향성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능력개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연구>(장명선의 2009)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취창업 지원정책 내지 교육지원현황을 파악하고 이민여성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적합 직종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제시하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취창업지원정책을 제시, 경제적 자립 도모 방안을 제안한다. <광주시 다문화가족 취업지원 서비스 효율화 방안연구>(김정란외, 2011)는 지자체 단위에서 효과적인 다문화가족 정책 지원을 일환으로 여성결혼이민자 취업 특성 및 취업 욕구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유형을 제시하고 적합직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들로는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장서영외, 2009)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양인숙, 민무숙,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방안 : 언어, 문화자원 활용분야를 중심으로>(고혜원, 김상호, 2010)등이 있다.

양인숙외의 연구는 경제활동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가 다문화가정 가구소득에 도움, 자긍심과 삶의 만족도 제고,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잠식한다는 인식확대, 결혼이민의 자발성을 감안할 때 일자리 우대 정책은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여, 직업훈련과 사회자본 축적이 취업과 소득에 +의 영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지원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 정책 분석, 취업중인 결혼이민여성 대상 심층면접 실시, 일자리 유형별 취업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적합직종을 개발하고 취업을 연계한 연구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연구한 보고서로는 <결혼이민자 적합 직종 및 취업연계 방안 연구>(김영혜외, 2010)와 <결혼이민여성 적합직종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김영혜외, 2011) 등이 있다.

전자는 결혼이민여성의 현황과 취업실태 및 취업욕구 개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지원 관련 정책 및 사업분석, 적합 직종 20개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취업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후자는 2010년 고용노동부에서 개발한 결혼이민여성의 적합 직종 20개에 출발점을 두고 교육훈련 적응 정도, 취업기회, 미래전망을 감안 8개의 직종을 재선정한 후 세부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에 관한 연구는 취업 실태 파악 하에서 대상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 연계 지원 방안과 적합 직종 개발,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까지 진행되었다

2. 본 연구의 차별성과 제한점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취업 현황 및 취업 욕구와 동기, 노동경험, 취업 난제 요인 등을 규명하는 실태 연구, 그리고 대상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취업연계 지원 방안, 적합 직종 개발, 그리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들로 구분된다.

중앙과 지자체 단위의 연구들로 구분되면서 전체적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 방안과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지원 서비스의 방안 등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취업지원정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통해 추출 분석하였고, 심층면접 방법에 의거한 질적 접근을 시도하여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을 통한 취업 및 고용현황, 취업교육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전라북도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방안을 제시해 주고자 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여성결혼이민자, 그리고 취업 교육기관, 고용기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를 둘러싼 취업 현장을 다각도로 분석해 본 것이 다른 연구들과의 차별성으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 좀 더 지역밀착적인 지원정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현황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시기가 2009년의 시점이라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다문화가족 실태의 전국적인

자료이기에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현황에서 전국과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사례를 취업교육프로그램이나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으로 한정하였기에 일반화 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으나 전북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 볼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제2장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특성 및 지원 사업

- 제 1 절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 제 2 절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특성
- 제 3 절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사업
- 제 4 절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사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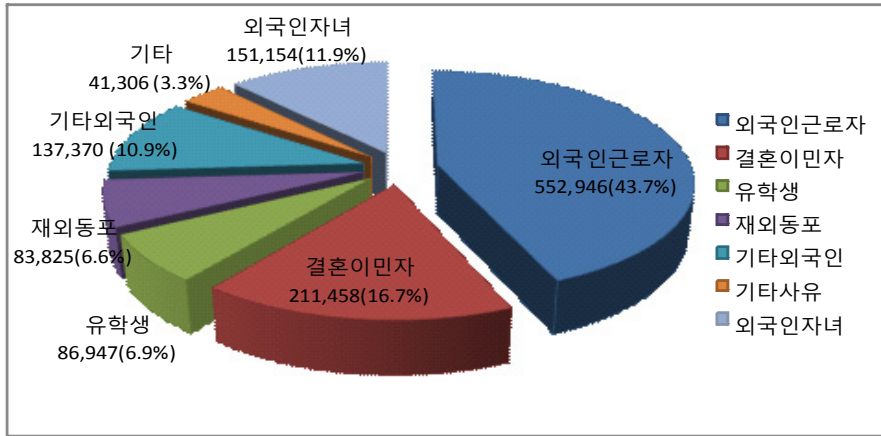
제 2 장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특성 및 지원 사업

제 1 절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우리사회에 결혼이민자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남성결혼이민자에 비교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 국제결혼 총 건수 29,762건 중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의 결혼이 7,497건인 것과 비교하여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은 22,265건으로 전체 건수의 74.8%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1). 본 절에서는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한 전국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고 전국 대비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 추이와 함께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1. 전국 여성결혼이민자 증가 현황

우리나라의 외국인주민은 2011년 기준 1,265,006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0년 1,139,283명과 비교했을 때 125,723명 증가한 것으로 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가 552,946명 43.7%로 가장 많고, 결혼이민자 211,458명(16.7%), 외국인자녀 151,154명(11.9%), 기타외국인 137,370명(10.9%), 유학생 86,947(6.9%)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 : 행정안전부, 2011년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그림 2-1〉 전국 외국인주민 현황(2011)

<표 2-1>의 전국 시·도별 현황을 보면 전체 외국인주민 가운데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1,002,742명, 79.3%로 다수를 차지하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주민의 비율은 서울(34%)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기도(30.3%)의 순이었으며 그 밖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주민 자녀 비율의 경우 서울과 경기도가 전체 외국인주민 자녀수와 비교해 각각 15.9%, 24.8%로 높았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외국인주민 비율이 29%인 것에 반해 그들의 자녀수는 15.9%로 1/2 낮은 수준이었고, 경기도의 경우도 외국인주민 비율 30.1%에 비해 자녀수는 24.8%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의 경우 외국인주민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5%로 낮았지만 외국인주민 자녀수는 5.1%로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고, 전남, 충남, 경북 등 다수의 지역들도 외국인 주민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그 자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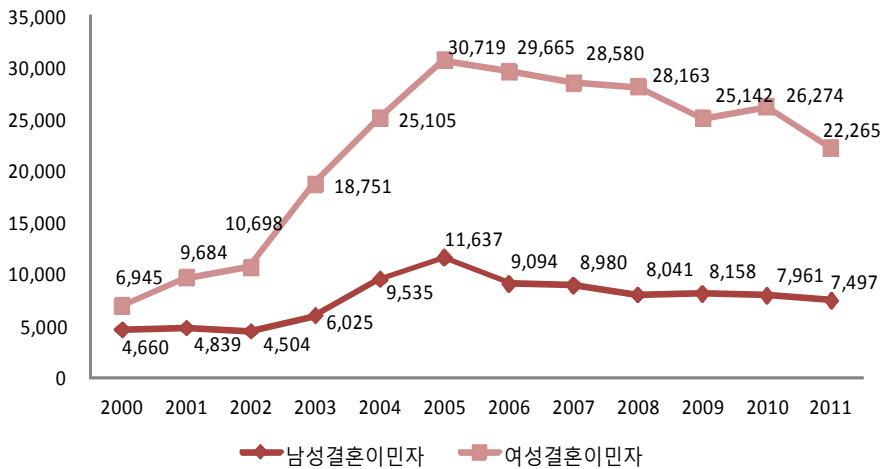
〈표 2-1〉 전국 외국인주민 현황(2011)

(단위 : 명, %)

구분	주민등록인구	인구대비	외국인주민수					외국인 주민세대수
			소계	비율	한국국적 미취득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자녀	
합계	50,515,666	2.5	1,265,006	100.0	1,002,742	111,110	151,154	221,872
서울특별시	10,312,545	3.6	366,279	29.0	304,414	37,781	24,084	55,182
부산광역시	3,567,910	1.3	44,726	3.5	34,559	3,330	6,837	9,103
대구광역시	2,511,676	1.1	28,153	2.2	21,594	2,084	4,475	6,011
인천광역시	2,758,296	2.5	69,350	5.5	53,490	6,992	8,868	13,716
광주광역시	1,454,636	1.3	18,824	1.5	13,998	1,423	3,403	3,770
대전광역시	1,503,664	1.4	21,360	1.7	16,433	1,488	3,439	4,656
울산광역시	1,126,298	1.9	21,400	1.7	16,553	1,614	3,233	3,603
경기도	11,786,622	3.2	380,606	30.1	309,454	33,633	37,519	62,257
강원도	1,529,818	1.4	21,940	1.7	14,726	2,053	5,161	5,279
충청북도	1,549,528	2.2	34,083	2.7	25,823	2,585	5,675	6,457
충청남도	2,075,514	2.8	57,869	4.6	44,467	4,283	9,119	10,113
전라북도	1,868,963	1.7	31,515	2.5	21,037	2,723	7,755	8,277
전라남도	1,918,485	1.8	35,077	2.8	22,481	2,832	9,764	9,240
경상북도	2,689,920	1.9	50,808	4.0	38,093	3,469	9,246	10,359
경상남도	3,290,536	2.3	74,517	5.9	59,337	4,184	10,996	11,851
제주도	571,255	1.5	8,499	0.7	6,283	636	1,580	1,998

자료 : 행정안전부, 2011년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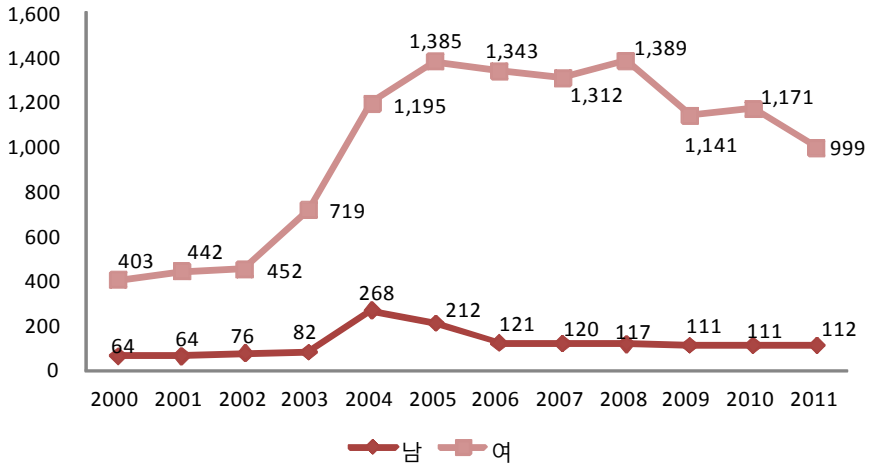
<그림 2-2>는 전국의 국제결혼 증가 추이를 성별로 구분한 것이다. 이를 살펴 보면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건수는 2000년 6,945건에서 2005년 30,719건으로 4배 이상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2005년을 기점으로 다소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까지는 약 8000건 이상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0년 6,945건에서 2011년 22,265건으로 국제결혼건수가 15,320건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외국인 남성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건수의 경우에도 2000년 4,660건에서 2011년 7,497건으로 2,837건 증가하였기에 전국의 국제결혼 건수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2> 전국 국제결혼 증가 추이(2001-2011)

<그림 2-3> 전북의 경우에도 전국의 국제결혼 추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라북도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건수를 살펴보면 2000년 403건에서 2005년 1,38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2005년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주춤해지고, 2011년까지 999건에 이르고 있는 결과는 전국의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역시 2000년 403건에서 2011년 999건으로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건수가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때 전북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의 결혼건수도 2000년 64건과 비교해 2011년 약 2배 정도 증가하여 전라북도 내 국제결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전북 국제결혼 증가 추이(2001-2011)

전국 결혼이민자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표 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혼인귀화자를 포함한 전국의 결혼이민자 수는 2007년 126,955명으로 나타났고, 다음해인 2008년에는 144,385명, 2009년 167,090명, 2010년 181,671명, 2011년 211,45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7년 대비 결혼이민자의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북이 88.4%로 전국 평균인 66.6%보다 높게 나타났다. 4년 만에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제주도로 111.7%가 증가하였고, 경남 102.8%, 충남 92.7% 다음으로 전북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07년 대비 결혼이민자의 증감수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의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26,522명의 경기도와 13,127명의 서울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3,879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여덟 번째의 높은 증감수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 현재 전북의 결혼이민자 분포는 3.9%를 나타내고 있다.

〈표 2-2〉 전국 결혼이민자 증감 추이 (2007~2011)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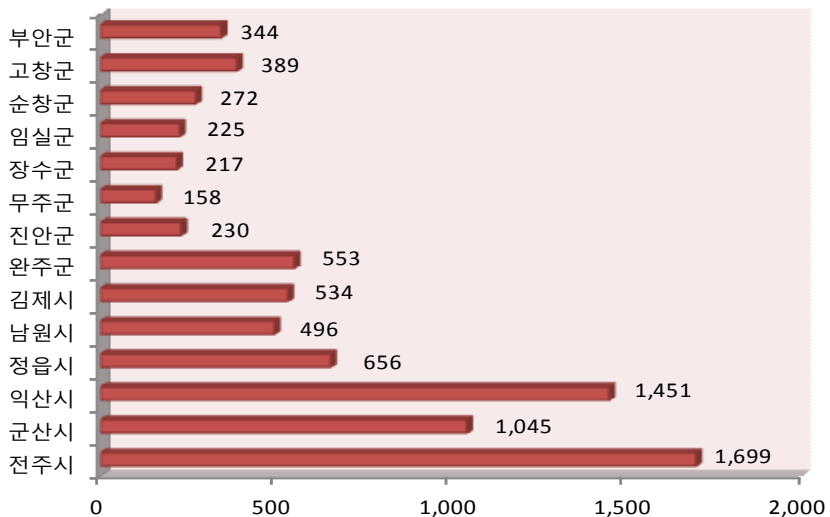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07년 대비 결혼이민자 증감률	2011년 결혼이민자 분포
전국	126,955	144,385	167,090	181,671	211,458	66.6	100.0
서울특별시	35,897	36,532	39,275	41,123	49,024	36.6	23.2
부산광역시	6,342	7,287	7,526	7,875	9,156	44.4	4.3
대구광역시	3,809	4,436	4,965	5,321	5,900	54.9	2.8
인천광역시	7,489	8,291	10,486	11,344	12,583	68.0	6.0
광주광역시	2,497	2,807	3,267	3,538	4,003	60.3	1.9
대전광역시	2,542	3,032	3,623	3,900	4,435	74.5	2.1
울산광역시	2,053	2,431	2,950	3,416	3,805	85.3	1.8
경기도	31,987	39,395	44,760	49,855	58,509	82.9	27.7
강원도	3,250	3,636	4,188	4,504	5,444	67.5	2.6
충청북도	3,787	4,160	4,927	5,664	6,428	69.7	3.0
충청남도	5,321	5,874	8,003	8,781	10,254	92.7	4.8
전라북도	4,390	4,947	6,743	7,051	8,269	88.4	3.9
전라남도	5,080	5,919	7,290	7,945	9,230	81.7	4.4
경상북도	5,416	6,503	8,057	8,906	9,946	83.6	4.7
경상남도	6,147	7,934	9,586	10,834	12,465	102.8	5.9
제주도	948	1,201	1,444	1,614	2,007	111.7	0.9

주 : 결혼이민자에 혼인귀화자 포함
 자료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각 년도

2.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 증가 현황

전북지역에서 결혼이민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전주시로 2011년 현재 1,699명의 결혼이민자들이 살고 있다. 다음으로 익산시가 1,451명, 군산시 1,045명, 정읍시 656명 등의 순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전주·익산·군산·정읍시의 4개 지역에 전라북도 내 결혼이민자 중 58.7%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전라북도 지역별 결혼이민자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대비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4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완주군으로 2007년 239명에서 2011년 553명으로 314명이 증가해 131.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군산시의 경우 2007년 471명에서 2011년 1,045명으로 574명이 증가하여 121.9%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김제시 118%, 남원시 106.7%, 부안군 92.2%의 순으로 나타났다. 4년 전과 비교해 결혼이민자의 수가 감소한 지역은 없었으며 전라북도 14개 시·군 모두 결혼이민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전북 결혼이민자 거주 지역(2011)

(표 2-3) 전라북도 지역별 결혼이민자 증감추이 (2007~2011)

(단위 : 명, %)

구분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포함)					2007년 대비 결혼이민자 증감수	2007년 대비 결혼이민자 증감률
	2007	2008	2009	2010	2011		
전국	126,955	144,385	167,090	181,671	211,458	84,503	66.6
전라북도	4,390	4,947	6,743	7,051	8,269	3,879	88.4
전주시	888	855	1,419	1,529	1,699	811	91.3
군산시	471	529	737	753	1,045	574	121.9
익산시	785	823	1,172	1,280	1,451	666	84.8
정읍시	431	467	535	581	656	225	52.2
남원시	240	269	385	407	496	256	106.7
김제시	245	305	446	459	534	289	118.0
완주군	239	340	472	477	553	314	131.4
진안군	141	167	190	196	230	89	63.1
무주군	94	122	140	136	158	64	68.1
장수군	138	182	190	198	217	79	57.2
임실군	138	183	217	217	225	87	63.0
순창군	167	203	220	209	272	105	62.9
고창군	234	263	318	298	389	155	66.2
부안군	179	239	302	311	344	165	92.2

주 : 각 년도 기준일은 4월 30일임.

자료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각 년도

아래의 <표 2-4>는 전라북도 결혼이민자의 지역별 성별분포를 제시한 것인데 2011년 전라북도 결혼이민자는 8,269명으로 그 중 여성이 8,028명(97.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남성은 241명(2.9%)이다.

결혼이민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나타난 전주시의 경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수는 1,619명으로 전북 여성결혼이민자의 20.2%가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익산시(17.3%), 군산시(12.6%), 정읍시(7.9%)의 순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분포율이 나타났다. 한편 남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전북 남성결혼이민자의 33.2%인 80명이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익산시(24.9%), 군산시(15.4%), 정읍시(9.5%)의 순이었다.

2011년 현재 전라북도 내 결혼이민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97.1%로 전국 평균 89.2%보다 약 8%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성결혼이민자에 비해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고창군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모두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분포 비율이 모든 지역에서 95%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2-4〉 전라북도 지역별 결혼이민자의 성별분포(2011)

(단위 : 명, %)

구분	여성결혼이민자		남성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성별구성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여성	남성
전국	188,580	100.0	22,878	100.0	89.2	10.8
전라북도	8,028	100.0	241	100.0	97.1	2.9
전주시	1,619	20.2	80	33.2	95.3	4.7
군산시	1,008	12.6	37	15.4	96.5	3.5
익산시	1,391	17.3	60	24.9	95.9	4.1
정읍시	633	7.9	23	9.5	96.5	3.5
남원시	492	6.1	4	1.7	99.2	0.8
김제시	525	6.5	9	3.7	98.3	1.7
완주군	540	6.7	13	5.4	97.6	2.4
진안군	228	2.8	2	0.8	99.1	0.9
무주군	157	2.0	1	0.4	99.4	0.6
장수군	214	2.7	3	1.2	98.6	1.4
임실군	222	2.8	3	1.2	98.7	1.3
순창군	271	3.4	1	0.4	99.6	0.4
고창군	389	4.8	-	-	100.0	0.0
부안군	339	4.2	5	2.1	98.5	1.5

자료 : 행정안전부, 2011년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표 2-5〉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2011년 현재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구성이 56.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베트남 22.1%, 필리핀 6.3%, 일본 5.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전국적인 현황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도내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운데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가 4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즉 도내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중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베트남 28.3%, 필리핀 11.5%, 일본 7%의 순으로 전국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2-5) 전라북도 지역별 여성결혼이민자 출신국별 현황 (2011)

(단위 : 명, %)

구분	계	중국	중국 (한국계)	대만	일본	몽골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기타
전국	188,580	53,159	53,546	811	9,877	2,798	41,693	11,874	2,741	4,404	7,677
	100.0	28.2	28.4	0.4	5.2	1.5	22.1	6.3	1.5	2.3	4.1
전라북도	8,028	2,359	1,046	22	564	89	2,274	921	88	400	265
	100.0	29.4	13.0	0.3	7.0	1.1	28.3	11.5	1.1	5.0	3.3
전주시	1,619	580	285	4	114	12	369	122	9	59	65
군산시	1,008	437	145	2	33	10	227	80	1	38	35
익산시	1,391	483	167	4	87	9	422	123	10	44	42
정읍시	633	204	65	2	42	3	158	87	5	40	27
남원시	492	109	52	1	55	15	124	77	13	34	12
김제시	525	93	84	3	24	5	154	113	2	32	15
완주군	540	104	88	4	22	4	212	53	11	29	13
진안군	228	43	7	-	23	2	106	32	5	6	4
무주군	157	32	14	-	16	2	57	21	5	6	4
장수군	214	29	11	-	23	3	63	58	5	17	5
임실군	222	40	18	-	11	4	92	26	5	20	6
순창군	271	49	17	-	38	5	85	37	6	24	10
고창군	389	74	37	2	44	11	121	43	8	37	12
부안군	339	82	56	-	32	4	84	49	3	14	15

자료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현황 자료

제 2 절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 취업특성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일반적인 취업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9년에 실시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중에서 취업 관련 항목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원자료에서 전라북도 지역 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이 가운데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결혼이민자 중 7만5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이 자료들은 모집단 분석을 통해 지역별, 성별, 국적별 가중치가 부여된 자료이다.

전북 지역 자료는 조사완료 가구가 4,043가구이지만 지역, 성별, 국적별 가중치를 부여해서 실태조사 분석에 사용한 가구는 5,436가구였다.

1.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학적 특성

전북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출신국, 연령, 학력, 혼인상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출신국별 분포를 보면 베트남이 28.2%, 중국조선족 20%, 기타 중국인이 19.9%, 필리핀 13.6%, 일본 6.3%, 캄보디아 4.5%의 순이었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 40.5%, 30대 33.1%, 40대가 20.8%로 전국단위에 비하여 20대의 비율이 더 높은 유형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 분포를 보면 고졸이 41.1%로 가장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전국 조사와 비교해서는 초등학교 이하의 비율이 9.7%, 중졸이 29.2%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거주기간은 2-5년미만이 34.8%를 차지하여 5년 미만의 비율이 약 64%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2-6〉 전북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범주	명	전북비율	전국비율	합계
출신국	중국(조선족)	1,194	22.0	30.0	5,436 (100.0)
	중국(한족, 기타 민족)	1,081	19.9	27.4	
	베트남	1,534	28.2	21.3	
	필리핀	740	13.6	7.2	
	일본	342	6.3	4.2	
	대만	13	.2	0.5	
	몽골	54	1.0	1.5	
	태국	70	1.3	1.4	
	캄보디아	242	4.5	2.2	
	우즈베키스탄	68	1.3	1.4	
	러시아	22	.4	0.7	
기타	76	1.4	2.3		
연령	19세 이하	2	.0	0.1	5,436 (100.0)
	20~29세	2,204	40.5	35.4	
	30~39세	1,799	33.1	35.6	
	40~49세	1,130	20.8	20.9	
	50~59세	243	4.5	6.5	
	60세 이상	58	1.1	1.5	
학력	무학	42	.8		5,382 (100.0)
	초등학교	478	8.9	8.5	
	중학교	1570	29.2	28.0	
	고등학교	2210	41.1	42.7	
	대학	1006	18.7	20.8	
	대학원	77	1.4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별거포함)	5278	97.6	95.2	5,408 (100.0)
	이혼	88	1.6	3.7	
	사별	42	.8	1.1	
거주기간	1년 미만	644	13.0	9.6	4,955 (100.0)
	1~2년 미만	793	16.1	13.7	
	2~5년 미만	1,724	34.8	35.7	
	5년~10년 미만	1,105	22.3	25.4	
	10년 이상	689	13.9	15.6	

2.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특성

전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특성을 주택 소유 형태, 거주 환경, 월평균 가구 소득,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으로 분석해 보았다.

우선 주택 소유형태에서 자가비율(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배우자 부모 소유)이 70%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전국 단위보다(54.5%)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현상은 전북이 도농의 혼합도이기에 농촌지역의 자가 소유 비율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주택 소유형태의 자가율이 높은 것과 비교하여 월평균 가구 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이 45.4%를 차지하여 전국 단위 조사의 38.6%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고, 50~100만원 미만의 경우 25.4%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낮은 가구 소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주환경에 관한 조사원들의 평가는 보통이 45.9%, 양호함이 30.4%, 열악함이 13.5%의 비율을 보였다.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에 대한 평가는 한국 가족과 비교 시 결혼이민자 가족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본인들의 평가로 중간이 42.2%를 차지하는 등 자신의 경제생활 수준이 중간층 이하라고 응답한 비중이 40%를 차지하였다. 전반적으로 결혼이민자는 자신들의 경제적 생활수준이 주변의 한국사람들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표 2-7〉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범주	명	비율	합계
주택 소유형태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2,022	38.0	5,316 (100.0)
	배우자 부모 소유	1,794	33.7	
	전세 또는 월세	1,236	23.3	
	기타	264	5.0	
거주환경*	매우 양호함	426	7.9	5,417 (100.0)
	양호함	1,645	30.4	
	보통임	2,484	45.9	
	열악함	732	13.5	
	매우 열악함	130	2.4	
월평균 가구소득 (세금 공제 전)	50만원 미만	361	8.5	4,259 (100.0)
	50~100만원 미만	1,081	25.4	
	100~200만원 미만	1,934	45.4	
	200~300만원 미만	628	14.7	
	300~400만원 미만	161	3.8	
	400~500만원 미만	34	.8	
	500~600만원 미만	27	.6	
	600~700만원 미만	16	.4	
	700만원 이상—	18	.4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0 - 최하층	381	7.2	5,276 (100.0)
	1	260	4.9	
	2	412	7.8	
	3	685	13.0	
	4	896	17.0	
	5 - 중간	2,227	42.2	
	6	193	3.7	
	7	115	2.2	
	8	66	1.3	
	9	13	.2	
	10 - 최상층	28	.5	

주: * 조사원이 느끼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환경임.

** 한국가족과 비교 시 결혼이민자 가족의 경제적 수준임.

3.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현황 및 특성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취업상태에 있어서 현재 일하고 있다가 33.3%이고, 현재는 일하지 않으나 한국에서 일한 적 있다가 18%를 차지하였고, 지금까지 일한 적 없다가 48.7%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전북 여성결혼이민자는 전국 단위 조사의 현재 일하고 있는 비율 36.9%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이는 현재 여성취업률이 50% 미만에서 위아래로 수치가 변하는 현상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8〉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현황

(단위 : 명, %)

구분	범주	명	비율	합계
취업상태	현재 일하고 있다	1,774	33.3	5,333 (100.0)
	현재는 일하지 않으나 한국에서 일한 적 있다	963	18.0	
	지금까지 일한 적 없다	2,596	48.7	
직종	서비스 종사자	520	24.6	2,111 (100.0)
	판매종사자	107	5.1	
	농림어업 종사자	191	9.1	
	기능종사자	96	4.5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71	3.3	
	가사 관련 단순노무자	79	3.7	
	기타 단순노무자	433	20.5	
	사무종사자	44	2.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74	17.7	
	임직원 및 관리자	4	.2	
기타	192	9.1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455	23.5	1,937 (100.0)
	임시근로자	753	38.9	
	일용근로자	258	13.3	
	단독자영업자	167	8.6	
	고용주	35	1.8	
	무급가족종사자	83	4.3	
기타	186	9.6		
월평균 근로소득	없다	135	5.4	2,487 (100.0)
	50만원 미만	454	18.3	
	50~100만원 미만	1,276	51.3	
	100~200만원 미만	496	19.9	
	200~300만원 미만	67	2.7	
	300~400만원 미만	25	1.0	
	400~500만원 미만	11	.4	
500만원 이상	23	.9		
향후 취업의향	예	3,027	88.2	3,433 (100.0)
	아니오	405	11.8	

여성결혼이민자가 취업한 직종을 보면 서비스 종사자가 24.6%, 기타 단순 노무자 20.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17.7%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율에서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전국 단위 조사에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에 대한 해석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언어 문화적 특성을 이용한 강사직에 일하고 있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를 보면 임시근로자가 38.9%, 상용근로자가 23.5%, 일용근로자가 13.3%의 순으로 나타났고, 무급가족 종사자가 4.3%로 전국 단위의 2.4%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며 이는 전북의 특성상 농업종사자와 연관하여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월평균 근로소득은 50~100만원 미만인 51.3%(전국은 49.7%)를 차지하여 저임금 일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향후 취업 희망률은 88.2%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직종별 월평균 소득을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종사자의 월평균 소득이 50~100만원에 52.2%, 100~200만원 미만 27.2%, 50만원 미만 15.9% 등의 분포를 나타냈다. 기타단순노무자의 경우 50~100만원이 63.2%를,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소득도 50~100만원 미만이 51.8%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2-9〉 직종별 월평균 소득

(단위 : 명, %)

구분	월 평균 소득								전체
	없다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서비스종사자	7 (1.4)	81 (15.9)	265 (52.2)	138 (27.2)	7 (1.4)	5 (1.0)	1 (0.2)	4 (0.8)	508 (100.0)
판매종사자	8 (7.9)	24 (23.8)	34 (33.7)	21 (20.8)	10 (9.9)	2 (2.0)	1 (1.0)	1 (1.0)	101 (100.0)
농림어업종사자	48 (28.4)	43 (25.4)	57 (33.7)	15 (8.9)	6 (3.6)	0 (0.0)	0 (0.0)	0 (0.0)	169 (100.0)
기능종사자	5 (5.3)	11 (11.6)	52 (54.7)	27 (28.4)	0 (0.0)	0 (0.0)	0 (0.0)	0 (0.0)	95 (100.0)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0 (0.0)	9 (12.9)	34 (48.6)	27 (38.6)	0 (0.0)	0 (0.0)	0 (0.0)	0 (0.0)	70 (100.0)
가사 관련 단순노무자	4 (5.2)	20 (26.0)	47 (61.0)	4 (5.2)	1 (1.3)	0 (0.0)	0 (0.0)	1 (1.3)	77 (100.0)
기타 단순노무자	5 (1.2)	76 (17.8)	270 (63.2)	71 (16.6)	3 (0.7)	0 (0.0)	0 (0.0)	2 (0.5)	427 (100.0)
사무종사자	2 (4.7)	2 (4.7)	25 (58.1)	14 (32.6)	0 (0.0)	0 (0.0)	0 (0.0)	0 (0.0)	43 (100.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 (1.1)	65 (17.5)	192 (51.8)	69 (18.6)	23 (6.2)	7 (1.9)	4 (1.1)	7 (1.9)	371 (100.0)
임직원 및 관리자	0 (0.0)	1 (33.3)	0 (0.0)	1 (33.3)	0 (0.0)	0 (0.0)	0 (0.0)	1 (33.3)	3 (100.0)
기타	10 (5.5)	40 (22.0)	99 (54.4)	26 (14.3)	3 (1.6)	3 (1.6)	1 (0.5)	0 (0.0)	182 (100.0)
전체	93 (4.5)	372 (18.2)	1,075 (52.5)	413 (20.2)	53 (2.6)	17 (0.8)	7 (0.3)	16 (0.8)	2,046 (100.0)

한편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직종별 주당 근로시간을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종사자가 41-70시간에 33.1%, 71시간 이상에 30%, 기타 단순 노무자의 경우에 41-70시간에 49.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24시간 미만에 58.3%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직종별 주당 근로시간이 41-70시간에 34%를 차지하여 앞선 본 월평균 근로소득과 연관된 분석을 해 보면 여성결혼이민자는 저임금과 장시간의 열악한 일자리에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직종별 주당 근로시간

(단위 : 명, %)

구분	주당 근로시간				전체
	24시간 미만	25~40시간	41~70시간	71시간 이상	
서비스종사자	122 (23.5)	70 (13.5)	172 (33.1)	156 (30.0)	520 (100.0)
판매종사자	26 (24.3)	23 (21.5)	39 (36.4)	19 (17.8)	107 (100.0)
농림어업종사자	46 (24.1)	44 (23.0)	57 (29.8)	44 (23.0)	191 (100.0)
기능종사자	5 (5.3)	17 (17.9)	65 (68.4)	8 (8.4)	95 (100.0)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2 (17.1)	9 (12.9)	45 (64.3)	4 (5.7)	70 (100.0)
가사 관련 단순노무자	21 (26.6)	24 (30.4)	24 (30.4)	10 (12.7)	79 (100.0)
기타 단순노무자	69 (16.0)	99 (22.9)	215 (49.8)	49 (11.3)	432 (100.0)
사무종사자	10 (22.2)	14 (31.1)	17 (37.8)	4 (8.9)	45 (100.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18 (58.3)	108 (28.9)	32 (8.6)	16 (4.3)	374 (100.0)
임직원 및 관리자	0 (0.0)	1 (25.0)	0 (0.0)	3 (75.0)	4 (100.0)
기타	54 (28.1)	44 (22.9)	52 (27.1)	42 (21.9)	192 (100.0)
전체	583 (27.6)	453 (21.5)	718 (34.0)	355 (16.8)	2,109 (100.0)

더불어 여성결혼이민자의 직종별 종사상 지위를 보면 서비스 종사자는 임시근로자에 47.6%, 상용근로자 21%의 비율을 보였고, 기타 단순노무자의 경우에도 47.4%가 임시근로자였으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도 45%가 임시근로자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었다.

앞서 직종별 월평균 소득과 근로시간을 통해 살펴보면 여성결혼이민자는 저임금, 장시간,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표 2-11〉 직종별 종사자 지위

(단위 : 명, %)

구분	종사상 지위							전체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단독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 가족 종사자	기타	
서비스종사자	96 (21.0)	218 (47.6)	85 (18.6)	26 (5.7)	11 (2.4)	7 (1.5)	15 (3.3)	458 (100.0)
판매종사자	14 (13.9)	23 (22.8)	4 (4.0)	44 (43.6)	5 (5.0)	8 (7.9)	3 (3.0)	101 (100.0)
농림어업종사자	5 (3.1)	10 (6.2)	22 (13.6)	55 (34.0)	0 (0.0)	47 (29.0)	23 (14.2)	162 (100.0)
기능종사자	42 (46.7)	32 (35.6)	11 (12.2)	3 (3.3)	0 (0.0)	0 (0.0)	2 (2.2)	90 (100.0)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2 (50.8)	24 (38.1)	4 (6.3)	0 (0.0)	2 (3.2)	1 (1.6)	0 (0.0)	63 (100.0)
가사 관련 단순노무자	13 (18.1)	27 (37.5)	13 (18.1)	3 (4.2)	1 (1.4)	4 (5.6)	11 (15.3)	72 (100.0)
기타 단순노무자	91 (22.8)	189 (47.4)	87 (21.8)	3 (0.8)	3 (0.8)	3 (0.8)	23 (5.8)	399 (100.0)
사무종사자	10 (27.8)	17 (47.2)	4 (11.1)	1 (2.8)	0 (0.0)	0 (0.0)	4 (11.1)	36 (100.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14 (32.9)	156 (45.0)	9 (2.6)	23 (6.6)	7 (2.0)	4 (1.2)	34 (9.8)	347 (100.0)
임직원 및 관리자	1 (33.3)	0 (0.0)	0 (0.0)	0 (0.0)	1 (33.3)	0 (0.0)	1 (33.3)	3 (100.0)
기타	30 (17.0)	48 (27.3)	16 (9.1)	3 (1.7)	3 (1.7)	10 (5.7)	66 (37.5)	176 (100.0)
전체	448 (23.5)	744 (39.0)	255 (13.4)	161 (8.4)	33 (1.7)	84 (4.4)	182 (9.5)	1,907 (100.0)

4.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특성별 취업 상태 분석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 특성에 따른 취업상태를 분석해 보기 위하여 연령별, 학력별, 한국어 능력별, 출신국별, 본국에서의 취업 경험, 한국에서의 직업 훈련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우선 연령별 취업상태를 보면 30~39세의 비율이 37.1%로 가장 높았다. 이 시기의 취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거의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고 있기에 적응기간과 양육기를 거친 후에 취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12〉 연령별 취업상태

(단위 : 명, %)

구분	연령						전체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현재 일하고 있다	1 (0.1)	377 (21.2)	659 (37.1)	594 (33.5)	124 (7.0)	20 (1.1)	1,775 (100.0)
현재는 일하지 않으나 한국에서 일한 적 있다	1 (0.1)	313 (32.5)	359 (37.3)	208 (21.6)	62 (6.4)	20 (2.1)	963 (100.0)
지금까지 일한 적 없다	0 (0.0)	1,463 (56.3)	756 (29.1)	308 (11.9)	53 (2.0)	17 (0.7)	2,597 (100.0)
전체	2 (0.0)	2,153 (40.4)	1,774 (33.3)	1,110 (20.8)	239 (4.5)	57 (1.1)	5,335 (100.0)

학력별 취업상태를 보면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이 45.5%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어 능력에 있어서도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취업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본국에서의 취업경험과 취업 상태를 보면 취업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현재까지 미취업인 상태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현재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본국에서의 취업경험이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왔으며 한국에서의 직업 훈련 참여 경험도 훈련에 참여한 경우가 더 높은 취업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입국 및 거주 기간), 학력이 높을수록, 한국어 능력이 좋을수록 취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본국 취업 경험과 직업 훈련 경험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고, 특히 직업 훈련 경험의 경우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상태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표 2-13〉 인적특성별 취업상태

(단위 : 명, %)

구분		현재 일하고 있다	현재는 일하지 않으나 한국에서 일한 적 있다	지금까지 일한 적 없다	전체
교육수준	무학	9 (21.4)	3 (7.1)	30 (71.4)	42 (100.0)
	초등학교	121 (25.9)	67 (14.3)	280 (59.8)	468 (100.0)
	중학교	482 (31.4)	244 (15.9)	811 (52.8)	1,537 (100.0)
	고등학교	656 (30.2)	450 (20.7)	1,069 (49.1)	2,175 (100.0)
	대학교 이상	450 (45.5)	174 (17.6)	364 (36.8)	988 (100.0)
한국어 능력	매우 잘한다	351 (52.7)	131 (19.7)	184 (27.6)	666 (100.0)
	잘한다	374 (43.8)	168 (19.7)	312 (36.5)	854 (100.0)
	보통이다	736 (32.5)	416 (18.4)	1,113 (49.1)	2,265 (100.0)
	서툰 편이다	198 (19.4)	164 (16.1)	657 (64.5)	1,019 (100.0)
	매우 서툴다	78 (19.5)	48 (12.0)	274 (68.5)	400 (100.0)
본국 취업 경험	있음	1317 (35.5)	717 (19.3)	1,674 (45.1)	3,708 (100.0)
	없음	352 (27.7)	162 (12.7)	758 (59.6)	1,272 (100.0)
직업훈련 참여경험	참여	349 (42.0)	175 (21.1)	307 (36.9)	831 (100.0)
	참여 안함	1,315 (31.0)	723 (17.1)	2,201 (51.9)	4,239 (100.0)

한편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의 현재 직종과 본국 직종을 교차해서 직종의 연관성을 분석해 보았다. 이것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경험이 한국 사회에서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모든 직종에서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는 현재 직종의 종사자가 과거 본국에서 해당 직종에 취업한 경험이 있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가장 동일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46.5%, 기계 조작 및 조립 44.7% 기

타 단순 노무 42.8%, 서비스직 42.3%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단위에서는 결과가 사무직, 전문직, 관리직, 서비스직의 순이었는데 전북에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기계조작 및 조립, 기타 단순 노무의 순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직종 연관성이 높다는 것은 취업하거나 취업한 경험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신의 본국 인적 특성을 살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표 2-14〉 현재 직종, 본국 직종과의 교차분석

(단위 : 명, %)

본국직종/ 한국직종	서비스	판매	농림 어업	기능	기계 조작 및 조립	가사 관련 단순 노무	기타 단순 노무	사무	전문가	임직원 및 관리자	기타	합계
서비스 종사자	127 (42.3)	61 (27.1)	20 (20.2)	27 (24.8)	9 (23.7)	7 (19.4)	30 (20.7)	44 (24.4)	28 (12.4)	3 (20.0)	24 (19.0)	380 (25.4)
판매 종사자	20 (6.7)	23 (10.2)	3 (3.0)	1 (.9)	0 (.0)	2 (5.6)	4 (2.8)	4 (2.2)	7 (3.1)	2 (13.3)	10 (7.9)	76 (5.1)
농림어업 종사자	25 (8.3)	17 (7.6)	29 (29.3)	15 (13.8)	4 (10.5)	7 (19.4)	14 (9.7)	10 (5.6)	5 (2.2)	0 (.0)	15 (11.9)	141 (9.4)
기능 종사자	10 (3.3)	9 (4.0)	2 (2.0)	25 (22.9)	0 (.0)	3 (8.3)	4 (2.8)	2 (1.1)	9 (4.0)	0 (.0)	2 (1.6)	66 (4.4)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7 (2.3)	11 (4.9)	1 (1.0)	8 (7.3)	17 (44.7)	1 (2.8)	2 (1.4)	0 (.0)	3 (1.3)	0 (.0)	2 (1.6)	52 (3.5)
가사 관련 단순노무자	5 (1.7)	10 (4.4)	5 (5.1)	4 (3.7)	0 (.0)	4 (11.1)	9 (6.2)	5 (2.8)	8 (3.5)	0 (.0)	1 (.8)	51 (3.4)
기타 단순노무자	48 (16.0)	38 (16.9)	28 (28.3)	13 (11.9)	5 (13.2)	7 (19.4)	62 (42.8)	24 (13.3)	32 (14.2)	6 (40.0)	20 (15.9)	283 (18.9)
사무 종사자	6 (2.0)	5 (2.2)	3 (3.0)	4 (3.7)	0 (.0)	0 (.0)	1 (.7)	11 (6.1)	1 (.4)	1 (6.7)	4 (3.2)	36 (2.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9 (9.7)	37 (16.4)	1 (1.0)	8 (7.3)	0 (.0)	2 (5.6)	12 (8.3)	59 (32.8)	105 (46.5)	0 (.0)	25 (19.8)	278 (18.5)
임직원 및 관리자	1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20.0)	0 (.0)	4 (.3)
기타	22 (7.3)	14 (6.2)	7 (7.1)	4 (3.7)	3 (7.9)	3 (8.3)	7 (4.8)	21 (11.7)	28 (12.4)	0 (.0)	23 (18.3)	132 (8.8)
전체	300 (100.0)	225 (100.0)	99 (100.0)	109 (100.0)	38 (100.0)	36 (100.0)	145 (100.0)	180 (100.0)	226 (100.0)	15 (100.0)	126 (100.0)	1,499 (100.0)

전라북도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취업상태를 고찰해 보았을 때 현재 일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출신국은 북미, 유럽 > 필리핀 > 중국조선족 > 일본의 순이었고 입국 전 취업경험률은 일본 > 태국 > 필리핀의 순이었다.

〈표 2-15〉 출신국별 취업상태 및 입국전 취업경험률

구분	현재 일하고 있다	현재는 일하지 않으나 한국에서 일한 적 있다	지금까지 일한 적 없다	전체	한국 입국전 취업 경험률	전체
전체	33.3	18.1	48.7	(100) 5,333	74.4	5,044
중국(조선족)	48.0	23.7	28.4	(100) 1,174	76.2	1,083
중국(한족)	24.6	23.3	52.1	(100) 1,071	79.0	973
베트남	22.1	13.5	64.3	(100) 1,491	62.5	1,448
필리핀	49.2	15.0	35.9	(100) 728	82.9	701
몽골	26.5	20.4	53.1	(100) 49	80.4	51
태국	18.6	20.0	61.4	(100) 70	87.0	69
캄보디아	13.1	9.7	77.2	(100) 237	62.4	226
일본	38.2	16.4	45.4	(100) 335	96.6	328
북미, 호주, 서유럽	67.6	20.6	11.8	(100) 34	71.9	32
기타	36.1	10.4	53.5	(100) 144	69.2	133

출신국별로 취업 상태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들의 거주기간과 학력을 비교해 보았을 때 북미, 유럽 출신과 필리핀 등이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았고 거주기간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출신들이 높은 것과 연관되었다. 다시 말해 출신국에서도 학력과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이들의 취업상태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16〉 출신국별 학력 및 거주기간

구분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대학교	계 (수)	1년 미만	1-2년 미만	2-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계 (수)
중국 (조선족)	6.0	34.1	48.0	11.8	(100) 1,192	2.7	5.5	28.8	32.7	30.2	(100) 1,124
중국 (한족)	3.5	36.8	43.8	15.9	(100) 1,071	25.3	24.1	33.6	12.7	4.4	(100) 980
베트남	19.9	41.3	35.3	3.5	(100) 1,509	17.8	21.3	53.1	7.4	0.4	(100) 1,359
필리핀	1.8	2.6	42.5	53.1	(100) 734	10.5	8.6	22.8	47.4	10.7	(100) 675
몽골	1.9	7.4	33.3	57.4	(100) 54	10.4	16.7	43.8	27.1	2.1	(100) 48
태국	24.3	18.6	32.9	24.3	(100) 70	9.0	6.0	23.9	56.7	4.5	(100) 67
캄보디아	31.0	38.8	23.3	6.9	(100) 232	11.3	51.7	36.5	0.0	0.5	(100) 203
일본	0.0	0.3	49.9	49.9	(100) 341	1.5	3.6	11.8	20.2	62.8	(100) 331
북미, 호주, 서유럽	6.1	0.0	0.0	93.9	(100) 33	0.0	0.0	27.3	57.6	15.2	(100) 33
기타	3.4	12.3	41.1	43.2	(100) 146	10.9	15.9	24.6	40.6	8.0	(100) 138

제 3 절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사업

초기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의 방향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체류불안을 해소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사업과 예산 지원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제적 자립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활동을 통한 사회·경제적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중앙과 각 지자체 단위에서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중앙과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취업지원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전국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과 취업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2010년 5월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각 부처별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표 2-17>은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종합대책」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3개년 계획을 담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혼이민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처는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농식품부 등으로 각 부처에서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 및 경제적 자립과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은 주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대상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사업으로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지정·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이 있다.

〈표 2-17〉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종합대책 (2010~2012)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1. 결혼이민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결혼이민자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발굴	· 적합직종 발굴	노동부 · 여가부	'10~'12
		· 이중언어 강사 양성	여가부 · 교과부 · 문화부	2010~2012
	공공부분 및 사회적 일자리 제공	· 공공부분 취업확대	행안부 · 노동부	2010~2012
		· 디딤돌 일자리 제공	노동부	2010~2012
		· 사회적 일자리 제공	노동부 · 여가부	2010~2012
2.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취업희망 결혼이민자의 체계적 관리	· 결혼이민자 DB구축	노동부	2010
		· 국적취득시 신분 연계	행안부	2010
	결혼이민자 특화서비스 개발	· 다문화 일자리 축제	노동부	2010~2012
		· 진로설계 프로그램 개발	노동부	2010~2012
		· 채용장려금 지원	노동부	2010~2012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	· 취업지원 전담자 지정	노동부	2010~2012
		· 취업지원 서비스 기관 확대	노동부	2010~2012
3.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실시	결혼이민자에 특화된 직업훈련 실시	· 독자반 편성	노동부 · 여가부	2010~2012
		· 직업능력개발계좌 활용	노동부	2010~2012
		· 영농교육 실시	농식품부	2010~2012
	직업훈련 제도의 탄력적 운영	· 국가자격 검정시험 특례 - 미용 · 제과 · 제빵 등 다국어 실시 - 운전면허시험 다국어실시	노동부 · 경찰청	2010~2012
		· 훈련기관 인센티브 부여	노동부	2011
4.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취업촉진을 위한 인식개선	· 공무원 및 사업주	행안부 · 노동부	2010~2012
		· 결혼이민자	법무부 · 행안부 · 노동부 · 여가부	2010~2012
		· 배우자 및 가족	여가부	2010~2012
	민간부분과 네트워크 형성	· 기업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	노동부	2010~2012
		· 관련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노동부	2010~2012

자료 : 노동부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임신과 출산 및 육아 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전담하는 종합취업지원 기관이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새일센터는 200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설치되어 당시 72개소였던 것이 2012년 현재 전국에 100개소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새일센터는 신규 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기존 교육훈련기관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고 활용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즉 기존의 교육훈련기관들의 기능을 상담 기능과 직업교육훈련, 적극적인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일·가정양립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ONE-STOP 재취업지원기관으로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과 관련한 사업을 전담해오고 있다.

2012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원예산은 총 480억원으로 여성가족부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여성인턴제(새일여성, 결혼이민여성) 운영, 일·가정양립지원사업,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등의 사업비로 289억을 지원하고, 고용노동부는 집단상담, 취업 후 사후관리비로 11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2-18〉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역할

구분	역할	세부 사업내용
직업상담	- 직업·진로상담 - 취업정보망 관리 -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 1:1 맞춤형 취업상담 : 전문상담원이 개인의 경력과 학력에 따라 맞춤형 상담 - 찾아가는 취업상담서비스 : 마트, 여성회관 등 여성밀집장소에서 취업상담 - 취업정보 제공 : 유망직종, 자격, 시험정보, 직업교육프로그램 소개
직업교육 훈련	- 직업의식교육 - 능력개발교육 - 면접교육	- 무료직업교육 : 필요여성에게 무료직업교육 실시 - 특화교육 :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새일여성인턴제 : 6개월 동안 인턴 채용 기업 지원금 지급 - 기타 : 직업의식교육, 능력개발교육, 이미지메이킹 교육 등
취업지원	- 일·가정 양립 지원 - 취업알선, 여성인턴제운영 - 취업 후 사후관리	-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 센터 내 보육시설 운영, 돌봄서비스 지원 등

자료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표 2-19)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ONE-STOP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직업 상담	전문 직업상담 및 진로설계	- 개인별, 단계별 맞춤형 직업, 진로 상담
		- 취업의욕 상실 및 자신감이 부족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생애설계, 자신감 향상, 여성역시, 리더십, 이미지 메이킹 등
	취업정보 제공 및 홍보	- 취업정보(여성유망직종, 자격, 시험정보, 일자리 등) 제공
- 직업교육 훈련종보(직업훈련기관 및 프로그램 내용 소개)		
- 고용관련법률 정보(성희롱, 여성고용관련법률 등)		
직업 교육 훈련	직업능력개발 훈련	- 기업체 인력수요에 따른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실시
		- 구직자의 직업경력 및 능력수준 등을 고려한 직업교육 제공
		- 기업체 인력수요와 여성 유망직종 등을 토대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운영
		- 경력단절여성의 직장적응 훈련을 위한 새일여성인턴제 운영
취업 지원	취업연계 등 적극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구직여성의 적성검사, 직업교육 이수현황, 경력사항 등을 토대로 개인별 맞춤형 취업알선
		- 대형마트 등 여성의 왕래가 많은 장소에서 직업상담 및 취업정보 제공 등 찾아가는 취업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취업설계사 운영
		- 대형마트 등 기업과 MOU체결 후 취업설계사 활동 공간 마련
		- 여성 적합형 일자리 등 구인업체 발굴, 관리
		- 동행면접 실시
취업후 사후 관리	취업 후 직장 적응지도	- 원활한 직장적응을 위한 근로자 및 인사담당자 상담
		- 취업여성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 제고
		- 여성 친화적 기업 환경 조성 유도를 위한 여성친화기업 협약
	일·가정 양립 지원서비스 제공	- 시중보다 싸고 위생적인 양질의 밑반찬 서비스 제공
		- 출퇴근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제공(대중교통 미흡지역)
		- 임시보육공간 운영, 보육서비스 제공 등

자료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일센터의 사업으로는 결혼이민여성인턴제가 있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자립 지원과 지역사회 내 일자리 연계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아울러 여성결혼이민자가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직장적응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새일센터에서 여성결혼이민자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구직 등록한 여성결혼이민자를 인턴으로 알선하고, 센터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를 3개월 이상(6개월 이내)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의 인턴채용 지원금을 지원한다.

결혼이민여성인턴제의 참여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한 이민 여성으로서 미취업 상태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중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새일센터는 결혼이민여성인턴 연계를 위해 연중 여성인력 수요가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자 힘쓰며, 인턴 만료 후에도 정식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사후관리 및 채용 후 취업유지율을 조사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10년부터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표 2-20>의 결혼이민자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보면 2010년 전국 10개 지역의 새일센터에서 19개 프로그램이 운영된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선호직종이라 할 수 있는 미용, 요리 분야의 프로그램이 주로 운영되었고, 다문화 자원을 활용한 직종으로 다문화강사, 다국어강사 과정도 개설되었다.

<표 2-20>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결혼이민자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2010)

지역	기관명	과정명	분류
서울	동대문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과후 다문화체험강사	다문화 강의
	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결혼이민여성 다문화전문강사	다문화 강의
	서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커피바리스타 양성과정	요리(조리)
부산	동래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주여성피부미용	미용
인천	인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결혼이민여성 홈패션 취업창업과정	양재
	인천남동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결혼이민자 전문공예강사	공예
대전	대전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주여성중국어지도사	다국어 강의
울산	울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과후 원어민 영어강사 양성	다국어 강의
경기	경기도북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다문화여성 어린이 영어강사	다국어 강의
	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결혼이민여성 영어지도사	다국어 강의
		결혼이민여성 컴퓨터활용반	기타
	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조리사 취업과정	요리(조리)
네일아트&꽃케아과정		미용	
강원	동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결혼이민자 네일아트	미용
충북	영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결혼이민자미용기능사	미용
	충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다문화교육전문강사	다문화 강의
충남	논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뷰티발관리전문가	미용
		토탈공예홈메이드	공예
경남	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천연비누제조사	공예

자료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2011년 새일센터의 결혼이민자 대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보면 전년과 비교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다. 15개 광역자치체의 25개 새일센터에서 25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2010년과 마찬가지로 미용, 요리, 다국어 강사 등의 선호직종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과 비교하여 새롭게 개설된 프로그램으로 영유아케어매니저, 산모베이비케어매니저, 산모신생아 돌보미 양성과정 등 돌봄 관련 프로그램과 무역사무원, 관광가이드, 직무능력향상교육 등이 있는데,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2-21)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결혼이민자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2011)

지역	기관명	과정명	분류
서울	동대문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과후 세계문화 체험지도사	다문화 강의
	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원어민플러스 강사 과정	다국어 강의
	서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스타벅스와 함께하는 결혼이민여성 바리스타양성과정	요리(조리)
	북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영유아케어매니저	돌봄
	동작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무역사무원	기타
부산	동래여성새로일하기센터	피부관리사	미용
인천	인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결혼이민여성 의상 및 홈패션	양재
	인천남동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푸드 어시스턴트 양성	요리(조리)
광주	송원대여성새로일하기센터	네일아트	미용
대전	대전북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다문화전문강사 양성교육	다문화 강의
울산	울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결혼이주여성 방과후 원어민 영어강사 양성과정	다국어 강의
경기	경기북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다문화여성 어린이 중국어강사 양성과정	다국어 강의
	성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도자기핸드페인트 전문가 양성과정	공예
	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원어민 놀이지도사	다국어 강의
강원	춘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베이커리 창업반	요리(조리)
충북	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결혼이주여성 직무능력향상교육	기타
충남	당진여성새로일하기센터	어린이중국어 지도사	다국어 강의
전북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소재 섬유 디자인 맞춤형 인력 양성교육 과정	기타
	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영어스토리텔링 지도사	다국어 강의
전남	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광고글씨디자인	공예
	목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산모베이비케어매니저	돌봄
경북	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산모신생아돌보미 양성과정	돌봄
	경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결혼이주여성 커피바리스타	요리(조리)
경남	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아로마쇼핑을 창업반	공예
제주	제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광통역안내원양성과정	기타

자료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6년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군·구별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21개소를 지정·운영하여 오던 것에서 처음 시작되어 2012년 현재 전국적으로 201개소의 센터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각 센터는 실생활에서 다문화가족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으며, 한국어·문화교육, 다문화사회이해교육, 사회적응교육, 상담, 자녀지원, 직업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에 기여하고 있다.

〈표 2-2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단위 : 개소수)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01	23	8	7	8	4	4	4	29	14	12	15	14	20	20	17	2
독립형	153	6	7	6	5	2	4	4	13	12	12	15	14	19	18	14	2
병합형	48	17	1	1	3	2			16	2				1	2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사업으로는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위해 전문지도사를 양성하여 가정으로 파견하는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를 통·번역 전문인력으로 채용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통·번역서비스사업, 다문화언어지도사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파견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 유치원 및 초등학교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 등의 언어를 가르치는 이중언어교실 등이 있다.

기본사업으로는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이해교육, 가족교육, 가족개인상담,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등 센터에서 수행해야 하는 필수사업으로 5개 영역의 사업이 있다. 이 중에서도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2009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으로 취·창업지원사업이 새롭게 포함되었고,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 고용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과 연계하여

취·창업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일자리제공기관과의 결혼이민자 연계 활동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지원서비스에만 전문화된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취업 및 교육훈련사업도 함께 추진하는 종합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2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구분	내용					
내용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지역특성 및 결혼이민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업연계 준비 프로그램 운영					
대상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20세 이상)					
세부 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영역</th> <th>공동필수</th> </tr> </thead> <tbody> <tr> <td>취업연계 및 교육지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넷 등록 및 연계(연 3건 이상) - 워크넷 설치 의무화 • 필수 2. 취업기초소양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교육, 직장예절·이미지메이킹 </td> </tr> </tbody> </table>	영역	공동필수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넷 등록 및 연계(연 3건 이상) - 워크넷 설치 의무화 • 필수 2. 취업기초소양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교육, 직장예절·이미지메이킹 	
영역	공동필수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넷 등록 및 연계(연 3건 이상) - 워크넷 설치 의무화 • 필수 2. 취업기초소양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교육, 직장예절·이미지메이킹 					
방법	교육진행 시 취업과 관련된 교육 실시(창업지원 제외)					
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취창업교육 운영매뉴얼 -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참고	외부연계기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기관 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취업연계 중심으로 운영하고 새일센터에서 결혼이민자의 체계적인 직업훈련 지원하도록 여성가족부에서 역할을 조정하여 2011년부터 운영 중임					

자료 : 여성가족부, 2012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자료

3)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에서는 2010년 4월부터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1 맞춤형 취업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차차상위계층」까지를 정책대상으로 설정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 → 의욕·능력증진 → 집중·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업 참여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월 20만원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이들이 취업하는 경우에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이다. 참여대상은 만 15-64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구직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표 2-24〉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내용

구분	취업지원내용	지원금	세부내용
1단계	진단·경로설정	참여수당	취업성공 패키지지원대상자로서 1단계(진단·경로설정) 과정에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단계 참여수당(최대 20만원)을 지급
2단계	의욕·능력증진	훈련참여지원수당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 지원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5,000원을 지급하되, 최대금액은 월 20만원까지 지급
3단계	집중·취업알선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참여자가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 후 주 30시간이상의 일자리 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 ※ 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정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후 같은 직장에서 1개월 근무한 경우 20만원,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시 30만원,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5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00만원 지급

자료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http://www.work.go.kr/pkg>)

이처럼 취업성공패키지는 노동시장의 다양한 취업취약계층 가운데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사업으로 결혼이민자를 위해 특화된 사업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도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들도 체계적인 취업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지원대상 범위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또는 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로, 고용에 필요한 최소 한국어 능력을 갖춘 자로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위한 ‘한국어기초능력진단’의 초급 1급 이상의 한국어 수준에 준하는 자여야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알선, 상담, 그리고 직업훈련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결혼이민자와 관련한 취업지원정책의 기본 인프라는 구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주로 제조업체 및 식당 등에 본인이 직접 혹은 주변 지인을 통해 구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훈련상담, 구직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면 되고 본인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취업연계를 받을 수 있다.

2.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

전라북도의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은 중앙의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와 연결된 지원 사업과 도 자체 단위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시행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사업은 전라북도의 특성을 보이지 않기에 본 절에서는 전라북도 자체 사업과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전라북도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

전라북도는 결혼이민자들의 취업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 사업비 120,000,000원을 14개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하여 전라북도에 거주하며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1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교육을 시행하였다. 14개 시·군별 직업훈련 현황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직접 교육을 하거나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직업 훈련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요리, 네일아트, 이·미용 분야 관련 프로그램들이 주로 많았고, 다문화 자원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다문화이해강사나 다국어강사 양성과정도 개설되었다. 그 밖에도 온라인쇼핑몰운영인력양성, 가죽공예, 커피 바리스타 등 9개 직종 14개 과정의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2011년부터 전라북도에서 직업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생애주기상 적응기를 지나 정착기에 접어든 시기와 다문화가족지원에 있어서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정책이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안정화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직업 훈련프로그램이 취업연계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나타나 2012년부터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수요에 맞는 취업교육프로그램보다 취업으로 연계되면서 지역적으로 시장 수요가 가능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표 2-25〉 전라북도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 (2011)

지 역	직업훈련명	참여인원	교육기관
계	14개 과정	100명	(사업비 120백만원)
전주시	한식전문가 양성반	10명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군산시	네일아트 2급 자격증 취득	10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익산시	네일아트 및 두피모발관리 강사	10명	아름다운사람들 미용학원
정읍시	이·미용사 양성 교육	10명	국제미용아카데미
남원시	커피바리스타 양성	10명	커피전문점 마루
김제시	어린이 영어스토리텔링 지도사	10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완주군	다문화이해강사 양성	5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진안군	가족공예	5명	진안창작공예공방
무주군	다문화이해강사	5명	무주종합복지관
장수군	온라인쇼핑몰운영인력 양성	5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실군	의류제작 기능인 양성사업	4명	전통의상제작실
순창군	이·미용 직업훈련교육	5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창군	한식조리사 자격증 취득반	6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안군	방과후 중국어지도사 양성	5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직업훈련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며 운영 프로그램은 아래의 <표 2-26>과 같다. 2012년에는 총 사업비 320,000,000원을 지원하여 200명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총 25개 과정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11개의 교육프로그램이 더 개설되었으며 요리, 이·미용, 다문화 및 다국어강사 양성 과정이 역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컴퓨터 자격증 취득, 산모도우미 양성, 병원코디네이터, 지역관광 통역 해설사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신설되었다.

〈표 2-26〉 전라북도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 계획(2012)

지역	직업훈련명	참여인원	교육기관
계	25개 과정	200명	(사업비 320백만원)
전주시	다문화강사 양성 과정	10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헤어·피부 전문과정	10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군산시	병원코디네이터과정	8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리사 양성 과정	12명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연계
익산시	다문화강사 양성과정	10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가정보자격증취득	10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읍시	한식조리사 양성 과정	10명	정읍새일센터 연계
	이미용기능인 양성	10명	정읍시마용협회 연계
남원시	지역관광 통역 해설사	10명	사회적기업 지리산둘레길 연계
	의류리폼기능인 양성	10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제시	한식조리기능사 양성	10명	요리전문학원 위탁교육
	간호조무사 양성 과정	5명	간호학원 연계
	컴퓨터자격증 과정	5명	전문학원 연계
완주군	다문화이해강사 양성	10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손글씨 및 리본아트 자격증 과정	10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진안군	실용가족공예과정	10명	진안창작공방 연계
무주군	네일아트자격증과정	5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수군	헤어이미용기능인 양성	10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실군	의류제작기능인 양성	6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	4명	전문기관 연계
순창군	한식조리기능인 양성	5명	요리전문학원 위탁교육
	국가정보자격증 취득	5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창군	전통음식전문인 양성	10명	요리전문학원 위탁교육
부안군	산모도우미 양성 과정	5명	전문기관 연계
	방과후 중국어강사 양성	5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

2) 전라북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북지역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12년 현재 6개소가 지정·운영중이며 경력 단절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정보, 취업 및 복지지원 서비스 등의 종합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2-27〉 전라북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현황

지 역	센 터 명	기 관 명
군산시	군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전주시	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전주시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정읍시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정읍시 여성문화관
남원시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남원시 여성문화센터
익산시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본부)	전북익산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각 센터는 중앙에서 내려 받은 사업지침에 근거하여 직업상담(전문 취업상담, 적성검사, 진로설계), 직업교육훈련(직업의식고취, 직업능력개발), 취업연계(새일여성인턴, 동행면접 및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일·가정양립 복지지원, 직장적응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라북도 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2011년도에는 신소재 섬유 디자인과 영어스토리텔링 지도사 분야로 2개의 과정만이 운영되었다.

〈표 2-28〉 전북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2011)

기 관 명	과 정 명	교육시간	교육인원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소재 섬유 디자인 맞춤형 인력 양성교육 과정	160시간	20명
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영어스토리텔링 지도사	174시간	20명

자료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2012년도에는 전북지역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개소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원어민 강사 과정과 신소재 패션 메이킹, 다문화가정멘토 관리사, 의류디자인 맞춤형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다.

〈표 2-29〉 전북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계획(2012)

기 관 명	과 정 명	교육시간	교육인원
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글로벌 영어강사과정	174	20
군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원어민중국어강사과정	160	20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소재 패션메이킹	160	15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다문화 가정 멘토관리사	160	22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의류디자인 맞춤형 인력양성	160	20

자료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제 4 절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사업 사례

현재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지원 방향은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와 취창업 지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일자리 형태의 지원 사업은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지역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좋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각각의 유형들은 지원사업이나 사업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다양한 형태의 지원 사업이 필요하기에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고 취업지원 정책에서의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사회적 기업

현재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개념 정의와 인증요건을 고려할 때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은 2012년 3월 현재 656개가 인증되었고 외국출신 이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은 2012년 현재 23개로 이주노동자 사업, 동포대상 사업, 결혼이주민 대상 사업으로 분리된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과 주요사업 내용은 2012년 3월 현재 다음과 같다.

〈표 2-30〉 여성결혼이민자 참여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

기관명	사업내용	소재지
(주)다문화 사회적 기업 어울림	• 공동체 영화만들기 프로젝트, 결혼이민자 영농기술 교육사업 국제결혼 정보제공프로그램	강원 홍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리엔씨	• 유아교육사업, 원어민 화상영어교육사업(보조강사)	경기 고양
얼드람	• 영어권 결혼이민 여성의 이중언어능력 활용, 원어민강사	경기도 안산
(주)다문화통번역센터	• 이주여성 고용, 통번역 사업	경북 구미
(사)희망웅상지점 공감	• 다문화레스토랑	경남 양산
(사)어울림	• 다문화카페 운영	광주
다문화기획단 두드림	• 다문화 인권, 체험수업, 캠프 운영, 외국어 출강	대구결혼이주여성인권센터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Talk, Play, Learn 사업단	• 결혼이민여성 외국어 교육 및 통번역 사업, 다문화인식개선 홍보사업	부산
(사)아시아공동체 re-edu & job	• 결혼이민여성 외국어 통번역 및 교육사업, 다문화가정인식 제고교육, 홍보사업	부산
(사)삼산거주외국인지원협회 해피맘케어	• 결혼이민여성의 출장산모 돌봄서비스 사업 (대상자와 일자리 창출 동시)	부산
오가니제이션요리	• 결혼이주여성, 청년 계층 대상으로 급식, 케이커링, 카페, 교육사업	서울
(사)나섬공동체 외국인지원사업단	• 결혼이민여성들 다문화이해교육강사 양성, 나섬 다문화체험 마을 설립, 운영	서울
어울림복지재단 다(茶)드림 사업단	• 다드림카페운영	울산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	• 원어민 어학 강사 및 통역자원사업	전남목포
(사)우리가꿈꾸는세상	• 간병 및 제과,제빵사업	전남목포
민들레마을 주식회사	• 돌봄센터, 민들레마을(유기농먹거리, 의류제작)	전남여수
무주결혼이민가정사랑나눔회ASIA	• 천연비누 및 천연화장품 제조, 판매사업	전북무주
(주)사람	• 결혼이민여성의 봉제사업	충남당진
(주)똥다 무지개	• 다문화교육강사, 다문화카페	충북청주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리스트 참조 재구성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들의 주요 활동 분야는 위의 표처럼 통·번역 사업, 다문화강사 및 외국어 강사 파견사업, 외식사업, 제과사업, 제품생산업, 돌봄사업의 영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특히 언어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취업지원이 한국사회의 노동시장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로 고안되어 사회적 기업 안에서도 현재 외국어 및 다문화 강사 수준의 교육훈련 및 고용지원으로 이

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 사회적 기업의 최대 사업 영역이 돌봄 사회서비스 제공업에 비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었고 다른 사업의 영역에도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아래에서는 거론된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의 운영 사례를 직접 찾아가 조사하여 운영되는 실태를 살펴보았다.

1) 오가니제이션요리(서울)

‘오가니제이션요리’는 2008년 10월에 노동부의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오가니제이션요리는 하자센터에서 취약한 사회적·문화적 자본과 자원의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들을 주 대상으로 요리들 통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탄생되었다. 그러나 대상 선정의 한계로 여성가장, 경력단절 여성, 이주여성들이 합류하면서 ‘다문화’라는 키워드의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동력을 만들었다. 따라서 오가니제이션요리의 조직 문화와 가치는 배움과 성장이 공존하는 일터, 여성의 삶과 함께하는 일터, 다문화가 있는 요리에 두고 있다. 2009년 11월 다문화레스토랑 ‘오요리’를 오픈했고 청소년요리교육사업 ‘영세프 프로젝트’, 다문화어린이방 사업인 ‘하마방’을 운영하고 있다. 창업 당시 총 직원 33명 중 이주여성은 7명이 참가하였다. 그러나 연구자가 3월에 방문하여 관련자를 인터뷰 하였을 때에는 러시아 여성 1인이 참가하고 있었고, 사업의 내용이 변화되고 있었다. 최근 오픈한 커뮤니티 카페 ‘슬로비’를 중심으로 로컬푸드, 도농연계 사업으로 먹거리제와 연결된 지역사회 메뉴개발, 교육, 콘텐츠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2) (사) 부산여성사회교육원의 Talk, Play, Learn 사업(부산)

사단법인인 부산여성사회교육원의 Talk, Play, Learn 사업은 사회적일자리 사업으로서 2008년에 모델발굴형 사업으로 선정되어 여성결혼이민자를 외국어 지도사로 양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2010년 7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여성관련 연구를 주로 해 온 단체가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교육 및 직업훈련, 사업을 시행하는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Talk, Play, Learn 사업단’의 인력은 여성결혼이민자들로 구성된 외국어 강사단 2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찾아가는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교육서

비스를 제공하며 외국어 강사 양성과정으로 초기에는 월요일~금요일까지 2개월간 240-250시간의 과정으로 수업을 듣는 과정과 2주간의 실습, 모의수업, 테스트를 거쳐서 과건한다. 2012년 교육은 4월 중순 16회 교육으로 이론보다는 실무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교실운영과정, 외국어 교육학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현재는 부산에서 더 이상 면접을 볼 수 있는 필리핀 강사가 없어서, 김해나 양산 지역으로까지 확대하여 강사를 모집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에 대하여 나라별로 특성들이 달라서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입장에서는 취업에 대한 개념이나 분위기나 한국인과 다르게 직장생활에 대한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림 2-5〉 부산여성사회교육원 'Talk, Play, Learn 사업단'

3) (주) 떴다! 무지개(청주)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는 2008년 7월 ‘떴다 무지개사업단’을 시작하였고 2010년 10월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 후, 12월 현 주소로 이전 후에 다문화카페를 오픈하였다. 그리고 2010년 12월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았다. 현재 떴다 무지개사업단의 인력은 이주여성 6명(다문화강사 5명, 카페 1명), 한국인 5명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떴다 무지개’는 무지개 시루(식당업)가 다문화카페로 변경되고 무지개 고리(민속공예단), 무지개 나라(마켓), 무지개 소리 (통번역), 무지개 다리(다문화강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식회사로 전환 후 이윤창출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 쇼핑몰, 마켓 등을 준비 중에 있다.

사업단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에 대하여 들을 수 있었다. 관계자는 여성결혼이민자 1명을 훈련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교육시켰으나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거치게 되면 이주여성 본인이 센터를 떠나 자립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그 원인으로서는 월급이 적거나, 일이 힘들어서인 경우가 많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국가(7개국)의 여성들과 함께하다보니 의사소통은 물론이고 국가별, 개인별로 성향의 차이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떴다 무지개의 무지개 시루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결혼이민자 관련 기관 등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이주여성 대상 창업지원 사업으로 이것을 토대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였다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림 2-6〉 충북여주여성인권센터 '땀다! 무지개 사업단'

2. 사회적 일자리 형태의 지원사업 사례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과 연관되어 있는 중앙부처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이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을 지원해 주고 있기에 본 장에서는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의 예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 일자리 사업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일자리 사업은 취업교육을 받은 결혼이주여성을 선발하여 고용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의 취업영역은 보육, 요리, 의료코디, 행정보조, 농업, 제과제빵, 홈패션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흥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한 여성가족부의 일자리 사업 '어울림공동텃밭 사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2) 농촌여성일자리 사업을 기반으로 한 두리두레 사업단(전북 익산)

여성가족부의 농촌여성일자리 사업을 기반으로 한 ‘두리두레사업단’은 사단법인 농촌이민여성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두리두레사업단의 농촌여성일자리 사업은 농촌지역형 홈패션, 봉제사업, 도배, 장판사업, 영농사업 등 3개 분야로 걸쳐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단은 농촌여성 및 여성결혼이민여성 31명으로 구성되어 교육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농촌여성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익산시청 및 농업기술센터와 연결하여 지속적 유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고, 2012년 5월에는 황등풍물시장 내에 카페 ‘꽃물드림’과 홈패션 매장 ‘두리두레’를 개장하게 되었다.

3) 마을기업 사업인 레인보우 다문화부티크(전북 임실)

마을기업 사업이란 행정안전부의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며, 지역주민이 행정과 재정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2011년부터 마을기업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임실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레인보우 다문화부티크’는 2010년에 마을기업 사업으로 선정되어 나라별 전통의상 및 홈패션을 제작 판매하고 있다. 이 사업단에는 봉제기능을 보유한 여성결혼이민자 4명과 한국인 기술자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레인보우 다문화부티크는 아동복 제작회사인 노비스아이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복 제작 외주 사업을 시행하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을 10명 채용할 예정이며 사업을 확장 중에 있다. 또한 이후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레인보우 다문화부티크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손재주를 활용하고 센터장의 기술 경험을 기반으로 지역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과 확대에 좋은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3. 소결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취업지원 사업은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일자리 형태의 지원 사업이 주축이 되고 있다.

현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은 한국사회에서 또 다른 취약계층으로 위치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즉 사회적 기업의 참여는 개인 차원에서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일자리 확보를 통한 경제적 자립과 주체적 사회 참여의 발판 구축이 되며 지역 차원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이주민에 대한 인식 전환 유도과 지역 경기활성화, 다문화적 지역 공동체 형성의 단초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들의 주요 활동 분야가 언어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취업지원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언어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취업지원은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로 고안되어 현재 외국어 및 다문화강사 수준의 교육훈련 및 고용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동시장에서 활용하기에는 역량 부분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전문적인 다문화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재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재교육의 방식으로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으로의 편입과 함께 교육내용에 있어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 언어와 문화 등 출신국가와 관련된 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혜원, 2010).

한편 문화자원 활용의 방식으로 다문화관련 창업활동이 주요 아이템으로 선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 조사를 통해 본 결과 창업은 주변의 지원 없이 이루어지기에는 다소 한계를 보이는 측면이 있었다. 꾸준한 시장분석과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다문화 요리 교육과정 및 국내의 기업형 외식업체 등에 인턴 과정들을 개발하여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사회적 기업의 형태와 함께 사회적 일자리 형태의 지원 사업 사례는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특성을 이용하여 공동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수요처를 발굴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현재에는 지원 사업의 형태로써 인건비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후 시장을 개척하고 수요처를 발굴하는 것이 일자리 지원 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된다.

종합적으로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일자리 형태의 지원 사업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주축이 되고 있는 사업들은 현재 사회적 기업이 갖고 있는 지속가능성과 90만원 안팎의 임금을 기준으로 유지되는 고용의 질 문제,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유용하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분야와 관련된 사회적 일자리의 특성에 다문화적 요소를 첨가한 내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측면이 남아있다.

제3장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사례조사

제 1 절 사례 조사의 개요

제 2 절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직종 유형별 특성

제 3 절 취업교육기관 및 고용기관 사례 분석



제 3 장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사례 조사

제 1 절 사례 조사의 개요

1. 조사 대상자

본 장에서는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현황에서 분석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현재 취업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취업 직종별 특징과 취업지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전라북도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지원 사업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은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취업교육기관을 통하여 취업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이 있으면서 현재 취업 중인 대상자를 추천하여 선정하는 스노우볼(snowball sampling) 형식을 채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취업 직종의 분류는 전국 단위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유형별 직종으로 나눈 모델(<표 3-1>)과 노동부에서 여성결혼이민자 적합 직종으로 선정한 20개 직업군(<표 3-2>), 그리고 전라북도가 도농의 혼합도라고 하는 특성이 반영되는 직업군들을 고려하였다.

최종적으로 분류된 취업 직종은 언어 자원을 활용한 직종(강사, 통번역), 일반 노동시장에 편입한 직종(공장근로자, 미용사, 판매원, 계약직 공무원), 일자리 지원 직종(의류 수선, 자활센터, 예비 사회적 기업), 영농인력 등으로 분류되었다.

<표 3-1>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유형별 직종

구분	해당 직종(직업)
생계형	공장근로자, 단순노무, 가사도우미, 간병인, 산모도우미, 아동양육지도사, 캐디
사회참여형	원어민 강사, 다문화강사, 공공기관 상담 통역, 다문화가정상담원
우선고용형	상담 관련직, 공공기관 / 지자체 이주민 관련 사무직, 학교 급식조리사
사회통합형	학원강사, 관광통역안내원, 전문 통번역, 한식조리사, 피부관리사, 네일아트, 매장판매원 등
창업	의류수선, 지역특산물 / 지역 특화 문화예술 상품 제조 판매, 다문화상품 수입판매점 등

〈표 3-2〉 분야별 결혼이민자 적합 직종

분야	해당 직종(직업)
다문화자원(언어)을 활용한 분야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관광가이드, 다문화강사, 안전교육원, 다국어강사, 다국어 콜센터 직원
다문화자원(문화)을 활용한 분야	다문화음식점, 다문화카페
다문화기관 지원인력분야	한국어 보조강사, 상담보조원, 산모도우미
공공기관 및 사기업 취업분야	도시정리요원, 제조업 생산직 취업, 대형마트 카트 정리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유망분야	요양 보호사, pop강사, 도배사, 의류수선사, 미용사
기타분야	영농인력

본 연구에 선정된 여성결혼이민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3>과 같다. 우선 출신 국별로 보면 베트남 7사례, 필리핀 5사례, 중국 4사례, 일본 4사례, 몽골 1사례, 캄보디아 1사례 등 총 22개 사례였다. 연령별로는 27세에서 46세였으며 거주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대 17년이었고, 학력은 중졸 3명, 고졸 14명, 대학중퇴 1명, 전문대졸 2명, 대졸 1명, 대학원 졸 1명이었으며 거주지별로는 도시가 11사례, 농촌이 11사례였다.

〈표 3-3〉 여성결혼이민자 심층면접 대상자의 특성

사례	연령	출신국	학력	출신국 직업	지역 및 거주기간	직업	월수입 (가구)	한국어 수준	기타 (가족관계, 직업훈련)
1	27	몽골	고졸	아르바이트	도시 6년	미용사	150	중	남편(42세, 고졸, 고물상) 아들 1(6세), 딸 1(4세) 미용사 자격증 보유
2	31	필리핀	고졸	백화점 판매원	도시 11년	통번역사	240	중	남편(46세, 고졸, 농업) 아들 1(11세), 딸 1(5세) 영어지도사, 통번역사 수료
3	32	베트남	고졸	전화안내원	농촌 10년	통번역사	240	중	남편(46세, 고졸, 농업) 아들 2(9세, 7세) 통번역사 수료
4	32	베트남	대졸	무역회사 통역	도시 5년	계약직 공무원	550 (180)	상	남편(42세, 대졸, 회사원) 아들 1(5세) 컴퓨터 자격증
5	29	중국	고졸	아르바이트	도시 7년	다문화강사	100	상	남편(전문대졸, 화물차 운전, 시택운영, 지원) 아들 1(7세), 딸 1(5세) 컴퓨터 자격증, 다문화강사 교육
6	30	베트남	중졸	가내수공업	농촌 6년	다문화 부티크	150	중하	남편(40세, 고졸, 농업) 딸 1(6세), 아들 1(4세)

사례	연령	출신국	학력	출신국 직업	지역 및 거주기간	직업	월수입 (가구)	한국어 수준	기타 (가족관계, 직업훈련)
7	43	베트남	중졸	미싱공장	농촌 7년	다문화 부티크	120	중하	남편(60세, 중졸, 군청 산발 요원) 미싱사 12년 경력
8	29	베트남	고졸	재봉사	도시 4년	다문화 음식점	100 (본인)	중하	남편(53세, 고졸, 농사)
9	28	필리핀	전문대졸	공장	도시 5년	다문화 음식점	100 (본인)	중하	남편(49세, 고졸, 농사)
10	38	필리핀	대학원졸	은행	도시 8년	외국어강사	120	상	남편(43세, 고졸, 무직) 딸 1(8세), 아들 1(7세)
11	42	중국	고졸	피부관리사	농촌 17년	공장식당	300	상	남편(고졸, 공장, 농사) 아들 2(17세, 13세)
12	24	캄보디아	고졸	.	도시 2년	섬유공장	330	하	남편(고졸, 자영업)
13	39	일본	고졸	컴퓨터 문서작성 업무	농촌 17년	하나로마트	280	상	남편(대졸, 건설업) 딸 2 (13세, 9세) 미술치료사 2급 자격증 보유
14	28	베트남	고졸	.	도시 8년	자활공동체	395	중상	남편(고졸, 자영업) 딸 1(8세), 아들 1(3세)
15	40	중국	중졸	공장 사무 (부 운영)	농촌 도시이주 17년	장애인 도우미	270	상	남편(48세, 중졸, 운전기사) 아들 1(16세), 딸 1 (13세) 한식조리사, 특수장애인도우미 수료
16	28	필리핀	고졸	직물공장, 레바논 커피숍	도시 4년	외국어 지도사	본인 105	중하	남편(고졸, 회사원) 아들 2(4세, 2세) 외국어 지도사 자격증 보유
17	33	중국	전문대졸	유치원교사 대련시 회사	도시 2년	외국어 지도사	280	하	남편(48세, 대졸, 회사원, 재혼) 아들 2(22세, 12세) 외국어 지도사 자격증 보유
18	40	필리핀	대퇴	백화점 판매직	농촌 15년	자활센터/ 화장품 판매	200	상	남편(48세, 초졸, 산림조합) 아들 1(16세), 딸 (12세) 사무업무 자격증 보유
19	43	일본	고졸	공장 5년	농촌 13년	농업	200	중	남편(48세, 고졸, 농업) 아들 3(13세, 8세, 4세) 봉제기술
20	46	일본	고졸	백화점에서 판매업	농촌 13년	농업	200	중	남편(51세, 고졸, 농업) 아들 1(14세), 딸 (11세) 일본어 강사 자격증 보유
21	41	일본	고졸	회사(사무)	농촌 11년	농업	200	중상	남편(48세, 고졸, 농업) 아들 2 (10세, 6세)
22	31	베트남	고졸	과일장사 경력	농촌 6년	농업	200	중하	남편 (50세, 중졸, 농업) 아들 1(5세)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교육 프로그램과 취업연계,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관들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취업교육 및 연계기관, 그리고 고용기관 등을 방문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취업교육 및 연계기관 8사례, 고용기관은 7사례로 각 기관별 조사가 이루어졌다.

〈표 3-4〉 고용기관 및 취업교육기관 심층면접 대상자

사례	성별	기관유형	관련업무 및 종사기간	기타(지원현황 및 기관 특성)
23	여	고용센터	취업알선/4년 3개월	고용노동부 기관, 취업알선 지원, 100명
24	여	긴급지원기관	긴급지원 및 상담/3년	통번역사 및 상담 채용, 7명
25	남	취업교육기관	취업지원 및 교육/3년	취업교육 및 연계, 31명
26	여	다문화센터	취업연계 및 상담/5년	취업교육프로그램 운영, 채용, 12명
27	여	취업교육기관	직업교육 훈련 개발관리/3년	취업교육프로그램 운영, 14명
28	여	취업교육기관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운영/1년	취업교육프로그램 운영, 18명
29	여	농민센터	농촌형일자리 지원사업/3년	농촌형 일자리 지원사업, 3명
30	여	다문화센터	취업교육프로그램/6년	취업교육프로그램 운영 채용, 10명
31	여	자활센터	자활사업운영/3년	자활사업 운영 8명 채용, 9명
32	여	미용실	여성결혼이민자 채용 4개월	취업교육프로그램 지원 경험, 1명 채용
33	여	공공기관(시청)	여성결혼이민자 계약직 채용	여성결혼이민자 계약직 공무원 채용
34	남	섬유업	여성결혼이민자 채용/2년	여성교육문화센터 연결 수시 채용, 220명
35	여	섬유업	여성결혼이민자 채용/2년	여성교육문화센터 연결 수시 채용, 30명
36	남	제조업/재활용업	여성결혼이민자 채용/2년	여성교육문화센터 연결 수시 채용, 23명
37	남	무역업	여성결혼이민자 채용/1년	통역원 1명 채용, 화장품 무역 5명 채용

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의 사례조사는 연구방법으로 심층면접을 택하였다. 면담은 참여자들의 관점과 생활세계, 의식, 주관성,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연구자는 면담을 통해서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들을 둘러싼 세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 통찰해 볼 수 있다.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하여 전북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현황에 대한 일반적 자료를 얻을 수 있다면 심층면접을 통한 사례조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대책을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심층면접은 소요되는 시간과 라포 형성이라는 관계 형성 때문에 많은 사례를 얻기가 어렵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느끼는 구체화된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의 의미에 따라 심층면접은 대상별로 개별면담이나 집단면담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들과의 면담은 본인의 집, 직장을 중심으로 대부분 1:1 개별면담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영농인력으로 참여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농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시간 이후에 별도로 시간을 내어 집단 면담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집단면담은 상호작용하면서 서로의 관점을 명료화하도록 자극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자신의 관점을 분명히 파악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취업교육 및 연계기관에 대한 면담은 관련 업무의 실무자 중심으로 좌담회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각각 기관의 교육특성과 애로점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고용기관에 대한 심층면담은 1:1 개별면담으로 진행되었고, 기관에 대한 현황은 서류로 대체하였다.

대상자별로 면담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이루어졌으며 면담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 하에 녹음을 하였고, 면담이 끝난 후 전사하였다. 자료에 대한 분석은 면담자료의 수집과 전사가 이루어졌다.

〈표 3-5〉 각 대상자별 심층면접 주요 내용

대상	항목	주요내용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	취업근무조건	취업처(회사이름, 직종),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근무시간, 임금, 4대보험 적용 여부, 현재 근무지에 대한 만족, 주변사람들에게 권유
	취업경험	취업교육 경험, 취업정보 습득, 출신국 취업경험과의 연관성, 취업에서의 어려움,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필요한 취업프로그램의 내용
	향후 취업희망 일자리 특성	희망 직종 및 업종/선택의 이유, 희망 근로시간, 희망 급여 수준
	희망 훈련프로그램 욕구	희망 훈련프로그램 종류 및 내용, 희망 훈련시간 및 기간, 희망 훈련 기관
	취업지원 현황	현재 취업에 대한 가족의 지원, 지방정부의 지원책에 대한 욕구
고용기관	기관 정보	기관유형, 직원 현황
	고용 관련 정보	고용배경, 모집 및 선발기준/근로조건, 여성결혼이민자의 업무조건, 만족도, 훈련기회 제공 여부
	고용상의 문제점	고용상의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필요한 직무교육
	지원 방	노동수요전망, 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방안
취업교육기관	기관정보	기관유형, 직원 현황
	취업서비스 현황	취업지원(교육프로그램, 취업연계 등), 타 기관과의 협력여부, 취업교육 프로그램의 방향
	취업지원정책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 2 절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직종 유형별 특성

전라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지원 관련 교육이나 사업에 참가한 경험이 있으면서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분류된 취업 직종별 유형은 4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언어자원을 활용한 직종으로 이 직종에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다문화강사 및 언어강사, 통번역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정부의 각종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로서 이들은 자활 사업에 참가하거나 예비 사회적 기업, 그리고 마을기업에 선정되어 지원되는 사업에 취업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 노동시장에 편입된 사례들로 공장근로자, 판매직, 계약직 공무원, 미용사들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영농인력들로 구분될 수 있었다.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이 취업유형별로 구성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 특성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언어자원을 활용한 직종

본 연구에서 언어자원을 활용한 직종에 취업된 사례는 6명으로 이들의 취업조건과 취업 경험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직종	취업조건	본국/국내 취업경험	취업교육	취업연계
2 (필리핀, 고졸)	통번역사	주 40시간, 100만원 4대보험	백화점판매원 (7개월)	한국외대 통번역양성과정 이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근무
3 (베트남, 고졸)	통번역사	주 40시간, 100만원 4대보험	전화안내원 (1년)	한국외대 통번역양성과정 이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근무
5 (중국, 고졸)	다문화강사	시간당 3만원	아르바이트	다문화센터 다문화강사교육	시간제 다문화강사
10 (필리핀, 대학원졸)	외국어강사	120만원 학교별로 강사	회계/은행직원 (2년)	다문화센터 영어지도사교육	초등학교 연결 방과후 교사
16 (필리핀, 고졸)	외국어지도사	1:1 교습 100만원	직물공장, 레바논 커피숍 (4년)	다문화센터 및 복지관 교육이수	다문화센터 및 복지관 연결
17 (중국, 전문대졸)	외국어지도사	1:1 교습 100만원	유치원교사 대련시 회사 (8년/3개월)	다문화센터 및 복지관 교육이수	복지관 연결

언어자원을 활용한 직종에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일반적으로 고졸 이상의 학력과 본국에서의 취업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취업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취업연계의 고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 직종 내에서도 다문화강사 및 공공기관 언어강사는 시간 당 급여를 받고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월평균 소득은 많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사례 5>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취업교육지원으로 운영된 다문화강사 교육에 참여하였으나 4회 정도의 교육기회만 가져보았고 이후 취업이 연계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조사자> 지금 다문화강사는 하고 계신 거죠?

<사례 5> 다문화강사는 작년에……. 그 제가 봤을 때는 다문화센터에서 교육을 하는 거는 그 다문화센터의 필요에 의한 교육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물론 저희를 생각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 해에 맞춰서 거의 끝나면 은 모든 게 스톱이 돼요.

<조사자> 그 강사활동을, 그 교육을 받고 강사활동을 안 하셨어요?

<사례 5> 교육을 함과 동시에 했어요. 실습겸 강사겸 그렇게……. 거의 1시간에 3만 원 정도로 해서 월로는 못 받았고요. 거의 네 번? 다섯 번 정도? 나라별로 다 돌아가니까. 총 12만원 받고 그 뒤로는 연계되어 못 받았어요.

그러나 2009년도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통번역 양성과정을 실시한 사업에 참여하고 이 과정을 이수한 <사례 2>, <사례 3>의 경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다문화강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취업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선발과 교육을 통해서 센터에 배정 받은 통번역사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초기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었다. 이들 또한 본인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이들은 통번역사의 업무 외에 상담 업무, 행사 참여 등 많은 일을 처리하고 있었다. 특히 상담 업무가 추가되어 이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사례 2> 이런 자리 있으면은 추천해주고 싶은데 한정되어서 없잖아요. 저는 정말 만족해요.

<조사자> 그런데 어려움은 뭔가요, 이 일에 있어서?

<사례 2> 어려운 거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지, 상담할 때 남편이랑 싸워가지고 이렇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니까 둘이 뭐라고 하지, 둘이 얘기 안 되가지고.

<사례 3> : 서로 이해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서 어떻게 편, 아내도 편도 안 되고, 남편도 편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주 여성은 여기 뭐가 많이 도와주니까 이주 여성도 조금 기분 안 좋고, 남편도.

<조사자> : 통번역 이런 것만 했지, 이런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건 안 받았는데 상담까지 하고 있는 거네요, 실제적으로 업무는…….

<사례 3> : 우리 업무는요. 저희가 통역을 해주고 번역도 해주고, 센터 프로그램도 다 안내해주고, 그리고 막 프로그램, 여기 있잖아. 아니면 체험 도 우리랑 같이 나가서 우리 안내도 해주고.

<조사자> :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 거네.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상담이라는 건데…….

<사례 2> : 상담에 대한 그거를 교육을 좀 더 받으면 좋겠어요.

<사례 2>와 <사례 3>의 경우는 통번역사의 자격이 강화되고 보수교육이 계속 실시되고 있지만 이 과정 자체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순히 교육과정만 수료한 이수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종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이직에 대한 생각과 재교육을 받고 싶은 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언어강사 및 언어지도사로 활약하고 있는 사례들은 대부분 중국과 필리핀 출신들로 다른 사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복지관등을 통하여 영어지도사 및 중국어지도사 자격증 과정을 거쳐서 학교의 방과후 수업이나 개인 과외 등을 통해 평균 1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벌고 있었다. 그러나 <사례 10>의 경우 학교 방과 후 수업인 경우 대졸자인 여성결혼이민자도 본국에서의 교육과 취업 경험을 인정받지 않아서 다시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력을 인정받고 언어강사로 활동할 수 있었음을 밝혔다.

<조사자> 지금 혹시 이 일을 하시면서 보수는 어느 정도로 받으시는 거예요?

<사례 10> 음, 한 학교에서 40만원.. 저기 남양초도 있고, 사회복지관은 거의 70만원 정도, 한 120만원 정도 벌어요. 근데 학교 방과후 수업은 어려워요. 왜냐면 근데 제가 저기 그 전주대 석사한 것도 왜냐하면 처음에 한국에.. 제가 그 학교에서 그 뭐.. 학교가면 그 아무리 필리핀에서 4학년 졸업했어도 그거 인정 안 해요. 그니까 대학원을 갈 수 밖에 없었어요.

전반적으로 언어자원을 활용한 취업직종에 취업한 사례들은 인적자본 특성에 있어서 본국에서의 학력이 높고 사례별로 7개월에서 8년 정도의 취업경험이 있었다. 더불어 이들은 초기적응에 아는 사람이든 센터의 직접적 홍보이든, 여러 경로를 통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기관을 통해 한국어 교육

및 취업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한편 언어자원을 활용한 직종들의 사례 경우에서도 이들의 취업에도 불구하고 가구당 소득은 100~300만원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현재 이들의 직종이 비정규적인 계약직에 머무르고 있고, 배우자의 직종¹⁾이 하위직에 있음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자원을 활용한 직종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문적인 직종이고 향후 취업 전망도 좋기 때문에 가족들의 지지와 협조를 받고 있었다.

구직활동 시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여전히 거주기간이 길고 중국 조선족 출신이라도 한국어 능력(조선족인 경우 외래어 사용) 부족과 본국에서의 학력이나 직업경험이 인정받지 못함 등으로 나타났고 향후 받고 싶은 직업 훈련 분야는 한국어의 능력을 키우거나 언어관련 자격증, 직업 진로 교육 등으로 나타났다.

사례	가구의 월평균 소득	배우자의 직종	가족의 지지	구직 활동시 어려움	향후 직업훈련 분야
2 (필리핀, 고졸)	240 (본인 100만원)	농업	적극적 협조	한국어 능력 부족	영어지도사 자격증
3 (베트남, 고졸)	240 (본인 100만원)	농업	적극적 협조	한국어 능력 부족	한국어 4급 이상 자격증/대학교육
5 (중국, 고졸)	100 (시댁 지원)	화물차운전 (시댁운영)	지지	양육부담 (시간제 일 요구)	직업 진로 교육
10 (필리핀 대학원졸)	120	무직 (건강상)	지지	대출 학력 인정어려움/ 대학원 진학	영어관련 자격증/ 방과후교사 등록
16 (필리핀, 고졸)	300 (본인 100만원)	회사차 운전	지지	한국어 능력 부족	대학진학
17 (중국, 전문대졸)	280 (본인 100만원)	회사원	지지	한국어 능력 부족	한국어 / 유치원 교사

1) 2009년의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전북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직종은 농림어업 30.3% > 기타단순노무자 16.5% > 기능 14.9% > 기타 12.4%의 순이었다.

<사례 5> 보면은 지난번에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 교육이 풍선아트, 네일아트 이렇게 자격증 화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거는 솔직히 초급 자격증을 딴 사람을 어디서 취직은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걸 초급에서 끝나는 거야. 다 계속 초급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면은 계속 초급만 배우고 막상 나와서 쓰려면 쓸 수 없는 …… . 그러니까 그걸 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그거에, 그 직장에 취직이 될 수 있다는 그 교육을 모르는 것 같아요. 유치원 선생이 되려면 저도 얼마 전에 안 거예요. 그 학교를 4년제 거기 나와서 자격증이 있어야 유치원 선생님이 될 수 있다, 이런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나 저희들을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어요. 단순 자격증 교육도 중요하지만 …… .

특히 <사례 5>의 경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과 취업 교육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우선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는 직업 진로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 내용은 현재 취업교육기관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방향과 내용, 대안을 제시해 주는 사례로 여겨진다.

2. 일자리 지원 사업 관련 직종

정부가 취약계층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지원 되는 사업에 여성결혼이민자가 참여하는 본 연구의 사례조사에서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되는 다문화 음식점의 보조요리사, 마을기업 지원을 받아 농촌형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려는 다문화부티크의 의류수선사, 그리고 자활공동체사업에서 참여하는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사례	직종	취업조건	본국/국내 취업경험	취업교육	취업연계
6 (베트남, 중졸)	의류수선 및 미싱사	주 40시간, 4대보험 80만원	가내수공업 (7개월)	다문화센터 의류리폼교육	마을기업지원 다문화부티크
7 (베트남, 중졸)	의류수선 및 미싱사	주 40시간, 4대보험 80만원	미싱사 (12년)	다문화센터 의류리폼교육	마을기업지원 다문화부티크
8 (베트남, 고졸)	다문화요리	주 40시간, 4대보험 100만원	재봉사	한국어교육 음식 및 위생교육	예비사회적기업 다문화음식점
9 (필리핀, 전문대졸)	다문화요리	주 40시간, 100만원	공장근무	한국어교육 음식 및 위생교육	예비사회적기업 다문화음식점
14 (베트남, 고졸)	의류 재활용 수출	주 40시간 100만원	없음	한국어교육 수강	개인소개/ 자활공동체 (재활용품)
18 (필리핀, 대퇴)	의류리폼이나 흠패션	주 40시간 70만원	백화점판매직 공장근무, 방과후 강사	한국어교육 다문화센터 소개	자활공동체 인큐베이터 사업단

일자리 지원 사업에 관련된 직종에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는 대부분 동남아시아 출신들이 많았다. 예비 사회적 기업인 다문화음식점 다식사업단의 경우 출신국 음식을 자원화 하여 기업화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였고, 다문화부티크의 경우에는 베트남 출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봉 기능을 활용하여 마을기업 사업을 신청하였다. 자활공동체에 근무하는 <사례 14>, <사례 18>의 경우 지역에서 다른 직종에 일했을 때보다도 일을 배우면서 임금과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무조건에 만족하였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은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자리의 성격상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렵지 않고 4대 보험의 혜택을 가진 괜찮은 노동조건을 가지고 있는 일자리로 평가 받을 수 있다.

<사례 7> 다른 일보다, 여기, 어, 우리 친구들, 베트남 사람 많아서 좋아요. 같이 일하고, 또 다음에 많이 일하고, 월급 많이 받고, 지금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지금 일하는데 조금 추운데 환경만 조금 좋아지면, 그리고 베트남에서 미싱 일해 본 사람들 모여서 일하니깐 좋아요.

<사례 8> 네, 재미있어요. 손님 많이 왔을 때(웃음) 힘들 때도 있고요. 우리 원래 베트남에서도 배웠고요. 여기도 연습 많이 했어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월급이 적어서 그런데 120정도 받으면 좋은데 다른 일가면 힘들게 받아요. 여기는 10시에 출근해서 8시쯤 퇴근하고…….

<조사자> 아침부터, 여기 9시부터 근무하신다고, 근무시간은 괜찮으세요? 생활 하시기에?

<사례 18> 네, 괜찮아요. 월급은 만족하지만, 조금 이제 만족하는 거보다, 좀 아쉽다. 좀 아쉽다. 내가 왜 편하냐면 내가 이것 저것 배우고 싶고, 배우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하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게 자활단에서 해줘서 좋았어요.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뭐 돈을 따지는 것보다 내가 배우고 싶은 것만큼 배울 수 있어서…….

그러나 일자리 지원 사업에 관련된 직종은 지원 사업의 예산이 끊어질 경우에 사업이 중단되어야 하는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예비 사회적 기업이든 마을기업 사업단이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과 비영리사업을 분리 운영하지 못할 경우 사업의 지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편 다른 직종들과 달리 이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취업훈련 교육이 3-6개월 단기성 교육에 머무르고 자활사업단인 경우에는 일을 하면서 사업기간에 내에 일을 배우고 있기에 단순 취업 역량을 키운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사례 9> 음식교육, 위생교육, 늦게까지 좀, 2개월 정도 배우고 일을 했어요. 2년 정도 한국어를 배웠지만 더 배워야 할 것 같고 음식 하는 것도, 지금은 한국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그치만 더 요리공부도 해야 하는데, 올해까지만 할 생각도 있어요.

<사례 14> 베트남 친구들 모여서 일하니까 좋은데, 어, 저는 마음 같아서는 그 지원하는 거 다 받아보고 싶은데, 아직 돈을 벌어야 돼서 그게 취업교육을 간다면 시간이 없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했으면 해요.

전반적으로 일자리 지원 사업에 관련된 직종에 취업되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임금 수준이 적지만 노동시간이 적고 4대 보험 등의(국적 미 취득시 국민연금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직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공동체적인 작업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같은 출신국이나 외국 출신 여성들 간의 유대감에도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원 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직종이기에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단기간의 일자리이고 사회적 기업이라도 수익이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일자리의 불안정성은 존재하였다.

한편 아래 사례에서처럼 이들의 가구당 소득은 120-395만원이고 남편들의 직종은 주로 농업 관련 일이나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본 사례들도 정규적인 일자리이기 보다는 한시적인 지원 사업 성격의 일자리였기 때문에 임금 수준이 높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 도농지역에 거주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동체 일자리를 통해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본인과 가족들은 만족하고 있었다. 또한 공동체 일자리가 출신국 여성결혼이민자들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한편으로 지역사회에 일하는 것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의미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 지원 사업에 바로 투입되는 직종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필요한 한국어 능력 습득이나 심화된 취업교육프로그램이 제시되지 못하고 단기 교육에만 머무르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사 례	가구의 월평균 소득	배우자의 직종	가족의 지지	구직 활동시 어려움	향후 직업훈련 분야
6 (베트남, 중졸)	150 (80)	농업	적극적 협조	농촌지역 일자리없음	한국어 습득 재봉질 계속 유지
7 (베트남, 중졸)	120 (80 예정, 훈련 중)	군청 산불요원	적극적 협조	농촌지역 일자리 없음	현재 일에 만족
8 (베트남, 고졸)	100 (본인)	농업	지지	한국어 능력 부족	베트남 미싱일 다시 배우고 싶음
9 (필리핀, 전문대졸)	100 (본인)	농업	지지	한국어 능력 부족	출산준비로 일 중단 취미생활하고 싶음
14 (베트남, 고졸)	395 (100)	자영업	지지	돈을 벌고 싶어 구직활동/ 본국 언니들 도움으로 취업 함	통번역사
18 (필리핀, 대퇴)	200 (70)	산림조합	지지	일자리 안정적이지 않음	창업에 대한 교육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일자리 지원 사업 변화되는 과정에서 수익창출과 독립하여야 한다는 부담감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 능력을 고양하는데 한계점을 보이는 듯하다. 그러나 <사례 18>의 필리핀 여성은 공장근무, 방과 후 교사, 관광안내소 일을 단기적으로 경험하면서 자활사업단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입되어 일과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에 만족하고 있었다.

<사례 18> 처음에는 뭐 이거 공예 사업단은 어떤지 몰랐어요. 근데 하고나니까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하기 싫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지. 이제 이것저것 찾고 하나하나씩 만들어보니까 재미있더라구요.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이제 하는데.

공장 근무는 보통 이제 9시 6시 하면. 한 7, 80만원 밖에 아니고. 이제 저녁까지 하면, 7시 8시까지 공장에 있어요. 10시까지. 이렇게 있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사업단 근무조건은 조금 이제 만족하는 거보다, 좀 아쉽지만 내가 왜 편하냐면 내가 이것저것 배우고 싶고, 배우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하면 부담되자나요. 그렇게 자활단에서 돈도 받고 공예도 배우고 좋았어요. 이것 배워서 뭐 조금이라도 가게라도 이렇게. 이런 거 하고 싶었어요. 이런 거 못하지만. 돈이 없지만. 돈이 많이 있어야 이런 거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 그런 것도 못하니까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물건 바꾸는 거 아니고 이거 개인적으로 사업만하는 그런 마음 그런. 그런 꿈 갖고 있어요. 옛날부터.

따라서 일자리 지원 사업의 직종도 임금 수준은 높지 않지만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일과 교육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일반 노동시장 편입 직종

일반 노동시장에 편입된 직종은 개인의 자격으로 민간부분의 시장에 편입된 직종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의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직종이다. 양인숙외의 연구(양인숙외, 2010)에서는 이 부분을 생계형 일자리와 시장통합형으로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취업하는 형태는 일반 노동시장에 편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같은 범주 안에 넣어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 일반 노동시장에 편입된 직종은 공장근로자, 농협과 화장품에서의 판매직,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으로 분리되었다. 이들의 개인적 자격은 중졸에서 대졸까지 다양했고 받는 임금과 근로조건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공통적으로 <사례 12>를 제외하고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취업교육프로그램이나 자격증 공통 과정을 수료하였다.

사례	직종	취업조건	본국/국내 취업경험	취업교육	취업연계
1 (몽골, 고졸)	미용사	주6일 근무 70만원	아르바이트	다문화센터 미용사 자격증교육	미용실 취업 현재 수습기간
4 (베트남, 대졸)	계약직공무원	주5일 근무 4대보험 180만원	무역회사 한국어 통역	다문화센터 통번역사 수료	외국인 계약직 공무원 채용 응모
11 (중국, 고졸)	공장식당	주6일 근무 3교대 근무 150만원	피부관리사	다문화센터 한식조리사 자격증 교육 신청	개인적 관계를 통한 공장식당 취업
12 (캄보디아, 고졸)	섬유공장	주5일 근무 4대보험 90만원	없음	여성교육문화센터 결혼이민인턴제	결혼이민인턴제 기업 취업
13 (일본, 고졸)	마트 판매원	주6일 근무 4대보험 100만원 (11시간)	사무직	다문화센터 미술치료사 자격증	취업연계 프로그램 없고 일자리 없음
15 (중국, 중졸)	화장품판매원장 애인도우미	주5일 근무 영업직	공장 사무 (친부 운영)	다문화센터 한식조리사 자격증	화장품 영업직 퇴사/ 장애인 도우미

실제로 현재 여성결혼이민자의 다수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어 교육이나 취업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있지만 취업과 연계되는 사례는 적은 것으로 보여진다.

<사례 12>의 경우는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인턴제도를 알게 되어 섬유공장에 취업하게 되었고 현재 취업중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례이다. 양인숙의 보고서에 의하면 생계형 직종은 기초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있으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비교적 단시간의 교육을 통하여 취업을 할 수 있는 직종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캄보디아 출신인 <사례 12>는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통해 1개월의 봉제관련 교육을 받고 공장에 투입되었다.

<사례 13>, <사례 15>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미술치료사, 한식조리사 자격증 교육을 받았지만 자격증과 상관없이 주변의 도움을 통해 농협이나 화장품 판매원의 일을 시작하게 된 사례이다.

<사례 12> 아니,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저는 그냥 한 달만 그냥 같이 배워요. 많은 옷 무슨 잘라 논 거 그냥 지금 배우고……. 9시부터 7시까지 회사차가 와서 가고 그래요. 여성교육문화센터는 남편의 아는 분이 알아가지고 남편이 해볼래? 해서 일 하고 싶어서 했어요.

<사례 13> 마트는 그냥 같은 동네에 사는 아저씨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들어갔어요. 9시까지. 그리고 늦게 나오는 날은 10시부터 10시까지 일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길다보니깐 한 시간 줄여가지고, 지금 11시간 하고 있는데……. 받아 본 건 미술치료사는 여기서 땀어요. 그리고 뭐 운전면허도 (땀어요). 취업, 그러니까 거기가 너무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교육을 받아도 활용할 곳이 없어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현재 전북 여성결혼이민자의 다수가 취업하고 있는 직종으로 서비스 종사자가 24.6%, 기타 단순 노무자 20.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17.7%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반 노동시장에 편입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례조사에서도 알 수 있는데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판매직, 공장 근무직에 머무르면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근무조건에서 일하고 있었다.

<사례 1>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미용사 자격증 교육을 이수하고 미용실에 취업한 사례로 취업연계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취업교육을 받았다고는 하나 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연관되어 취업한 사례로 간주되며, 똑같은 취업 교육을 받아도 개인적 성향과 주변 여건의 차이로 인해 취업에 성공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업한 <사례 4>는 베트남의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이력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활동 등이 고려되어 C시의 외국인 계약직 공무원에 응모하여 취업한 사례이다. 두 사례들은 일반 노동시장에 들어갈 때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경우로 간주될 수 있다.

<사례 1> 몽골에서요? 했어요. 엄마가 미용하는 거랑……. 엄마 따라서 좀 했어요. 배웠다가 또 일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으니까, 또, 이번에 우리 열 명에서 자격증 따고 취업하는 사람이 많으면 내년에도 저기를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따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이유는 한국어가 모자란 사람도 있고요. 애도, 집안도 바쁘고, 저기 엄마, 아빠 때문에 포기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미용은 혼자 할 수도 있고, 근데 자기가 추구하는 일을 자기가 선택해야죠? 그렇죠? 참 원래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전에도 미용으로 봉사활동도 자주 다니고, 그녀가 봉사활동 저기서도 배우고 있다가, 여기서도……. 원래 돈 주고 배우려고 했는데, 거기 학원에서 배워준다고, 어차피 배워준다고 하고, 여기서 하고…….

<사례 4> 애기아빠는 베트남에서 좀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통역을 해줬어요. 그래서 만나서 결혼하고 여기는 외국인 공무원 채용공고 보고 응시를 했어요. 저는 지금 다문화가정 뭐 통번역 업무도 하고, 상담도 하고, 서비스, 뭐 행정 서비스 이렇게, 그리고 안내 자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직장 많이 다녔지만 행정업무를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행정업무에 대한 조금 어렵고 그런 거 여기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주니까……. 지금도 익숙……. 조금 익숙해졌어요. 그래도 지금 배우면서 근무하면서 좀 괜찮아요.

C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있다고 알게 됐어요. 소식지 보고, 애기아빠가 그걸 보고, 그 다음에는 애기아빠 바쁘시니까 시누이한테 좀 다문화센터 좀 데려다주라고 그래서 나왔거든요. 그 나운데, 그 국장님이 직접 면담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해보니까 온지 얼마 안됐는데 왜 한국말 그렇게 잘하냐고,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서 한국어학과 전공했다고, 그래서 국장님이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성가족부에서 통번역사 뽑는데 국장님이 그 소식 들어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통역사 하고 싶으면 한 번 응시해보라고……. 그래서 응시를 했어요. 통번역사로 활동하다가 여기 공고가 있어서 응시하고 일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노동시장에 편입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례는 개인적 경제적 욕구 및 일에 대한 개인적 가치추구 등이 맞물려 취업하게 되는 경우들이다. 다른 연구에서 생계형 일자리로 불리는 공장근로의 경우는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노동시간이 길지만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여건상 취업해야 하는 경우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노동시장에 편입되어 이들이 취업한 직종도 계약직 공무원으로부터 공장근로, 판매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기에 가구의 월평균 소득도 편차가 심한 편이었다.

이들이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지역에서 마땅한 일자리를 찾는 것과 양육부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었고, 이들은 취업교육기관을 통해 얻는 구직정보보다는 개인적 네트워킹을 통해 정보를 얻거나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다.

사례	가구의 월평균 소득	배우자의 직종	가족의 지지	구직 활동시 어려움	향후 직업훈련 분야
1 (몽골, 고졸)	150 (70)	고물상	적극적 협조	양육부담	네일아트, 피부관리 자격증
4 (베트남, 대졸)	550 (180)	회사원	적극적 협조	양육부담	행정업무 관련 지식 습득
11 (중국, 고졸)	300 (150)	공장/농업	관심없음	일자리 부족	한식조리사 취득
12 (캄보디아, 고졸)	330 (90)	자영업	지지	구직관련 정보기회 차단	미용사 자격증
13 (일본, 고졸)	280 (100)	건설업	관심없음	일자리 부족 정보기회의차단	다문화교육강사
15 (중국, 중졸)	270 (90)	운전기사	지지	일자리 부족	창업관련 분야

한편 노동시장에 편입된 <사례 1>과 <사례 4>는 개인적 능력과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등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이나 네트워킹을 통해 취업한 사례들로 취업사례에 있어서 좋은 예가 될 수 있고 이들은 자기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요구 하고 있었다.

노동시장에 편입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직접 본인들이 한국사회의 구조에 들어와 일을 하면서 느끼는 취업지원과 취업교육의 문제점,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우선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적 특성을 잘 파악하여 취업 교육프로그램을 연결시켜 주고, 자격증이나 취업교육을 통해 습득한 자질들이 연결 될 수 있는 수요처를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례들은 지역에 여성결혼이민자가 취업할 곳이 없는 문제를 지적하며 공동일자리를 마련해 주거나 아니면 양육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시간제 일자리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례 4>의 경우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가 습득되지도 않았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근무조건이 좋지 않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은 가족과 개인의 성장에게도 좋은 방향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기에 한국어 교육을 이수한 자격증을 가진 여성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도 하고 있다.

<사례 4> 베트남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이미용 하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이 교육시키면 나중에 취직할 사람 얼마 없어요. 지난번 다문화센터 네일아트 자격증, 1급 자격증 다 땀거든요. 그 다음에 취직 하나고 하면 취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원래 단순한 일자리, 공장 같은 거는 본국 친구 끼리 알려주고……. 안 그러면 본인이 취직하고 싶으니까 가족, 남편이 직접 알아봐주는 경우도 많고. 그런 단순한 직장……. 다문화센터 통해서는 원래 그 다문화강사나 조금 안전한 일자리만 알려주고 공장 같은 거는 다문화센터는 알려주지 않아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정도는 취직할 수 있어. 시간 넘으면 취직하기 힘들다. 그냥 매우 자격증 따놓고 나중에 애기 크면 취직한다. 대부분 다 그런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일본, 필리핀하고 중국, 그 분들이 오래되신 분들 많아요. 학력도 있고, 그래서 그냥 시간 상관없이 그냥 학원 강사 같은 거는 많이 욕봐요. 한국어도 안 되는데 취업하려고 하는 여성들에게 지금 한국어 이수증 있어야 취직할 수 있다고 하는 자격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결혼 이민자 말고 뭐 회사나 사업자들이 그런 거 좀 협조해줘야 할 것 같아. 우리만 그렇게 하면, 회사에서 그럴 필요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되잖아.

<사례 13> 취업 관련 한 번 프로그램 보다는 기업이 있어야죠. 기업이 이곳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에 비해서 말도 저기하고, 이해력도 좀 떨어지니까, 직장을 잡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뭘 배워도 그걸 활용할 장소가 없으니까, 그게 아쉽더라고요. 취업 관련한 정책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죠. 이런 자격증 따도, 쓸 데가 없어요. 진짜로.

<사례 15> 훈련을 시켜서 필요한데다가 쓸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용을 해버리면 되자나요. 막말로 얘기해서 다문화 여성들 다 젊어요. 20대, 30대 여성들 많이 오잖아요. 그럼 그 여성들이 충분히 하계끔 사회생활에서 적응하게끔, 필요한 업체나 필요한데 쓸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주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막말로 얘기해서, 뭐 내가 이 사람한테 컴퓨터 같은 거를 이렇게 가르쳐줘서 도에서 뭐 특별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 없는 거 같아요. 만들어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없고, 내가 봤을 때는 뭐 자격증을 이제 따서 이 사람이 그 부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써먹을 수 있다면 괜찮은데…….

이후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 방안에 있어서 취업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지원 사업이 요구되고 있기에 현재 노동시장에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요구사항은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도가 높고 개인적 역량과 경제적 요구에 의해 일반 노동시장에 편입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는 괜찮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조건이 좋지 않은 곳에 취업한 여성들에게는 한국여성들의 경우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것처럼 이러한 방안을 적용시키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4. 농업에 종사하는 영농인력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대부분 가족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에 본인들도 농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모두를 농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영농인력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도시 근교의 농촌 지역 사례라는 점도 있었지만,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평균 경지면적은 0.47ha으로 상대적으로 영세한 영농규모를 보유하고 있다는 보고서(강혜정, 2009)²⁾의 결과에서처럼 아래 사례의 경우에도 영세농으로 인해 남편들도 농업과 농한기에 공장근로를 하거나 검직을 하는 사례들로써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사례 19> 논농사하고 밭농사해요. 남편이랑 같이. 그냥 먹을 만큼. 남편은 쉴 때 다른 일도 하고 그래요.

<사례 20> 아, 저희는 논농사 없으니까, 그냥 고추 그 콩……. 여러 가지……네. 많이는 아니지만……. 네……. 그리고 저는 그 토마토 닦는 거나 그 잎 닦는 거. 그것은 잠깐 했었어요. 돈을 벌어야 하니까.

사 례	직종	본국/국내 취업경험	취업교육	향후 직업훈련 분야
19 (일본, 고졸)	농업	공장근무	봉제기술	홈패션관련 자격증
20 (일본, 고졸)	농업	백화점 판매업	일본어 강사 자격증 보유	현재 봉제기술을 계속 습득 창업희망
21 (일본, 고졸)	농업	사무직	농촌이민여성센터 봉제일 배움	요리관련 교육
22 (베트남, 고졸)	농업	과일 장사	농촌이민여성센터 봉제일 배움	요리관련 교육

2) 2008년 11월 20일 ~ 12월 17일 전국의 농가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여성이민자 중 남편이 농업인인 이주여성 402명을 설문조사 한 자료를 이용한 조사로 조사의 모집단은 2007년 행정안전부의 국내 외국인 거주 분포를 기준으로 하여 전국 8개 도(7개 특별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 지역 내 도·농 복합시(시 지역 내 읍·면·동이 존재하는 지역)와 군 지역을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8개 도내 시·군 지역을 비례할당법을 적용하여 1차 선정한 후 해당 시·군 지역 내 읍·면·동 중 2개 마을씩 무작위 선정하여 각 표본조사지점 마을별로 8명씩(한국국적 미취득 국제결혼여성이민자 6명, 한국국적 취득 국제결혼여성이민자 2명) 조사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교통문제 등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건상 다양한 교육 기회의 경험에서 배제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이 지역에 농촌이민여성센터가 생겨나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 및 봉제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연구 참여자들은 이와 같은 교육에 만족도를 표시하고 있었다.

<사례 19> 저는 손으로 여러 가지 만드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 거 좋아했어요. 그전에는 다문화센터 그쪽에서도 비즈공예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못 배웠어요. 시간이 못, 아무래도 시간이 안 맞아요. 제가 버스타고 거기까지 가면 벌써 11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전화도 못하고 오는 건 똑같은니까 한 번도 연락을 안 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쉬웠죠. 시골에서 살다보니까 시간이 안 맞아서 애기 보내놓고 다시 여기까지 시내 안까지 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웃음)근데 여기에서 모여서 흥패션 이런 것 배우니까 좋아요.

<사례 20> 근데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어요. 시간도 안 맞았고, 바로 애기도 낳고……. 그런 여유가 없었고 그냥 집에서……. 집에서 그냥 뭐 일본에서 사온 책 하나만 가지고……. 그거 외우고 그것만……. 근데 센터에서 봉제기술도 가르쳐주고, 아직은 자기 자신이 아직 미흡하다, 그 기술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그 정도만……. 지금은 배우는 것에 만족해요.

<사례 21> 농촌이니까 뭐... 여러 가지 다, 여기 기술센터도 다녀보고 또 시내, 시내도 기술센터 있었던가? 그쪽에도 가보고 뭐 재배하는 방법이든지 뭐 트랙터 그것도 한 번 타보고, 그런 거든지 뭐 여러 가지 배우면서 여러 가지 했죠. 또 주말이면 애들하고 같이 어디 놀러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재미 있게 해주더라고요. 또 방학되면 애들 공부도 가르친다고 해주니까…….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 조사에 나오는 결과를 보면 도시보다 농촌지역에 사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취업할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촌지역은 불편한 대중교통 환경, 영유아 보육시설 부족, 상대적으로 많은 노인인구 등으로 취업 및 창업 관련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도시보다 더 많이 들고, 도시에 비교하여 여성들이 일할 만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농가보다 농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농촌이민여성센터처럼 여성결혼이민자를 상대로 봉제기술, 도배기술들을 가르쳐 주는 것에 매우 만족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었다.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향후 직업훈련 분야에 대해서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분야보다는 자격증을 보유할 수 있는 직업 훈련에 대해 요구하고 있었다. 이것은 현재 본인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취업이나 창업할 수 있는 자격증을 보유하고자 하는 이유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농촌에 거주한다고 해서 혹은 농업인 남편과 결혼하였다고 해서 모든 여성 결혼이민자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 농촌에서 직업 및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이들의 농촌 정착 의지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결국 농촌에 거주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농촌형 일자리 창출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자> 뭔가 내가 배우고 싶은데, 프로그램이나 가르쳐 주는 곳이라든가 그런 걸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시골에서도 그런 거를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례 21> 그렇죠. 그니까 면사무소나 뭐 그런 데……. 그런 데는 다 알잖아요. 어디에 어느 사람이 있는지 이주여성들이 있는지를 다 아니까, 또 면사무소 그런 데도 많이 신경써줬으면 하고 생각해요. 또 다른 뭐 우리 것도 교회에서 알게 되니까, 다른 시내에서도 잘 아는 언니도 많잖아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 또 이렇게 그만두면 좀 그러더라고 면사무소는……. 그니까 정보 같은 거 있으면 우리가 안 물어봐도 면사무소에서 편지도 주고, 아니면 문자도 주던지 이렇게 해줬으면…….

더불어 지역적 한계로 취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을 호소하면서 면사무소를 비롯한 공공기관을 통한 정보의 홍보도 요구하고 있었다. 이것은 현재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원 사업들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지만 홍보 부족과 기관 간 연결망의 부재 등으로 지원 서비스의 대상자들이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례들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영농활동 참여율은 높은 편이지만, 다수가 농업보조자로서 단순 농업작업에만 참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참여율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이주하기 전에 본국에서는 농업에 종사한 사례가 없었다는 이유와 함께 이들은 특히 한국의 여성농업인들이 영농활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함에 있어 느끼는 어려움을 대부분을 겪고 있어 체계적인 농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영농활동 활성화 지원이 이들의 농업노동 참여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 소결 및 시사점

전라북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 사례를 조사한 내용은 취업지원 사업에 참가한 경험이 있으면서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살펴보았을 때 취업 직종별 유형은 언어자원을 활용한 직종, 정부의 각종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 일반 노동시장에 편입된 사례, 농촌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영농인력들로 구분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취업 사례를 통해 현재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 상황을 살펴본 결과, 위의 4가지 취업 직종 유형별로 공통적으로 안정된 상용직의 조건보다는 단기 계약과 임시직에 머무르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와 평균 70-100만원 사이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의 질을 양적으로 분석한 결과들과 일치하는 면이 있었다. 그러나 노동조건은 마트의 판매직을 제외한 사례들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4대 보험과 노동시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언어자원을 활용한 직종과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의 조건이 시간제 일자리어거나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기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임금 수준이 적지만 노동시간이 적고 4대 보험(국적 미 취득시 국민연금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직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현재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본국에서의 취업경험이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왔으며 한국에서의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가 더 높은 취업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양적 결과에서처럼 본 연구의 사례들도 대부분 본국에서의 취업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취업 교육 훈련에 참여한 사례들로 한정되어 면접하였기에 모두 여성결혼이민자 취업교육 훈련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 취업교육 훈련을 통해 취업한 경우는 언어자원을 활용한 직종과 일자리 지원 사업 연계된 직종이지만 체계적인 취업교육 훈련 보다는 개인적 능력이나 단기 교육을 통해 일자리에 투입되고 있었다. 따라서 취업을 한 상태이지만 취업교육훈련에 대한 재교육과 한국어 능력을 더 강화해 줄 것을 연구 참여자들은 원하고 있었다.

통계적으로 보면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 중에서 현재 직종의 종사자가 과거 본국에서 해당 직종에 취업한 경험이 있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 취업하거나 취업한 경험

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신의 본국 인적 특성을 살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본 연구들의 사례에서는 재봉 일을 해본 사례를 제외하고는 본국에서의 직종과 연관성이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국에서의 인적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것과 함께 이주민들이 이주한 국가에서 본국에서 획득해 온 인적자본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학력과 한국어 소통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취업가능 직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농인력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인 경우 평균 경지면적이 0.47ha으로 상대적으로 영세한 영농규모를 보유하고 있기에 농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도시보다 농촌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취업할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촌지역은 불편한 대중교통 환경, 영유아 보육시설 부족, 상대적으로 많은 노인인구 등으로 취업 및 창업 관련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도시보다 더 많이 들며, 농촌에는 도시보다 여성이 일할 만한 일자리가 부족하여 비농가보다 농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농촌이민여성센터처럼 여성결혼이민자를 상대로 봉제, 도배기술 등을 가르쳐 주는 것에 매우 만족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었고, 향후 직업훈련 분야에 대해서는 바로 취업할 수 있는 분야 보다는 자격증을 보유할 수 있는 직업 훈련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것은 현재 본인들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향후 취창업할 수 있는 자격증을 보유하고자 하는 이유와 연관되는 것이며, 농촌에 거주한다고 또는 농업인 남편과 결혼하였다고 하여 모든 여성결혼이민자가 농업에 종사하기 보다는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 농촌에서 직업 및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이들의 농촌 정착 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결국 농촌에 거주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농촌형 일자리 창출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절 취업교육기관 및 고용기관 사례 분석

제2절에서는 현재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실제적 사례를 통해 취업교육과 취업연계, 경험 등을 분석하였다. 본 절에서는 취업교육기관과 고용기관의 사례조사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취업지원 교육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고용기관의 현황을 분석하여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업지원 교육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전라북도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관별 취업교육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에 대하여 교육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에 대한 면접을 시행하였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를 고용하고 있는 취업기관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여 고용하게 된 계기,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만족도, 훈련기회의 제공여부, 필요한 직무 교육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1. 취업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

전라북도 내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취업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주도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14개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였다.

우선 14개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으로 운영되는데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에 있어서 워크넷 등록 및 연계, 워크넷 설치 의무화, 그리고 취업기초소양교육을 필수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2011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취업연계 중심으로 운영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지도하도록 그 역할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경우 도 자체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도와 시·군비를 매칭하여 2011년부터 자체 취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2011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직접 교육을 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은 여성결혼이민자 100명을 대상으로 요리, 네일아트, 이·미용분야, 다문화이해강사, 가죽공예, 커피 바리스타 등 9개 직종 14개 과정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다. 실제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실무자들은 직업 훈련을 통해 바로 취업을 연계하고 실적을 내놓아야 하는 부분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

다. 이것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주변 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사례 30> 2008년이었나, 결혼이민자 숫자가 많지 않았을 때는 비즈공예나 우리가 아는 흔히 취미수준의 직업교육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10년도 부터였어요. 2010년도 같은 경우는 네일아트, 메이크업자격증 교육을 연간 한 4개월 단위로 2회 8개월을 했었고요. 2011년도는 네일아트와 메이크업을 했는데, 2010년도에 받았던 친구들은 미용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고 신규로 네일아트하고 메이크업 교육을 진행했었고요. 어린이 영어지도사라던가 스토리텔링 지도사 이런 교육을 저희가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리는 생각이 뭐냐면 이주여성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직업과, 우리 현실의 차이가 너무 크고, 직업교육을 시키면 이 돈을 준 기관인 국가나, 시, 도는 실적을 원해요. 적어도 너희가 돈을 그렇게 몇 천만 원씩 썼는데 30%는 해야지. 기준이 30%더라고요. 그러는데 이 직업교육을 취업까지 똑같은 직종으로 연계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거기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직업교육 안 시켜도 되니까 예산 지원금 몽땅 가져가라. 센터장 회의에서 그렇게도 나왔어요. 지금 현재, 얘기가. 그 정도로 심각해요. 왜 그러냐면 실적을 요구하니까 그래요.

취업교육기관의 실무자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취업교육에 있어서는 기술교육보다는 직업소양교육을 강조하고 있었다. 현재 6시간의 의무적인 직업소양교육이 포함되지만 직업소양교육의 시간을 늘리고 이에 대한 교육매뉴얼도 개발하여 제공해 주기를 원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개인적 능력이나 자격이 다양하고, 또 다른 문화권에서 살다가 이주해 왔기에 한국에서의 직업생활과 직업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보았다.

<사례 24> 직무소양교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걸 어느 직종에서 일을 하든 필요한 부분이고, 다문화센터 안에서는 기본적인 한국어교육이나 가족교육이나 기본소양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꾸준히 이수한 사람들이 나중에 구체적인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 때 내가 어떤 직업교육을 받을 것인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항상 일을 하면서 어려움에 처하는 부분은 일을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보다 기본적인 소양교육이 되어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것과 함께 직업을 가짐으로써 장기적인 내 생활의 플랜을 짤 수 있도록, 그게 확고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어떤 직종에서 하든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사례 30> 저희가 연간 다문화센터의 기본 사업 중에 직업소양교육을 6시간 이상 하라고 되어 있어요. 매년 6시간 이상은 해요. 그런데 저는 이 6시간이 나라의 사업을 채우기 위한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봐요. 각종 프로그램들, 이미지 메이킹부터 이력서 작성까지 해서 넣었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우리 전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말하자면 매뉴얼 같은 것 있잖아요. 대략 결혼이민자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 자기가 직업인으로서 가져야 할 직업의 탐색이라던가. 이런 과정을 넣어서 20시간 짜리 프로그램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도비지원이라던가 사업화해서 저희 다문화센터를 일 년 연중으로 강사 구성을 하셔가지고 편성을 해서 하면 좋겠어요.

<사례 28> 차라리 말씀하신 것처럼 의식교육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다문화센터에서 어쨌든 이주여성들 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된다면 저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진짜 바로 취업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만 개발해서 그거에만 집중해서 할 수 있으면 오히려 효과는 더 높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한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상담을 해주고 이들을 직접 고용기관과 연계해 주고 있는 고용지원센터의 직업상담사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한국어 습득임을 강조하였다. 취업을 위해 취업을 시켜주려고 해도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것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실무적인 취업교육을 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언어 교육에 집중해 주기를 요구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실무자들은 경제적 여건으로 취업하고 싶어 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하여 작업장 내에서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사례 23> 그런데 사업장에서 가장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직무 향상 교육 이런거 아니구요. 저는 구인업체하고 가장 많이 상담을 하고, 구인업체 면접을 볼 때 외국분들 많이 오는데, 이주여성들 많이 오는데 정말 그 분들 언어가 안되요. 솔직히 한국말만 통하면 다 채용의사 있어요. 그런데 한국말을 몰라요. 단순한 그 한국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 기술 같은 거 가르치면 배워서 다 일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일을 할 줄 알아서 가는 사람은 드물어요. 가서 다 배우잖아요. 무엇보다 한국말을 다 해야 되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사업장에서 지금 취업을 높여달라고 한다고 하시죠. 말만 잘하면 다 되요.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취업시켰던 분들도 언어, 저는 그것만 되면 취업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너무 열의가 좋아서 말이 안 되는데도 취업이 됐어요. 그 속옷 포장하는 곳인데, 여자분들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90A, 90B를 구분 못해요. 그거 정말 단순한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근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사례 25> 다문화센터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해줘야 할 게 언어거든요. 언어가 됐을 때 저희 같은 교육기관이 그 언어가 된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취업연계하는 교육으로 가야 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쪽에서도 사업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 안 되시고, 저희도 그 다 안 된 분들을 데리고 또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사례 27> 이 분들이 취업이 되도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 한국어 교육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분들은 한국어가 안 되는 데도 취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우리가 말린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국어는 6개월은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취업을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말해요. 6개월 정도는 한국어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도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취업교육이 된다면요. 하나의 기초소양교육으로도 들어가고, 집단상담도 들어가고, 그 안에 한국어 시간도 꼭 같이 들어가서 이게 같이 병행이 돼서 간다면 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이민자의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지도하기로 되어 있는 새일센터에서는 직업훈련을 마치고 취업연계를 시키는 데에서의 어려움을 제기하였다. 즉 산업체의 수요를 예측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취업을 연계시키고 있지만 여성결혼이민자의 언어적 소양이 부족해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함께 결혼이민여성인턴제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대상자를 이용하여 지원금을 타려고 하는 문제들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사례 25> 국가사업이. 국가사업의 기준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는 지금 계속 도 사업은 성장목표를 20%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 수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이런 거예요. 그래도 좀 언어를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하지만, 그래도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힘든 거예요. 정말 한국인들 대상으로는 1시간이면 교육할 게 이주여성의 경우 4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또 섬유봉제를 했으니까 그걸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술은 또 배워온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는 안 되도 기술은 빨라요. 그러니까 저희도 소양교육을 먼저 준비하고 직업교육으로 가는 데도, 그게 물론 그 과정 과정에 신뢰를 쌓아서, 지금도 전화가 오고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데 정말 이 분들이 그 과정만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죠. 교육프로그램은 그런데 산업체 수요에 따라 수박에 없기 때문에 제조업으로 가는 거고 제조직에서는 어느 수요가 가장 많은가를 따르기 때문에 섬유봉제로 가는 거고.

저희 나름대로는 이런 고민을 해요. 5년 뒤에도 섬유봉제쪽으로 이 분들이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걸 수요를 예측 해야 하는 게 저희 쪽에서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진행을 본다면, 생각을 해야 될 게 따로 있다는 거죠.

저희도 여가부에서 자체사업이 있어요. 새일기관도 50만원을 지원을 해줘요 인건비를. 국가사업들이 쏟아져요. 기업들에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주여성을 채용하면 또 다른 어떤 혜택이 있고, 탈북여성을 채용하면 최대 2년간인가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전라북도 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도내의 취업 기관들과 연계한 실무적인 취업교육기관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여성결혼이민자의 직업소양과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취업교육 진행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기업체들이 결혼이민여성인턴제를 비롯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를 이용하고 있는 점의 문제점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와 취업소양교육을 진행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요구하고 본 센터는 사업체로 바로 연계할 수 있는 기술교육을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전라북도의 경우는 도 자체 예산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취업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중복되는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2년도에 다문화가족지원센

터에서 운영할 직업훈련프로그램은 총 25개 과정으로 이 가운데 요리, 이·미용, 다문화 및 다국어강사 양성 과정, 컴퓨터 자격증 취득, 산모도우미 양성, 병원코디네이터, 지역관광통역해설사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신설되었고, 전북지역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개소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 원어민 강사 과정과 신소재 패션메이킹, 다문화가정멘토 관리자, 의류디자인 맞춤형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으로 서로 중복되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도자체 내에서 운영되는 직업훈련프로그램에 대해 성과 평가를 시행하여 이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취업연계의 성과 및 한계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을 제공하는데 있어 기관 실무자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취업연계 성과가 낮다는 것에 있다. 실제로 2011년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한 직업훈련교육의 결과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후 취업한 사례는 33명이었다. 그러나 직업훈련교육과 연관된 직종에 취업한 사례는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50명의 여성결혼이민자를 결혼이민여성인턴제를 통해 교육시키고 취업을 연계하였는데 현재 취업한 인원은 28명 정도로 나타났다.

취업연계의 성과가 적은 것은 근본적으로 진행하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례처럼 이들의 출신국가나 한국어 수준, 개개인의 학력 등의 차이를 고려해서 세부 집단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고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여성결혼이민자라는 동질성을 상정한 채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교육 대부분은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어가 서툰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특징 정도만을 고려해 시간을 다소 연장하거나 실습비중을 높이는 식으로 일부 내용을 조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방식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결혼이민자가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습득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취업연계로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근원적 한계를 지니게 되고, 따라서 이직율도 높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경우 취업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문적 강사풀이 적고 취업교육 경험이 없음으로 인해 교육 운영상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었다.

<사례 27> 다문화 교육생이 모집이 잘 되는 과정으로, 가만히 앉아 있어도 교육생이 많이 오는 과정이 바로 미용이나 네일 이런 쪽이더라구요. 그런데 실제 취업까지 연계되는가를 봤더니 일반 한국여성들이 다문화여성들이 머리를 감겨주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꺼려하고 좋아하지를 않아서……. 그런데 저희도 어떻게든 교육과정을 열어야 하니까. 다문화 쪽을 한 과정은 열어야 하거든요. 지침이 내려와서, 열어야 하니까 교육과정을 열기는 하는데, 저희도 버리면서 가는거죠. 아, 이 과정을 크게 성공하기는 힘들겠다. 성공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열기는 해야한다.

<사례 28> 작년에 저희도 한식조리 프로그램 할 때 일반여성들에 비해 3배의 시간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무한반복하면서……. 실상은 지금 저희가 제조업 맞춤형 인력 양성한 것이 이주여성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지금 교육생 모집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여서 기본적으로는 이주여성을 배제하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주여성한테도 맞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육과정에서 현장실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140시간이거든요. 그 140시간 안에 앞쪽에 현장에서 이론교육하고 실무교육이 80시간이고요, 그 나머지 60시간이 직무소양교육, 이미지교육, 서비스마인드교육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 교육과정을 짜면서 업체의 의견을 듣고 사업구성을 하는데, 업체에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서 이직율이 높기 때문에 이직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때문에 앞뒤로 뽁뽁하게 교육을 넣었어요.

<사례 30>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해야될 일은 기초적인 부분에 교육이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강사인력풀은 직업쪽으로는 많지 않다는 거죠. 다문화이해강사나 가족통합교육 이런 쪽으로는 강사들이 많지만, 강사진을 인력풀화 할 필요가 있고요, 표준화할 필요가 있고요.

한편 취업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연계의 성과를 얻어야 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대안적 모색으로 사회적 일자리나 사회적 기업으로 취업교육 수요생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았다. 이와 같은 방법은 한국사회의 직업세계를 직접 경험하면서 현장 훈련을 체득하는 과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 연계 방안도 사회적 기업이나 일자리 지원 사업이 정부의 예산이 중단되면 이윤을 창출하여 수익을 올리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운영하는 기관으로서는 재정적 부담감을 가지게 되므로 안정된 일자리로 삼기에는 그 한계를 보인다.

<사례 30> 아니 저희가 무슨 기업주냐고요. 여기 지금 장사가 안 되어가지고 작년에도 몇 백만 원 밀어 놓고 돈 못 벌여가지고 일년을 고민을 하고, 저희가 축제 때 아침 7시부터 나와 가지고 밤 12시까지 일주일을 장사를 하고요. 저희 다문화센터 전 직원이요. 인건비 한 푼도 못 받고, 대체휴무 한 번도 못 받고, 창업이 쉽지 않은 문제예요. 사회적 기업을 하게 되면 모자라는 부분은 고용주가 채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사회적 기업에서 인건비가 100%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4580원 기준으로 해서 자기네들 인건비를 주고요. 우리는 최저임금으로 해서 105만 원 정도를 주게끔 되어있어요. 그럼 4580원 한달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략 89만원, 93만원 나오면, 자기네들은 거기의 90%를 줘요. 그러면 70만원, 80만원 주는데, 우리는 105만원을 줘야 되요. 그럼 그거 만큼을 더 벌어야 하니까, 그래서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다 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창업은 정말 신중히 해야 돼요.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교육프로그램이 취업연계의 성과를 얻기 어려운 점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적 역량과 함께 취업에 대한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도 작용되고 있으며 개인적·가족적 차원의 요건을 갖추어도 직업세계에 대한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쉽게 중단하는 경우가 많음을 교육담당 실무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직업소양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구체적인 직업훈련프로그램에는 내용과 방법이 고민되지 않고 있음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사례 24> 저희 센터에는 여성이 일을 하는 경우에 가족 갈등이 훨씬 더 많아요. 집에서 살림하다가 본인이 일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가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성이 일을 하면, 우리는 일을 하면 내가 벌어서 온 가족이 함께 잘 먹고 잘 살자 라는 개념으로 일을 하는데 이주여성의 개념은 조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족의 입장도……, 왜냐하면 다문화가족의 특성상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져서 취업 장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이게 그런 것들이 균형을 자치하면 일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 25> 저희가 섬유공장에 일할 여성들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연결을 했어요. 전체인원 20명을 모집해서 운영했어야 했는데 모집이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많이 도와주셨는데도 모집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완주군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픽업까지 다니면서 해야했고, 하다보니까 이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로 의사결정을 남편분들이 하세요. 가정이 있는 분들은.. 그런데 항상 수당 이야기를 해요. 수당 얘기의 문제점이 있었고요.

<사례 26> 다문화센터는 취업기초소양교육이라고 해서 매년 하계끔 되어 있어요. 기본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나라 일자리 분위기, 회사의 분위기를 말씀해드리고 그런 분들이 취업을 하계끔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편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연계에 있어서 각 기관별 네트워크의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적인 여성취업교육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교육생을 모집·의뢰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 이것은 각 기관별의 실적으로 산정되어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또 전문 취업교육 기관은 교육대상자 선정의 한계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같은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사례 26> 그리고 2010년부터는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구나. 거기서 이주여성들에게 봉제기술을 가르쳐줘서 취업처와 연결이 되게끔. 그건 처음에는 참 좋았어요. 2010년도에는 그 분들이 돈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서 구직활동할 때 돈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기술도 배우고 돈도 받는다고 하니깐 좋아해서 그걸 했고 2010년도에는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작년도도 했었고 올해도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지금은 기술을 배울 때 돈을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20명을 모집하거든요, 3월 한달 내내 20명을 모집했는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7명 모집했거든요.

<사례 27> 저희는 2008년부터 계속해서 영어강사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센터 안에 영어강사사업단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6명의 선생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국가에서 지원받는 사업에 주로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교육과정을 개설해도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센터에서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아 내년에 또 있다, 올해에 또 있다 입소문을 내서 그 분들이 오는 거지……. 그리고 또 그 분들이 오면 이분들이 정말 강사로 활동할 만한 소양을 가지고 계신건지 알 수가 없어요. 판단이 안서요.

이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연계와 연관된 기관들은 실제적인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방안이 나오기를 요구하였다. 각 기관들은 교육대상자로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수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 연계를 단계적으로 수행하면서 단계별로 각 기관들의 역할³⁾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3) 취업관련 기관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보고서를 통하여 기관의 역할의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을 것이다(양인숙외, 2010).

구분	고용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직업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 다양한 구인업체 정보 확보 - 취업지원금 제도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취업 상담, 프로그램의 전문성 - 여성의 직업의식 및 직업훈련 경험 축적 - 여성구인업체 정보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에 대한 경험 및 상담 전문성 -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접근성 높음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에 대한 경험 전무, 상담의 전문성 부족 - 결혼이민자 관련 법제도 이해 부족 - 결혼이민자의 접근성 정도 매우 취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에 대한 경험 및 관련 법제도 이해 부족 - 결혼이민자 직업상담 전문성 부족 - 여성결혼이민자의 접근성 정도 취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상담의 전문성 부족 -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 전문성 부족

<조사자> 그럼 이런 대안은 어떤가요? 취업지원하는 기관들의 정기적인 협의체 같은 것을 통해서 서로의 그런 정보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트워킹을 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정말 이게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례 27>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연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소양교육이라던지 그런 교육이 들어갈 때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할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다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진다면 거기에서 나온 수요를 가지고, 저희 같은 인력개발센터에서 그 수요를 가지고 교육과정을 개발해내고 취업처를 발굴해내고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요?.

<사례 30> 새일지원본부도 있고 직업을 알선하는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문제는 거기를 가면 이 선생님들은 결혼이민자 입장에서 알선을 안 하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알선을 해준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결혼이민자들이 이 선생님을 신뢰를 잘 안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왜 다문화센터에서 취업알선도 하고 취업교육도 하고 다 하냐고 남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희도 일이 많아서 하기 싫어요. 그런데 결혼이민자들은 처음에 와서 저희를 만났고 저희를 지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픈마인드가 되요. 그럼 저희가 어떤 직업을 소개하면 관심은 줄 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도 여성회관에 새로일하기 이렇게 해서 알선해주는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통해서는 잘 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어떤 식으로 업무를 지역의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으로 이 업무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인 것 같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 끌어안고 가는 것은 너무도 힘들고, 그런데 이주여성은 무슨 일만 있으면 다문화센터에 선생님을 찾고 이렇게 되니까.. 저희도 현재는 올해 센터에 새로운 종사자가 한분 내려왔어요. 상담사라고 해서, 사실은 다문화가족의 갈등과 뭐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 밑에 보이지 않게 취업적인 상담도 필요하니까 그 업무를 상담사한테 주긴 했어요. 그래서 결혼이민자 특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취업전문기관에 알려드리고 그리고 거꾸로, 역으로 우리한테 직업교육이나 이런 부분 직업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이 쪽 기관들이 전문가잖아요. 서로의 정보를 나눌 수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직무소양교육의 표준화, 표준안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장 오랫동안 현장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과 함께 하며 체험해 왔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특성과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직업소양교육을 강화하는 역할과 취업하는데 가장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되었다. 한편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실무자들은 직업소양교육에 필요한 내용과 강사진의 인력풀이 한정되어 있기에 취업교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직업소양교육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기존 일반여성들의 교육프로그램에 시간을 연장하고 실무교육 위주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이들의 특성을 감안하면서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이 취업연계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고안이 요구되어졌다. 출신국, 학력, 한국어 실력, 그리고 출신국에서의 직업경험들을 고려한 세부적인 교육프로그램 안이 개발되면서 지역의 수요처인 기업의 요구도 반영될 수 있는 다층적인 측면들을 감안한 취업교육프로그램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각 기관의 연계가 단절되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없었던 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대한 대안책이 요구되었다. 그 대안으로는 형식적인 지원네트워킹을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차원으로 발전되는 안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3. 고용기관의 여성결혼이민자 채용결과

여성결혼이민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이 여성결혼이민자를 채용하게 된 계기,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만족도, 고용상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 등을 심층면접을 통해 알아보았다.

사례	고용기관	채용현황	기관 성격/인원
31	자활센터	자활사업운영/3년	자활사업 운영 8명 채용, 9명
32	미용실	여성결혼이민자 채용 4개월	취업교육프로그램 지원 경험, 1명 채용
33	공공기관(시청)	여성결혼이민자 계약직 채용	여성결혼이민자 계약직 공무원 채용
34	섬유업	결혼이민자인턴제 채용/2년	여성교육문화센터 연결 수시 채용, 220명
35	섬유업	결혼이민자인턴제 채용/2년	여성교육문화센터 연결 수시 채용, 30명
36	제조업/재활용업	결혼이민자인턴제 채용/2년	여성교육문화센터 연결 수시 채용, 23명
37	무역업	무역협회의 추천으로 채용	통역원으로 1명 채용, 화장품 무역 5명

민간기관으로 여성결혼이민자를 고용한 업체는 <사례 34>, <사례 35>, <사례 36>의 경우로 <사례 34>와 <사례 35>의 업체는 결혼이민여성인턴제로 여성결혼이민자를 채용함으로써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을 활용하고 있었다. 두 업체는 섬유업체로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를 채용하게 되었고, 퇴사인력을 보완해 주기 위하여 여성결혼이민자를 채용하게 되었다. 섬유업 계통이라 수습으로 3개월 정도의 기술을 배우기 때문에 특별한 모집 기준은 없었다. 근무조건은 4대 보험 적용과 9시에서 저녁 7시 정도의 근로조건을 갖고 있었다. 여성결혼이민

자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지만 개인별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일의 속도가 느리고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렵고 일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한편 이들을 고용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조퇴나 결근율, 이직율이 높은 것을 뽑았다. 더불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 그리고 직업의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섬유업계의 퇴사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인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노동수요는 계속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사례 34> 이주여성들을 채용하게 된 배경은 뭐냐하면 여기 다른 한국인, 순수한 한국인을 고용하려고 하면 젊은 분들이 없어요. 주로 나이 많은 분들 밖에 없고, 또 그래서 새로 교육을 시키려면 젊은 여성이래야 좀 빨리 배우고 그래서 젊은 여성을 찾다 보니까 또 그 다문화 여성들이 가장 젊잖아요. 보통 뭐 20대이고…….

만족하다기 보다는, 개중에 20~30%는 만족해요. 일도 잘하고, 잘해요. 그런데 또 사실은 시간만 때우고 배우는 속도도 느리고 모든……. 그 배우는 속도가 느리면 일하는 속도도 느려요. 문화도 틀리고 그래가지고 개념도 좀 없어요. 저희가 하다가 제일 어려움이 뭐냐하면 나 베트남에 한달 간 휴가 갔다와야 된다 이려고 그냥 가버린단니까. 우리는 시스템이 라인 작업이에요. 1번부터 20번까지면 20명이 착 앉아서 차례차례 거쳐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싹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빨 빠진 것 같이 라인이 연결이 안 되어버리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그래도 퇴사 인원으로 젊은 외국인 여성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언어나 직업교육 이런 게 필요하구요.

<사례 37>의 경우에는 무역협회와 연결하여 무역 통번역 교육을 받은 여성결혼이민자를 취업한 사례로 베트남 현지와 연결하여 화장품 무역을 하는데 여성결혼이민자가 중간 역할을 하고 있었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실제로 현장에 투입하여 무역 업무를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 되었고 이후 재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자활기관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 <사례 36>의 업체 경우에는 위의 두 업체처럼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알선으로 여성결혼이민자를 채용하였는데 생산능력이 뛰어나 계속 고용하게 되었고,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만족도는 개인별로 다소 능력에 차이가 있으나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업체도 여전히 여성결혼이민자의 결근율과 조퇴가 높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민간기관의 업체에 고용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일반적인 지적 사항으로 앞서 취업교육기관과 연결하여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직업소양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례 36>의 업체도 재활용품을 분류하여

수출하는 기관으로 특별한 직업훈련을 요하는 직종은 아니었고,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현재 자활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 31>의 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자활사업단에 참여할 여성결혼이민자를 모집하였고, 대상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 내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홈페이지와 관련된 리폼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 강사가 직접 사업체를 방문하여 일주일에 두 번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자활센터에서는 자활기관의 특성을 살려 공동체 일자리를 농촌사회에서 만들어 내고 그 중심에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을 살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보고 있었다.

<사례 31> 기본적으로 그냥 한국어랑 컴퓨터만 해도, 그 정도면 괜찮을 거 같아요. 저희는 이미 자활 사업을 만들어왔으니까. 그걸 충분히 좀 활용을 해서, 농촌지역에 많이 있으니까 자활사업. 어느 곳이라도 하나 있으니까요. 자활사업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저소득층계층이지만, 저소득 계층이 자활사업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다문화 쪽은 특별대상으로 묶여가지고 자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면 안될까요? 자활사업은 말 그대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저소득이 자활이지 왜냐면 이분들이 저소득은 아닐 수 있지만 취약계층이거든요. 취업에 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활에 초점을 맞추자고, 소득에 초점을 말고, 자활에 초점을 맞춘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여기 다문화에다 아니면 다문화 뭐 취업 관련 센터를 만든다면지 아니면 그래야 되니까. 그건 또 취업연계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소득 자활에 저소득만 말고 자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니까 직원을 또 안 만들어도 되니까. 괜찮은 거 같아요.

한편 <사례 33>은 공공기관에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하여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를 채용하게 된 계기와 어려움 등에 관하여 면접을 실시한 것이다. 관계 공무원은 여성결혼이민자를 외국인 공무원으로 채용하게 된 계기에 대해 관내에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살피고 정책을 만들어 보자는 차원인 것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적 차원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피동적인 자세로 일을 처리하고 있기에 본인은 업무를 하나 더 맡은 것이며, 여성결혼이민자가 대졸 출신이라 하더라도 행정업무를 맡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었음을 언급하였다. 더불어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지원되는 정책의 중복성과 그들 스스로 설 수 없게 만드는 정책의 다중적인 수혜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사례 33> 전 우리 시장님이 A를 그렇게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A의 어떤 그 안목이 들어간 정책을 입안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시고 하신거란 말이에요, A를. 근데 그 부분이 A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런다고 해서 제가 계속 A를 서포터즈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제일 처음에 책을 만들 때에도 저한테 일을 달래요. 근데 솔직히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꾸 일만 달라고 옆에서 보채는 거야, 나는 바빠 죽겠는데. . 내가 'A, 우선은 배워야 돼. 자기가 배워야지 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저기 있는 자료들 막 그 캐비닛 가니까 이런저런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 공부하라고. 일단 공부하고 그 다음에 A가 이제 그렇다고 생각한 게, 'A, 자기가 그동안에 있으면서 어려웠던 점이 뭐였던 거 같아? 그걸 한 번 발췌해봐.' 내가 그랬어요. 쪽 나열해보라고 그냥. 근데 결혼이민자를 비롯해 다문화정책이 쏟아진다고 봐요,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취업에 있어서도 여성들이 가정이 잘 정비되고 아이도 키우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A도 대학을 나왔다고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열까지 다 가르치고 있어요.

기술 관련직과 관련하여 여성결혼이민자가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미용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서 여성결혼이민자를 고용한 미용실 원장에 대하여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사례 32>의 미용실 원장은 미용실협회 회장을 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미용 교육을 의뢰받으면서 여성결혼이민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미용실 원장은 현재 미용업계의 경우 업종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며,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배우고자 한다면 충분히 취창업할 수 있는 업종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해 그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고 지속적으로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이들에게 필요한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인간에 대한 신뢰성과 함께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직업의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이·미용은 기술 직종이기에 본인의 재주와 노력 여하에 따라 취업과 창업이 가능한 직종이라고 여겨진다. 실제로 현재 미용실에 취직해 일 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는 재능과 자격을충분히 갖추고 있기에 자신의 일에 대해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다고 하였다.

<사례 32> 내 생각에는 이게 타항에 나와서 있다 보니까 두려움 같은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직업에 대해서 몰라서라기보다는. 그렇잖아요. 항상 이들은 편안한 일상이 아니고, 항상 이렇게 얼음 밧을 걷는다고나 할까? 자기들이 어떤 위태로운 위치에 처할까봐서.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혜택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그런 얘기도 해요. 너희들이 받는 혜택, 우리나라에도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다. 근데 저 B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일도 없죠. 자기가 막 일도 손수 하려고 그러고. 이들에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대한 인간성,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마음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문화가족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마음, 신뢰성 그런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코 그러지는 않는다 라는 것들을 많이 주입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때 여기 다문화 여성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도 본인이 못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종합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를 채용한 고용기관은 대체로 인력난과 정책적 의도, 사업추진, 개인적 구인난 등으로 여성결혼이민자를 채용하였고 현재 채용한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공장근무인 경우 조퇴와 결근, 그리고 잦은 이직율이 작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이것은 현재 취업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 교육에 있어서 직업소양교육의 부족으로 간주되며 향후 직업훈련프로그램에 더 강조될 분야로 여겨진다.

전반적으로 취업한 분야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측면이 나타났고 가장 기본적인 한국어와 직장문화교육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으로는 각 분야별로 인력난의 문제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기에 향후 노동수요에 있어서 이들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해당하는 여성결혼이민자는 앞으로 지역사회의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인적자원에 대한 역량개발과 직업소양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기간의 임시직에 머무르는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에 머무를 수 있는 한계가 고용기관과의 심층면접에서 나타났다.

4. 소결 및 시사점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전라북도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관별 취업교육프로그램의 운영 현황과 취업기관에 대한 면접을 통해 정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기관별 취업교육프로그램의 전문화와 연계성의 문제, 고용기관의 여성결혼이민자의 만족도의 차이, 그리고 취업교육에 있어서 직업소양 교육의 강조로 요약되어진다.

현재 전라북도 내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취업상담과 연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라북도는 도 자체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2011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취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2011년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한 직업훈련교육은 여성결혼이민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후 취업한 사례들은 33명이었다. 그러나 직업훈련교육과 연관된 직종에 취업한 사례는 더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전북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50명의 결혼이민여성인턴제를 교육시키고 취업을 연계하였는데 현재 취업한 인원은 28명 정도로 나타났다. 도에서는 2012년도에도 예산을 증감하여 25개 과정, 200명을 교육 대상으로 하여 직업훈련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실무자들은 전라북도 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직업훈련에 대해 취업을 연계하고 그에 대한 실적을 내놓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주변 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취업교육에 있어서 기술교육보다는 직업소양교육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현재 6시간의 의무적인 직업소양교육이 포함되지만 직업소양교육의 시간을 늘리고 이에 대한 교육매뉴얼도 개발하여 제공해 주기를 원하였다.

한편 취업상담을 하고 직접 고용기관과 연계해 주고 있는 고용지원센터의 직업상담사의 경우에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보다 한국어 습득임을 강조하였다. 취업을 원하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취업을 시켜주려고 해도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실무적인 취업교육을 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언어교육에 집중해 주기를 요구하였다.

한편 취업 훈련프로그램과 연동한 취업연계가 근본적으로 적은 것은 진행되는 취업훈련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례처럼 이들의 출신국가나 한국어 수준, 개개인의 학력 등의 차이를 고려해서 세부 집단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고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여성결혼이민자라는 동질성을 상정한 채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것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교육 대부분은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어가 서툰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특징 정도만을 고려해 시간을 다소 연장하거나 실습비중을 높이는 식으로 일부 내용을 조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방식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결혼이민자가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습득하는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취업연계로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근원적 한계를 지니게 되고, 당연히 이직율도 높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연계에 있어서 각 기관별 네트워크의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전문적인 여성취업교육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교육생을 모집하고 의뢰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 이것은 각 기관별의 실적으로 산정되어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또 전문 취업교육 기관에서는 교육대상자 선정의 한계로 인해 유사한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상황이 나타나 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연계와 연관된 기관들은 실제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이 나오기를 요구하고 있었다. 각 기관들이 교육대상자로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수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 연계를 단계적으로 수행하면서 단계별로 각 기관들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여성결혼이민자를 채용한 고용기관은 대체로 인력난과 정책적 의도, 사업추진, 개인적 구인난 등으로 여성결혼이민자를 채용하였고 현재 채용한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공장근무의 경우 작업현장에서 조퇴와 결근, 잦은 이직율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이것은 현재 취업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 교육에 있어서 직업소양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로 간주되며 향후 직업훈련프로그램에 더욱 더 강조될 분야로 여겨진다.

전반적으로 취업한 분야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측면이 나타났고, 가장 기본적인 한국어와 직장문화교육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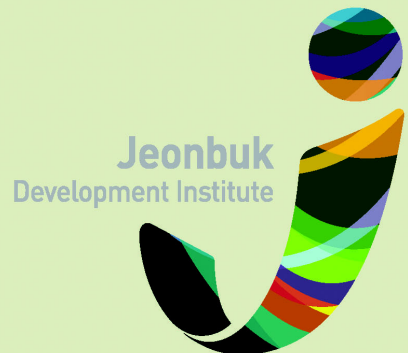
으로 평가되었다. 한편으로는 각 분야별로 인력난의 문제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기에 향후 노동수요에 있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들의 인적자원에 대한 역량개발과 직업소양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단기간의 임시직에 머무르는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고용기관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드러났다.

제4장

결론 및 정책과제

제 1 절 연구결과 논의

제 2 절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제 4 장 결론 및 정책과제

제 1 절 연구결과 논의

본 연구는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의 의미를 이주자의 사회통합 논의에서 경제적 통합 차원으로 바라보면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현황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특성, 고용 및 취업교육실태를 사례 중심으로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취업 지원 방안을 체계적이면서 지역밀착형으로 제안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2009년에 실시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일반적인 인구학적 특성, 취업현황과 취업의 질 등을 양적 자료로 분석하였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중에서 취업교육프로그램을 받거나 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취업한 취업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취업직종 유형별 특성을 정리하였고 고용기관, 그리고 취업교육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취업 교육지원 및 고용실태를 파악하였다.

1.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현황과 취업의 질(Quality)분석

2009년에 실시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한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률은 33.3%이고, 여성결혼이민자가 취업한 직종을 보면 서비스 종사자가 24.6%, 기타 단순 노무자 20.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17.7%의 비율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를 보면 임시근로자가 38.9%, 상용근로자가 23.5%, 일용근로자가 13.3%의 순으로 나타났고 무급가족 종사자가 4.3%로 전국 단위의 2.4%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며 이는 전북의 특성상 농업종사자와 연관하여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월평균 근로소득은 50-100만원 미만이 51.3%(전국은 49.7%)를 차지 하여 낮은 저임금 일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취업 희망은 88.2%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직종별 주당 근로시간을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종사자가 41-70시간에 33.1%, 71시간 이상에 30%, 기타 단순 노무자의 경우에 41-70시간에 49.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24시간 미만에 58.3%의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직종별 주당 근로시간 41-70시간이 34%를 차지하여 앞선 본 월평균 근로소득과 연관된 분석을 해 보면 여성결혼이민자는 저임금과 장시간의 열악한 일자리에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 특성별 취업 상태를 보면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이 45.5%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어 능력에 있어서도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취업하고 있는 비율도 높은 상태였다. 본국에서의 취업경험과 취업 상태를 보면 현재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본국에서의 취업경험이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왔으며 한국에서의 직업훈련 참여 경험도 참여한 경우가 더 높은 취업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출신국에 있어서 취업 상태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들의 거주기간과 학력을 비교해 보았을 때 북미, 유럽 출신과 필리핀 등이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았고 거주기간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출신들이 높은 것과 연관되었다.

다시 말해 출신국에서도 학력과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이들의 취업상태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이고 있었다. 현재 전라북도에 있어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 비율이 20-29세에 40.5%에 이르고 이들의 거주 기간이 짧고 중학교 이하의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은 이들에 대한 인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2. 사례 분석을 통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직종별 특성

전라북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 사례를 조사한 내용은 취업지원 사업에 참가한 경험이 있으면서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살펴보았을 때 취업 직종별 유형은 언어자원을 활용한 직종, 정부의 각종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직종, 일반 노동시장에 편입된 직종, 농촌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영농인력들로 구분될 수 있었다.

언어자원을 활용한 직종은 현재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취업한 직종에서 가장 가

시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취업 직종이었다. 이는 정부지원의 형태로 공공일자리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통번역사, 시간제 시급의 다문화강사, 그리고 언어지도사 과정을 거쳐 공공과 민간부문의 중간 지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언어 강사들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 실제로 수요 될 수 있는 수요처 확보와 언어자원에 대한 재교육의 과정이 요구되는 직종의 한계점도 보이고 있었다.

한편 정부가 취약계층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지원 되는 사업에 여성결혼이민자가 참여하는 경우로는 본 연구의 사례조사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되는 다문화 음식점의 보조요리사, 마을기업 지원을 받아 농촌형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려는 다문화부티크의 의류수선사, 그리고 자활공동체사업에서 참여하는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자리의 성격상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렵지 않고 4대 보험의 혜택을 가진 괜찮은 노동조건을 가지고 있는 일자리로 평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 지원 사업에 관련된 직종은 지원 사업의 예산이 끊어질 경우에 사업이 중단되어야 하는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예비 사회적 기업이든 마을기업 사업단이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과 비영리사업을 분리 운영하지 못할 경우 사업의 지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편 다른 직종들과 달리 이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취업훈련교육이 3-6개월간 단기성 교육에 머무르고 자활사업단인 경우 일을 하면서 사업기간에 일을 배우고 있기에 단순히 취업 역량만을 키운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일반 노동시장에 편입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전북 여성결혼이민자의 다수가 취업하고 있는 직종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서비스 종사자가 24.6%, 기타 단순 노무자가 20.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17.7%의 비율로 나타난 것처럼 판매직이나 공장 근무직에 머무르면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근무조건에서 일하고 있었다. 한편 노동시장에 편입된 미용사와 계약직 공무원 같은 사례는 개인적 능력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이나 네트워킹을 통해 취업한 사례들로 취업사례에 있어서 좋은 예가 될 수 있고, 이들은 자기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요구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도가 높고 개인적 역량과 경제적 요구에 의해 일반 노동시장에 편입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는 괜찮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노동조건이 좋지 않은 곳에 취업한 여성들에게는 한국여성 가운데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는 방안처럼 이를 적용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취업 사례를 통해 현재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 상황은 4가지의 취업 직종 유형별로 공통적으로 안정된 상용직의 조건보다는 단기 계약과 임시직에 머무르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와 평균 70-100만원 사이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의 질을 양적으로 분석한 결과들과 일치하는 면이 있었다. 그러나 노동조건은 마트의 판매직을 제외한 사례들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4대 보험과 노동시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것은 언어자원을 활용한 직종과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의 조건이 시간제 일자리거나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기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임금 수준이 적지만 노동시간이 적고 4대 보험(국적 미취득시 국민연금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직종에 대한 만족도를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한편 현재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본국에서의 취업경험이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왔으며 한국에서의 직업 훈련 참여 경험도 참여한 경우가 더 높은 취업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양적 결과처럼 본 사례들도 대부분 본국에서의 취업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취업 교육 훈련에 참여한 사례들로 한정되어 면접하였기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모두 취업교육 훈련 기회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취업교육훈련을 통해 취업한 경우 언어자원을 활용한 직종과 일자리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직종이 많았지만 이 또한 체계적인 취업교육훈련 때문이라기보다는 개인적 능력이나 단기 교육을 통해 일자리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취업을 한 상태이지만 취업교육훈련에 대한 재교육과 한국어 능력을 더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원하고 있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 중에서 현재 직종의 종사자가 과거 본국에서 해당 직종에 취업한 경험이 있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취업하거나 취업한 경험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신의 본국에서의 인적 특성을 살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본 연구의 사례들에서는 재봉 일을 해본 사례를 제외하고는 다수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본국에서의 직종과 연

관성이 없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 이는 본국에서의 인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과 함께 이주민들이 이주한 국가에서 본국에서 획득해 온 인적자본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학력과 한국어 소통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취업가능 직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영농인력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인 경우 평균 경지면적이 0.47ha으로 상대적으로 영세한 영농규모를 보유하고 있기에 농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웠다. 더욱이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농촌지역은 불편한 대중교통 환경, 영유아 보육시설 부족, 상대적으로 많은 노인인구 등으로 취업 및 창업 관련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도시보다 더 많이 들며, 도시보다 여성들이 일할 만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보다 농촌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취업할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농촌이민여성센터처럼 여성결혼이민자를 상대로 봉제, 도배기술들을 가르쳐 주는 것에 매우 만족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었다. 이들은 향후 희망하는 직업훈련 분야에 대해서도 교육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분야 보다는 취창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보유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요구하고 있었다. 현재 본인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직업을 갖거나 창업할 수 있는 자격증을 보유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농촌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또는 농업인 남편과 결혼하였다는 이유로 모든 여성결혼이민자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 농촌에서 직업 및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이들의 농촌 정착 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결국 농촌에 거주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농촌형 일자리 창출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취업교육기관의 역할과 고용기관 요구 분석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전라북도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관별 취업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과 취업기관에 대한 면접을 통해 정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기관별 취업교육프로그램의 전문화와 연계성의 문제, 고용기관의 여성결혼이민

자의 수요 예측과 만족도의 차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직업소양 교육의 강조로 요약되어진다.

현재 전라북도 내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취업상담과 연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 자체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11년부터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하여 취업을 연계하고 실적을 내놓아야 하는 부분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실무자들은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바로 취업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여도 인적 특성상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임신, 출산, 양육, 가족 지지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취업교육에 있어서 기술교육보다는 직업소양교육을 강조하였는데, 현재 6시간의 의무적인 직업소양교육이 포함되지만 직업소양교육의 시간을 늘리고 이에 대한 교육매뉴얼도 개발하여 제공해 주기를 원하였다.

한편 취업상담을 하고 직접 고용기관과 연계해 주고 있는 고용지원센터와 실무적인 취업교육을 하고 있는 새일센터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어 습득임을 강조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해 취업을 시켜주려고 해도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언어교육에 집중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취업 훈련프로그램과 연동한 취업연계가 근본적으로 적은 것은 진행되는 취업훈련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취업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례처럼 이들은 출신국가나 한국어 수준, 개개인의 학력 등의 차이를 고려해서 세부 집단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고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여성결혼이민자라는 동질성을 상정한 채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것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교육 대부분은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어가 서툰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특징 정도만을 고려해 시간을 다소 연장하거나 실습비중을 높이는 식으로 일부 내용을 조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방식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결혼이민자가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습득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취업연계로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근원적 한계를 지니게 되고 이직율도 높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연계에 있어서 각 기관별 네트워킹의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전문적인 여성취업교육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교육생을 모집, 의뢰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 이것은 각 기관별 실적으로 산정되어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또 전문 취업교육 기관은 교육대상자 선정의 한계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같은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연계와 연관된 기관들은 실제적인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방안이 나오기를 요구하고 있었다. 각 기관들이 교육대상자로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수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 연계를 단계적으로 수행하면서 단계별로 각 기관들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각 기관별로 요구되는 역할로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경험 및 상담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 교육과 초기 직업 교육에 집중하고, 여성의 직업의식 및 직업훈련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새일센터는 실무적인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구인업체 정보를 가지고 취업을 연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고용지원센터는 다양한 취업교육프로그램과 취업지원금제도, 그리고 다양한 직업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결혼이민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를 채용한 고용기관은 대체로 인력난과 정책적 의도, 사업추진, 개인적 구인난 등으로 여성결혼이민자를 채용하였고 현재 채용한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공장근무인 경우 조퇴와 결근, 그리고 잦은 이직율이 작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이것은 현재 취업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 교육에 있어서 직업소양교육의 부족으로 간주되며 향후 직업훈련프로그램에 더 강조될 분야로 여겨진다. 전반적으로 취업한 분야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측면이 나타났고 가장 기본적인 한국어와 직장문화교육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해당하는 여성결혼이민자는 앞으로 지역사회의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인적 자원에 대한 역량개발과 직업소양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기간의 임시직에 머무르는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에 머무를 수 있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현재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해 진행되는 취업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지원 사업에의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취업교육과 취업연계 방안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한다.

제 2 절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1. 취업지원정책의 기본방향

현재 한국사회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은 한국사회에서의 정착 및 소득활동과 관련한 지원 사업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노동시장에 통합을 시키는 사회통합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정책은 결혼이민자의 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 일자리 알선, 일자리 제공 등과 같이 직접적인 일자리 제공과 일자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취업정책이면서 적극적 노동시장에 편입시키는 정책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전북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지원 정책의 방향은 본 연구의 결과 논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우선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라는 취업의 의미를 스스로의 역량개발을 통한 능동적인 시민성 확보와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경제적 위치⁴⁾에 있는 자신과 가족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제로 보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가족의 생산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직업훈련이나 취업 수요가 높지만 시장 내에서 취업에 따른 낮은 소득 획득 가능성, 취업 수요처의 부족, 자녀돌봄의 제약 등으로 풀타임 근로

4) 여성결혼이민자가 포함된 다문화가족은 대부분 소득분위에서 2-3분위 저소득 계층에 머물러 있다(통계청, 2012.3 자료).

월소득10분위별	2012. 1/4		
	전체가구	근로자가구	근로자의 가구
전체 평균	4,123,524	4,634,950	3,322,785
1분위	761,624	1,372,678	406,577
2분위	1,654,626	2,228,359	1,003,759
3분위	2,334,910	2,822,061	1,546,010
4분위	2,900,712	3,322,830	2,149,841
5분위	3,407,266	3,817,845	2,719,458
6분위	3,921,411	4,377,322	3,247,871
7분위	4,540,458	5,024,620	3,771,740
8분위	5,334,555	5,845,346	4,430,233
9분위	6,497,813	7,040,898	5,428,242
10분위	9,871,588	10,478,699	8,478,424

의 현실적 어려움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현재 이들의 취업지원을 담당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프로그램 등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특화된 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한다.

세 번째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인적역량 특성, 거주하는 지역이 고려되고 다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의 다문화정책 방향에서 수용되고 있는 언어문화자원을 활용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일자리는 민간노동시장에서도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자리이지만 현재 지역의 여건에서 수요처를 발굴하고 질적 수요를 강화시키는 교육 훈련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여성결혼이민자의 생애주기 특성에 따라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해서는 고용안정이 보장된 전일제 형태의 일자리의 마련도 요구되어진다. 또한 상대적으로 일자리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새로운 직업군을 개발하여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하도록 하는 기회의 제공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정책과제

전북 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지원 정책은 사회경제적 통합 지원으로서의 취업지원과 결혼이민자 가족을 특화된 계층으로 산정한 종합적인 취업교육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지역, 가족,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취업 확대 방안이라는 방향에서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정책과제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취업지원의 전달체계 개선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책이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는 것은 정책의 단절성과 중복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현재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정책도 부분적으로 미흡하지만 물량 면에서 상당한 정책공

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감사원, 2011). 오히려 현재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취업의 훈련 성과 등이 낮은 것은 취업 성과의 현실적 어려움도 있지만 정책 전달체계 간 효율성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지원에 대한 지역기관들의 역할분담과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여성결혼이민자 취업관련 기관간의 업무 분담과 취업연계

기관	업무 역할	연계방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업기초소양프로그램 운영	여성결혼이민자 특성 고려 연계방안 제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훈련교육 (기업/지역특화)	직업훈련교육의 특화/기업 수요연결, 창업
고용지원센터	구인/구직의 직접적 연결	다양한 구인업체 정보에서 여성결혼이민자 특성 고려 연결 취업지원금제도 정보 제공

감사원의 자료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여성가족부 등 정부에서 지정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직업훈련을 거쳐 취업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훈련수로 인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고용노동부 위탁 직업훈련기관 순이었지만 고용의 질 측면에서는 상용직의 경우 고용노동부 위탁 훈련 기관이 55.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5.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북에서 진행된 직업훈련프로그램과 취업 연계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각 기관과의 취업지원에서의 역할분담과 연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결혼이민자를 가장 오랫동안 현장에서 체험을 해 왔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특성과 성향을 잘 파악하지만 기능 특성상 취업지원과 관련된 직접적인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노동시장정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간의 기능적 연계가 필요하다.

② 전라북도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대 상: 도와 시군 담당자, 고용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 도내 여성 결혼이민자가 취업해 있는 기업 등
- 추진주체: 전라북도
- 사업목적: 전라북도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정책 공유 및 사업기획

전라북도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을 위해서 관련 기관의 연계 필요성은 과제로 제시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취업지원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전라북도는 협의체에 대한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나와 있지 않다.

협의체 구성 기관으로는 도와 시군 담당부서, 고용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도내 여성결혼이민자 취업해 있는 기업, 기타 사업체 수행 기관, 정책연구원 등으로 취업 관련 사안을 정기 및 부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운영한다. 이 협의 사안은 지역공동 사업 기획,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정책 및 사업 정보 공유, 취업박람회 공동 실시, 지역 내 취업교육프로그램의 중복 방지 및 조율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③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 상담사의 배치와 교육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 특성 및 가족 특성 등 이들에게 적합한 취업 상담과 취업지원 업무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필요로 한다. 현재는 고용지원센터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의 취업상담사들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지만 이들도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따라서 기존 취업 기관의 취업상담사를 대상으로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시키는 방안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상담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에게 취업상담 관련 교육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각 기관의 역할 속에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전문 취업상담사의 배치와 교육은 필요하다.

2)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다양화된 설계 및 운영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수요가 존재하고 기존 연구나 현실의 정책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직업훈련이다. 현재는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이나 정책개발을 요구하면서 주로 직종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지만, 이러한 접근과 더불어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취업에 대한 적응 경험을 쌓아가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다양화된 설계가 필요하다.

①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의 적극적 활용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10년에 개발한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프로그램(Women Immigrants' New Directions)은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취업하고자 할 때 알아야 할 기초적인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 및 안내하고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초소양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3일 동안 1일 4시간 총 1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주도형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한국 사회에서 취업하려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필요로 하는 취업 관련 정보 제공 및 경력설계를 지원한다. 현재 부산, 대구, 서울 고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전북지역에서는 아직 실행되고 있지 않다.

(표 4-1)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프로그램(Women Immigrants' New Directions)

일차	모듈	주제	내용	방법	시간
1	1	미래, 일하는 나와 만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자 및 프로그램 소개 - 함께 하는 즐거움 - 취업과 나의 미래 	강의/게임/집단활동	2시간
	2	직업, 다양한 세계 들여다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직업세계 및 한국여성의 취업 현황 -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현황 	강의	0.5시간
	3	취업정보, 손에 잡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결혼이민자의 구직경로 - 취업정보 찾는 방법 - 취업정보 수집시 고려사항 - 취업정보 수집계획서 작성하기 	강의/게임	1.5시간
2	4	나의 직업, 방향잡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갖고 싶은 직업은 - 취업역량 확인하기 - 직업선택 의사결정 - 도우미 네비게이션 (직업훈련, 자격증, 진학) 	강의/게임/집단활동	1시간
	5	구직기술, 취업관문 통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력서 작성법 - 면접, 이미지 메이킹 - 면접 시 유의점 	강의/실습	3시간
3	6	직장생활, 바로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하는 사람, 꼭 알아야 할 상식 - 한국의 직장생활, 문화를 알고 가자 - 직장에서의 예절은 이렇게 	강의/게임/집단활동	2시간
	7	취업장벽, 뛰어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생활 걸림돌, 해결방법 살펴보기 - 걸림돌 극복 성공사례 살펴보기 - 나의 걸림돌, 디딤돌 찾기 - 나의 나무그리기 	강의/집단활동	1.5시간
	8	새로운 시작, 축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참여 소감 나누기 - 수료식 	개별활동	0.5시간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참가 모니터링을 한 보고서에 따르면(한국고용정보원, 2011), 참가자들은 취업정보를 얻고, 취업방향을 잡을 수 있었으며 직업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한국어로만 진행되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자료의 언어적 다양화 요구, 프로그램 기간과 시간 확대, 더 많은 취업 정보에 대한 추가 요구 등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전북에서도 현재 개발되고 진행된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지역에 맞게 재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현재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

터에서 직업기초소양프로그램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다른 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는 취업성공패키지로 연계되어 고용센터로부터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 받아 직업훈련의 직종을 결정하고 직업훈련에 참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따라서 앞서 본 취업기관의 유기적 관계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취업교육프로그램도 단계적 지원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해 본다.

② 지역의 인력수요 및 이주여성의 특성을 살린 취업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업체 조사 및 사례조사의 고용기관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채용 여부를 보면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 단순 노무직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수요되는 훈련프로그램은 생산, 품질관리과 직업소양교육 중심이었다. 훈련기간도 단기 2-3개월에 머물렀다. 그러나 결혼이민여성인턴제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를 채용한 고용기관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기에 이들에 대한 고용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역의 기업체에 대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인력수요의 현황을 파악하여 전일제 노동 일을 원하고 경제적 지원이 시급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단기 직업소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을 연계해 준다. 이와 같은 과정은 현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을 통해 일부 운영되고 있지만 취업 이후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고용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와 기업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특성을 살린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출신국과 학력, 한국어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 혹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다.

2012년 전라북도가 지역의 기업에 대한 인력 수요와 지역 거주 이주여성의 특색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운영하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직업훈련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거두려면 지역 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에 따라 선호하는 취업 내용이 다르므로 지역사회 이주 여성 분포를 고려하여 취업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임실과 같이 배

트남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의류제작인 기능인 양성과정을 통해 직업훈련을 시키고 다문화부티크 같은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3) 여성결혼이민자 취업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지원은 궁극적으로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통합에 있기에 이들의 취업률을 제고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기본적으로 이주민의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의 문제인 한국어 능력을 고양시키는 방안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수요처의 발굴,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요약되어진다.

① 한국어 교육 강화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은 2012년에 교육시간이 확대되어 연간 총 400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1-2단계 200시간을 필수 운영하되 선택사업을 두어 총 400시간을 운영하는 과정인데 지역별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반을 개설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전라북도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 시수의 강화와 지원비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비를 도 자체 별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이다. 따라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 안에 기초소양프로그램으로 취업과 관련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던지 혹은 결혼이민여성인턴제로 고용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문 지도사를 이용하여 기업체의 이해 하에서 작업장 내에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은 앞서 제기한 결혼이민자 취업지원협의체와 같은 기구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② 여성결혼이민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여성들보다 생애주기에 있어서 좀 더 일찍 결혼시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30대 중반에 취업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이들도 생애주기적으로는 경력단절 여성처럼 임신, 출산, 육아 등 전형적인 M자형의 낮은 경제적 활동 참가 영역 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자녀양육기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간제 일자리는 저임금, 저숙련 여성근로자를 양산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존재하기에 여성결혼이민자도 특별한 기술 없이 단지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시간제 일자리에 접근하는 방식은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여성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의 확산을 통해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수요가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 시간제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 과정에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상용시간제 일자리에서 높은 분포를 보이는 직종의 경우 시간제 근로에 대한 노동수요가 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이므로 이들 직종을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정착 및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직종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시간제 직종으로 고려해 볼만 한 직종은 ‘이미용 예식 및 의료서비스’의 경우 미용사, 피부미용 및 체형관리사, 간호조무사 등이 포함되고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의 경우 간병인, 매장판매직 등으로 이는 ‘직종별 인력 수요 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11)’에서 향후 2018년까지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직업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직종을 고려한 취업교육훈련프로그램과 자격증의 구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③ 도시와 농촌형 특성을 고려한 여성결혼이민자 대상의 공공일자리 창출

전라북도의 경우 도농의 혼합도로서 도시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지원의 방식은 차별화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이들의 인적특성을 고려하여 당분간 공공재정을 투입하여 공공일

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도시형은 현재 이들이 지닌 언어문화자원을 활용한 다문화강사, 통번역사, 외국인 지도사 등을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만들어 내어 공공일자리로 창출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현재 부산사회교육원의 ‘Talk, Play, Learn 사업단’과 청주의 ‘뗏다 무지개 사업단’이 진행하는 사업의 방식이 응용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형의 공공일자리는 농촌여성일자리 지원 사업, 마을기업사업 등으로 운영하여 공동체적 작업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현재 전라북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전북 익산 농촌이민여성센터의 ‘두리두레사업단’과 임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레인보우 부티크’와 같은 지역별 특화사업은 좋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촌지역 다문화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다문화를 자원화해 창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다문화 테마사업 모델을 개발화 하고 있는데 이는 다문화적인 테마를 농업이나 비즈니스 소재들과 융합해서 문화산업화해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번에 개발한 다문화테마사업 모델은 다문화패밀리 농장, 체험교실, 레스토랑, 장터, 이민관, 축제 등 모두 6가지 유형으로, 각 유형별로 구성콘텐츠와, 사업방향, 해외사례 등 사업화 방안을 제시해 놓았다. 이것은 농촌에 거주한다고 혹은 농업인 남편과 결혼하였다고 하여 모든 여성결혼이민자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보다는 여성결혼이민자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 농촌에서도 직업 및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이들의 농촌 정착 의지를 높일 수 있는 것과 연관된다. 또한 농촌에서 가사일과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군을 개발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보다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하도록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특례형 공동아이 돌보미 사업’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이 없는 면단위 지역 중 영유아가 10명 내외인 곳은 지역농협, 마을단위 공동경영체 등 법인이 보육시설 사업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준 완화하고 학력 제한 없이 지정기관에서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한 25-60세 여성이 보육 교사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것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④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 강화 : 전북도립여중고 활용방안 모색

여성결혼이민자는 이주민으로서 출신국의 인적자본이 이주국가인 한국에서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도 필리핀 출신 여성결혼이민자가 본국의 학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한국의 대학과 대학원을 입학하는 과정을 거쳐 취업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또한 최근에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입국하게 되면서 연령과 학력이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들에 대한 인적자본을 강화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전라북도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일반적인 인적 특성을 분석한 제2장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 학력과 한국어 능력이 취업에 영향을 끼치고 학력이 높을수록 안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은 경향과 맞물려 현재 전라북도에 있어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 비율이 20-29세가 40.5%에 이르고 이들의 거주 기간이 짧고 중학교 이하 학력의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은 이들에 대한 인적 자본을 강화시키는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자체 운영하는 중·고교 정규과정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도립여중고가 존립하기에 이곳을 통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학력 취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더불어 중고등학교 학력 취득을 위한 검정고시반의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 결혼이민여성 학비지원 및 학위취득 지원 사업〉

경상북도 '결혼이민여성 학비지원' 사업은 2010년부터 전국 처음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며, 도내 결혼이민여성으로서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입학, 고등학교 졸업 자격취득을 위하여 검정고시학원에 등록 후 검정고시에 응시한 자, 학위 취득을 위하여 국내 대학교에 등록한 자에게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2011년부터 도에서는 결혼이민여성 중 대학에 진학하여 재학하고 있는 학생에게 학비를 매년 100만원 지원하고 MOU를 체결한 18개 대학 측에서는 전 학년 학비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⑤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 개최

전라북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취업박람회는 직업훈련시설 및 여성일자리 지원 기관을 알리고 여성취업 가이드북도 제공해주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교육기관을 홍보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시민단체, 기업들이 연결되어 여성결혼이민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방안 중 하나의 사업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볼 수 있다. 취업박람회의 운영 주체는 결혼이민자 취업지원협의체가 주축이 되어 시행하고, 그 시기는 전라북도내의 어울림 축제 기간을 이용하여 ‘작은 다문화 박람회 및 취업박람회’를 기획해 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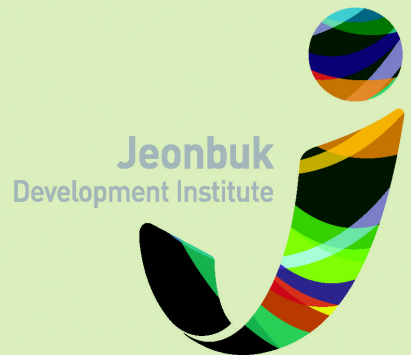
⑥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적 DB 구축 및 정책 지원에 대한 주기적 평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은 향후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함께 중요한 정책적 지원이 될 것이다. 다문화가족 부부의 연령 차이로 인한 남편의 노동시장 은퇴, 자녀들의 노동시장 진입,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시장 참여의 불가피성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지원 정책과 인프라는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적 DB를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프로파일(고혜원, 2010)을 작성하는 작업을 하고 각 취업교육기관에서는 이를 실행하도록 한다. 프로파일 내용은 개인의 인적 사항에 따라 유형화 하는데 그 요소로는 한국어 능력, 직업능력,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한다.

또한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가 2009년에 이어 2012년에 재 시행되는 시점에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기본 통계를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적 변화와 함께 시행되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책 지원에 대하여 주기적 평가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 고혜원 외(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방안; 언어·문화 자원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승권 외(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외(2010),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법무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혜(2008),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김영혜 외(2010),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및 취업연계 방안 연구」, 노동부·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김영혜(2011), 「결혼이민여성 적합직종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여성부·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김정란 외(2011), 「광주시 다문화가족취업지원 서비스 효율화 방안연구」, 광주여성재단
- 김혜순(2010), 「대구광역시 외국인 주민 일자리 제공방안연구」, 대구경북연구원
- 민무숙 외 (2009),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상우(2012), 「경상북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일자리 창출방안연구」, 대구경북연구원
- 양인숙 외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우복남 외 (2010), 「다문화 사회적 기업 현황과 충청남도의 정책지원방안」,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이규용 외 (2011), 「결혼이민자 가정과 노동시장통합」, 한국노동연구원
- 장명선 (2009),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능력 개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장서영 외 (2009),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조경옥 (2010),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전북발전연구원
- 행정안전부 통계. <http://www.mopas.go.kr>

Jthink 2012-PR-01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방안연구
- 취업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

발행인 | 김 경 섭

발행일 | 2012년 12월 31일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560-86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번지
(효자동3가 1052-1)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063-5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발전연구원에 속합니다.



560-86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효자동 3가 1052-1)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www.jthink.kr

